

2012년도

분화재위원회(근대분화재분과) 제5차 회의록

- 일 시 : 2012. 10. 4(목) 14:00~16:10
- 장 소 : 덕수궁 대강당
- 출석위원 : 김정동(위원장), 김영나, 김용수, 김정신,
윤경로, 박문열, 이수자, 정종섭, 한시준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분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근대건축물) 지정 명칭 변경	공개
2	근대신문잡지유물 문화재 등록(2차)	공개
3	「애국가 유성기 음반」 문화재 등록	공개
4	항일독립운동 유공자 묘소 문화재 등록	공개
5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 교구청」 문화재 등록	공개
6	사적 제157호 「환구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현상변경	공개
7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 성당」 주변 문화관 엘리베이터 설치 현상변경	공개

【검토사항】

8	한글 유물 문화재 등록	공개
9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문화재 등록	공개
10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문화재 등록	공개
11	「담양 고재옥 가옥」 문화재 등록	공개
12	「연천 조선왕가」 문화재 등록	공개
13	등록 제353호 「충청북도지사 관사」 명칭 변경	공개

【보고사항】

14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 무단현상변경 조치계획 보고	공개
----	------------------------------------	----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안건번호 근대2012-05-001

1. 사적(근대건축물) 지정 명칭변경

가. 제안사항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 마련('11.8.18)에 따라 사적(근대 건축물) 4건에 대한 합리적 문화재 명칭 개선을 위하여 기존 지정명칭 변경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라 합리적 문화재 명칭개선을 위하여 사적(근대건축물) 지정 명칭변경 대상 중 재논의키로 한 4건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 명칭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검토대상 :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 등 4건

(2) 추진경과

- '09. 6.10 : '09년 사적분과 제6차 회의에서 명칭변경 안건 심의
 - 「마산외동성산패총」 명칭변경 부의 : 원칙과 기준 등 전반적인 재검토 후 조정
- '10.3월 ~ '11.7월 : 사적분과 소위원회 검토(6회)와 본위원회 심의(6회)를 거쳐 '지정명칭 일반지침'과 '개선안' 마련
- '10. 4.14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 계획 보고('10년 사적분과 제4차 회의)
- '10.10.13 : 사적분과 소위원회 검토
 - 원칙적으로 문화재명 앞에 지역명 표기
- '11. 2. 8 : 합동분과(건축, 동산, 사적) 소위원회 검토
- '11. 2. 9 : 사적분과 본위원회 심의
 - 기존 요지의 명칭에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 '11. 7.13 : 사적분과 본위원회 심의
 -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재는 지역명 병기하지 않음(경복궁, 사직단 등 7개 문화유산)
- '11. 7.18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 시행
- '11.10.19 : 사적(근대건축물) 명칭 변경 관련 관계전문가 검토회의(근대문화재과)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사적(근대건축물) 명칭 검토기준(안) 동의
 - 지정명칭 변경(안) 중 서울 명동성당은 상징성 고려, 명동성당으로 하고, 나머지는 명칭 변경(안) 동의
- '12. 1.13 : 사적(근대건축물) 명칭 관련 관계전문가 검토회의(근대문화재과)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사적(근대건축물) 명칭 검토기준(안) 동의
 - 사적 명칭변경(안) 중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은 지정번호를 별개로 구분, 화산천주교회는 소유자의 지정명칭 변경 요청 의견 반영토록 함
- ※ '11.10.19 검토 시 추가 검토키로 한 사적 9건(환구단,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정동교회, 구서울대학교본관, 구공업전습소본관, 서울역사, 구서울구치소, 화산천주교회, 구 목포일본영사관)에 대한 검토
- '12. 2. 2 : 근대문화재분과 본위원회 검토
- 「서울 약현성당」 등 29건 명칭변경, 「독립문」 등 7건은 현행 명칭 사용
 -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은 지정 분리
- '12. 2.16 : 「서울 약현성당」 등 29건 명칭변경 예고
- 서울 약현성당, 서울 정동교회, 서울 윤보선가 등의 소유자가 지역명이 미병기된 타 문화재와 같이 지역명 병기 제외 요구
- '12. 6. 7 : 근대문화재분과 본위원회 검토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라 명칭변경
- 명칭변경 예고('12.6.18~7.17) : 사적(근대건축물) 명칭변경 34건
- 「서울 윤보선가」로 지역명을 표기하는 것은 의미 축소의 우려가 있으므로 윤보선고택(尹潐善古宅)으로 변경 요청
 - 「서울 대한의원」은 다른 지방에도 대한의원이 있었다고 오해하거나, 국가 중앙정부기관임에도 서울시에서 세웠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어 서울 제외 요청
 -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을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으로 변경 요청
 - 「서울 구 공업전습소 본관」은 「중앙시험소 청사」로 건립된 것이 명백하므로 「서울 구 중앙시험소 청사」로 바로잡아야 함(이순우, 동아일보 작가 등 2명)
- '12. 8. 2 :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본위원회 심의
- 「서울 독립문」 등 29건 가결('12. 8. 9 명칭변경 고시)
 - 「서울 대한의원」 등 4건은 소유자 의견 제출 후 재검토
 - 「서울 구 공업전습소 본관」은 추가자료 보완 후 재검토

(3) 소유자의견

- 「서울 대한의원」은 다른 지방에도 대한의원이 있었다고 오해하거나, 국가 중앙정부기관임에도 서울시에서 세웠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어 서울 제외 요청
- 「익산 천주교 나바위성당」은 「익산 나바위성당」으로 소유자 동의
- 「서울 윤보선가」는 서울이란 지역명칭은 범위가 광범위함. 안국동에 거주하며 일어났던 사건들로 인한 역사적 의미 부여로 안국동 지역명칭 부여가 타당하며, 또한 윤보선 실명이 있고 150년이 지난 근대한옥으로 오랜기간 실존하리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안국동 윤보선고택」이 타당함
- 「인천 성공회 강화성당」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으로 소유자 동의

(4) 심의내용 : 사적(근대건축물) 4건 명칭변경 심의

라. 검토의견

<근대문화재과 의견>

- “대한의원”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지역명을 병기하여 「서울 대한의원(서울 大韓醫院)」으로 명칭 변경
- “화산천주교회”의 경우는 기 예고된 「익산 천주교나바위성당」에서 천주교를 제외하여 「익산 나바위성당(益山 나바위聖堂)」으로 변경
- “안국동 윤보선가”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지역명을 병기하여 「서울 윤보선가(서울 尹潐善家)」로 변경
- “성공회 강화성당”은 실제 명칭에 맞게 대한성공회로 하고, 지역명이 기반영(강화)되어 있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大韓聖公會 江華聖堂)」으로 변경

마.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부 가결
 - 서울 대한의원(서울 大韓醫院), 「익산 나바위성당(益山 나바위聖堂)」, 「대한성공회 강화성당(大韓聖公會 江華聖堂)」 3건은 명칭변경 가결
 - 「안국동 윤보선가」는 재검토
- 출석 10명, 찬성 10명

붙임 : 사적 지정명칭 변경(안) 1부

<붙임 1>

사적(근대건축물) 지정명칭 변경(4건)

번호	시도	지정 명칭	변경 예고	변경 내용	고시(안)
248	서울	대한의원(大韓醫院)	서울 대한의원 (서울 大韓醫院)	지역명 병기	서울 대한의원 (서울 大韓醫院)
318	전북	화산천주교회 (華山天主教會)	익산 천주교나바위성당 (益山 天主教나바위聖堂)	지역명 병기 성당 앞 중복된 천주교 제외	익산 나바위성당 (益山 나바위聖堂)
438	서울	안국동윤보선가 (安國洞尹潐善家)	서울 윤보선가 (서울 尹潐善家)	지역명 병기	서울 윤보선가 (서울 尹潐善家)
424	인천	성공회강화성당 (聖公會江華聖堂)	인천 성공회 강화성당 (仁川 聖公會 江華聖堂)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실제명칭에 맞게 명칭 변경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大韓聖公會 江華聖堂)

2. 근대신문잡지유물 문화재 등록(2차)

가. 제안사항

근대신문잡지분야 유물 중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큰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근대문화유산 신문잡지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2010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등록조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유물에 대하여 등록 예고 기간('12.8.21~9.20)을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한성순보' 등 8건 10식

연번	대상	발행기간	체재	수량	소유자/보관처	소재지	비고
1	한성순보 (漢城旬報)	1883.10.31~ 1884.10.9	20×29cm, 18면 1단, 순한문	1건 1식	서울대학교/ 서울대 중앙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2	독립신문 (원제:독립신문)	1896.4.7~ 1899.12.4	23×35cm, 4면 3단, 한글 전용(한글·영문 →한글판/영문판)	1건 1식	연세대학교/ 연세대 학술정보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3	협성회회보 (원제:협성회회보)	1898.1.1~ 1898.4.2	19.3×25.3cm, 4면 2단, 한글 전용	1건 1식	연세대학교/ 연세대 학술정보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4	매일신문 (원제:미일신문)	1898.4.9~ 1899.4.4	19.3×25.3cm, 4면 2단, 한글 전용	1건 1식	연세대학교/ 연세대 학술정보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원제:대한매일신보)	1904.7.18~ 1910.8.28	35×51cm, 타블로이드판, 6면 4단, 한글·영문 →국한문판/영문판/ 한글판	1건 3식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서울대학교/ 서울대 중앙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6	독립신문(상해판) (獨立新聞)	1919.8.21~ 1926.11.30	28.0×40.5cm, 4면 6단, 국한문혼용	1건 1식	연세대학교/ 연세대 학술정보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7	친목회회보 (親睦會會報)	1896.2~ 1898.4	15.2×22.6cm, 국판, 국한문혼용	1건 1식 (6책)	연세대학교/ 연세대 학술정보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8	대조선독립 협회회보 (大朝鮮獨立協會 會報)	1896.11~ 1897.8	14.5×20.8cm, 국판 10점 한문전용에 국한문혼용 병행	1건 1식 (9책)	서울대학교/ 서울대 중앙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계				8건 10식			

(3) 주요 추진경과

- '10.4.12~9.11 근대문화유산 신문·잡지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
(141건 목록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 '11.8.23 근대신문·잡지분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 자문결과
 - 등록 검토대상 유물 선정 기준(안) 마련
 - 등록조사 대상 선정 : 16건(신문 6건, 잡지 2건, 신문관련 유물 8건)
- '11.9.7 근대신문유물 문화재 등록조사(1차)
- '11.12.16 근대신문잡지분야 문화재 등록(배설만사집 등 4건 10점)
- '12.6.13 근대신문잡지분야 문화재 등록 조사(2차/8건 11식)
 - 조사자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언론학), ○○○ 문화재위원(서지학),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고등학교 교사(근대서지)
 - 조사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중앙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연세대 학술정보원 등 4개소
- '12.8.2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 등록 예고
 - 기간 : '12.8.21~9.20(30일간)/「한성순보」 등 8건
 -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6.13)>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 의견 : 붙임 참조

<근대문화재과 의견>

-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조사의견을 반영하여 역사적·사료적으로 가치가 있는 한성순보 등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한성순보」 등 8건 10식 문화재 등록
- 출석 10명, 찬성 10명

- 붙임 1. 근대신문잡지유물 문화재 등록(2차) 조사보고서('12.6.13) 1부
2. 신문잡지유물 기관별 소장현황 1부

<붙임 1>

근대신문잡지유물 문화재 등록(2차)조사 보고서

1. 목 적

- 우리나라 신문잡지분야 중 역사적·사료적·자료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등록·보존하고자 함
- 근대신문잡지분야 유물의 문화재적 평가 및 가치 부여를 통해 근대 동산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심을 제고

2. 추진경과

- '10.4.12~9.11 근대문화유산 신문·잡지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
(141건 목록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 '11.8.23 근대신문·잡지분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 자문결과
· 등록 검토대상 유물 선정 기준(안) 마련
· 등록조사 대상 선정 : 16건(신문 6건, 잡지 2건, 신문관련 유물 8건)
- '11.9.7 근대신문유물 문화재 등록조사(1차)
- '11.12.16 근대신문잡지분야 문화재 등록(배설만사집 등 4건 10점)
- '12.6.13 근대신문잡지분야 문화재 등록조사(2차/8건 11식)
- 조 사 자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언론학), ○○○ 문화재위원(서지학),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고등학교 교사(근대서지)
- 조사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중앙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연세대 학술정보원 등 4개소
- '12.8.2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 등록 예고
- 기 간 : '12.8.21~9.20(30일간)/'한성순보' 등 8건
-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조사개요

가. 조사일자 : '12.6.13(수)

나. 조 사 자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언론학)
- ○○○ 문화재위원(서지학)
-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 ○○○고등학교 교사(근대서지)

다. 조사내용 : 신문잡지유물 실사 및 문화재적 가치 검토, 관계자 인터뷰 등

연번	대 상	발행기간	체 재	수량	소유자/보관처	소재지	비고
1	한성순보 (漢城旬報)	1883.10.31 ~1884.10.9	20×29cm, 18면 1단, 순환문	1건 1식	서울대학교/ 서울대 중앙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2	독립신문 (원제:독립신문)	1896.4.7 ~1899.12.4	23×35cm, 4면 3단, 한글 전용(한글·영문 →한글판/영문판)	1건 1식	연세대학교/ 연세대 학술정보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3	협성회회보	1898.1.1	19.3×25.3cm, 4면 2단,	1건 1식	연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연번	대 상	발행기간	체 재	수량	소유자/보관처	소재지	비고
	(원제:협성회회보)	~1898.4.2	한글 전용		연세대 학술정보원	연세로 50	
4	매일신문 (원제:미일신문)	1898.4.9 ~1899.4.4	19.3×25.3cm, 4면 2단, 한글 전용	1건 1식	연세대학교/ 연세대 학술정보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원제:대한미일신보)	1904.7.18 ~1910.8.28	35×51cm, 타블로이드판, 6면 4단, 한글·영문 →국한문판/영문판/ 한글판	1건 3식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서울대학교/ 서울대 중앙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6	독립신문(상해판) (獨立新聞)	1919.8.21~ 1926.11.30	28.0×40.5cm, 4면 6단, 국한문혼용	1건 1식	연세대학교/ 연세대 학술정보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7	친목회회보 (親睦會會報)	1896.2 ~1898.4	22.6×15.2cm, 국판, 국한문혼용	1건 1식 (6책)	연세대학교/ 연세대 학술정보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8	대조선독립 협회회보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6.11 ~1897.8	20.8×14.5cm 국판 10전 한문전용에 국한문혼용 병행	1건 1식 (9책)	서울대학교/ 서울대 중앙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계				8건 10식			

4. 등록기준(안)

- 근대 신문·잡지 분야 유물 중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큰 것
- 최초의 한글 신문·잡지, 일간지 및 독립신문 포함
- 초판본부터 모든 지면을 소장한 소장처를 대상으로 조사

5. 조사자 의견(요약)

연번	대 상	소유자	조사자 의견				비고
			○○○	○○○	○○○	○○○	
1	한성순보 (漢城旬報)	서울대학교	○	○	○	-	
2	독립신문 (원제:독립신문)	연세대학교	○	○	○	-	
3	협성회회보 (원제:협성회회보)	연세대학교	○	○	×	-	
4	매일신문 (원제:미일신문)	연세대학교	○	○	×	-	
5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원제:대한미일신보)	국립중앙도서관	○	○	○	-	
		문화재청	○	○	○	-	
		서울대학교	○	○	○	-	
6	독립신문(상해판) (獨立新聞)	연세대학교	○	○	○	-	
7	친목회회보 (親睦會會報)	연세대학교	○	○		○	
8	대조선독립협회회보 (大朝鮮獨立協會會報)	서울대학교	○	○	-	○	

가. 한성순보(漢城旬報)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으로 당시의 역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임(○○○)
- 개화기 최초의 신문으로 개화운동사·언론사 등 근대 연구의 보고(寶庫)이며, 서양 인쇄술의 국내 수용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임(○○○)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신문으로 언론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나. 독립신문

-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이며, 우리나라 근대 개화운동사·언론사·국어사·여성운동사 등 개화기 각종 분야 연구의 보고임(○○○, ○○○)
- 우리나라 최초로 간행된 근대기 민간신문이자, 한글 신문으로 가치가 있음(○○○)

다. 협성회회보

- 최초의 일간지 민일신문을 창간하는 기초가 되고, 신문발달사에서 중요함(○○○)
- 우리나라 한글전용 주간신문의 시초로 자주독립정신고취 및 신문비판기능 등을 갖추어 우리나라 근대 신문발달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발행되었다는 점, 공간적으로는 배재학당이라는 특정 학교를 기반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 또한 크지 않았음(○○○)

라. 매일신문

- 혁신적인 논조와 일간신문 시대를 가져온 점 등에 큰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종합일간지로 근대 언론발달의 기폭제가 되고 혁신적인 논조와 종합일간신문시대를 도래하게 함(○○○)
- 1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만 발행되었으며, 배재학당이라는 특정 학교를 기반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 또한 크지 않았음(○○○)

마.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구한말 국운이 기울던 시기에 강력한 항일논조로 발간되어 근대의 정치사·외교사·언론사·민족운동사 등 우리나라 근대의 각종 분야 연구의 보고임(○○○, ○○○)
-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정신을 고취한 점에서 정신사적 의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많이 구독함(○○○)

바.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

-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나라 안팎에서 벌였던 민족독립운동을 고취한 신문으로서 독립운동사 연구에 가치가 있음(○○○)
-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을 벌였던 시기의 독립운동사연구에 가치를 지니는 자료임(○○○)
- 민족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해에서 국내외 관심사 및 독립운동 관련 기사를 수록하여 의의가 높은 신문임(○○○)

사.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

- 동경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발행한 최초의 잡지로 개화사상, 독립 사상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선진문물과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한국근대화의 추진세력 역할 수행(○○○)
- 최초의 잡지로 희귀함. 창간호만 하던지, 모든 소장기관의 소장본을 모두 등록(○○○)

아.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단체인 독립협회의 공식 의견이 반영되는 잡지이며, 그 후에 발행된 잡지의 모델이 되었음(○○○)
- 국내에서 발행된 잡지의 효시로 개화기의 학술·문예·시사는 물론 국민계몽사상과 독립사상의 고취에 조력함(○○○)
- 민족민주주의와 근대화운동을 부르짖은 독립협회의 기관지로서, 우리의 중요한 정신문화의 소산임(○○○)

6. 유물별 주요특징 및 가치

가. 한성순보(漢城旬報)

- 1) 명 칭 : 한성순보(漢城旬報)
- 2)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 3)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4) 발행기간 : 1883.10.31~1884.10.9(36호)
- 5) 발행주체 : 창간대표-민영목, 김만식, 발행처-통리아문 박문국
- 6) 체 재 : 책자형 20×29cm, 4호 활자 1단체(1면 1행 47자 23행) 18면, 제2호부터 20면, 제3~4호 16면, 제5호부터는 24면. 열흘에 한번 간행, 순한문
- 7) 재 질 : 종이
- 8) 소장수량 : 30호(미소장 : 6개, 1,2,7,34,35,36호)
- 9) 조사자 의견

<한국의국어대학교 ○○○ 교수(언론학)>

○ 내용 및 특징

- 최초의 신문: 漢城旬報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으로서 1883년 10월 31일에 창간되었다가 이듬해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발행이 중단되었고, 이를 복간하는 형식으로 한성주보가 발행되었다. 주보는 1886년 1월 25일에 창간되었다가 1888년 7월경에 폐간되었다.
 - 발행목적: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국민들에게 세계정세를 알리는 한편 선진국가의 정치·경제 및 문화와 제도를 소개하고 과학지식을 보급시킴으로써 이 나라를 문명개화의 단계로 이끌어 보기 위해 발간한 신문이었다. 신문 발행을 위해 조선정부는 통리아문에 박문국을 설치하고 열흘에 한번씩 발행했다. 발행의 목적은
 - ① 국내의 견문을 넓히고
 - ② 국민을 교화하여 부국강병을 기함으로써
 - ③ 밖으로는 외모(外侮)를 막을 수 있고
 - ④ 하의(下意)를 상달(上達)하고
 - ⑤ 상업적 이익[商利]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 기사 내용: 신문의 내용은 외국관계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화파들은 신문을 통해서 외국의 소식과 함께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려 했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 체재 : 한성순보는 매호 24면 정도의 분량을 책자형으로 묶어서 발행되었다. 정부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관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내용과 발행의 목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임에 틀림없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국내 최초로 발행된 신문의 효시이다.
 - 개화운동의 구체적인 결실로 창간되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 당시의 역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며, 개화운동사 연구, 조선 사회에 개화운동이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일본에서 서양식 인쇄기를 사용하여 인쇄한 신문이므로 인쇄사 연구에도 필요하다.
 - 중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을 많이 인용하였다. 근대 학술용어와 당시의 국제정세를 시사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신문이 마모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은 중요하다.
- 종합의견 :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음

<문화재위원 ○○○(서지학)>

- 명 칭 : 한성순보(漢城旬報)
 -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재 질 : 지류(紙類)
 - 판 종 : 신식연활자판본(서지기술사항 참간)
 - 형 식 : 절장(綴裝)·가장(假裝)
 - 조성연대 : 1883-1884년
 - 현 상 :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漢城旬報」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漢城旬報 / 閔泳穆 等. -- 新式鉛活字版本. -- [漢城] : [統理衙門 博文局], 1883-1884.

冊(枚) : 插圖, 插畫, 23行47字 ; 29.0×20.0cm. 旬刊.

創刊代表: 閔泳穆, 金晚植.

創終刊: 1883.10.31.-1884.12.04.

題名: 4號 活字 1段題

面數: 創刊號(18面), 第2號(20面), 第3-4號(16面), 第5號-終刊號(24面)

言語: 漢文

所藏處: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現狀: 조사문화재「漢城旬報」는 방대한 분량의 근대의 신문으로 綴裝·假裝 등의 책자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紙質은 韓紙·和紙 등이다. 조사문화재 <漢城旬報>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일사문고, 서울대학교 경제문고 등에 散藏되어 있으며,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 내용 및 특징 :
- 內容 : 조사문화재 <漢城旬報>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1883년 10월 31일부터 정부기구인 統理衙門 博文局에 의하여 旬刊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의 목적은 국내의 見聞을 넓히고 국민을 教化하여 富國強兵을 기함으로써 밖으로는 外侮를 막고 안으로는 下意를 上達하고 商利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본 旬報에 대하여 西洋과 中國 및 日本의 신문을 모방하여 발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부터 이미 근·현대의 신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던 <朝報>가 존재하였던 만큼 우리의 <朝報>가 시대에 따라 적의한 형태로 발전된 것이라 이해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본 旬報의 내용은 외국관계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開化派들이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世界情勢를 알리는 한편 선진국의 정치·경제·문화·제도 등을 소개하고 과학지식을 보급시켜 나라와 국민을 文明開化의 단계로 계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旬報는 每號 24면 정도로 발행되고 週報는 每號 20면의 冊子 형태로 발행되었던 점에서 학자에 따라 본 旬報를 雜誌로 간주하기도 하고 정부의 발행이라 하여 官報로 간주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과 발행의 목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임에 틀림이 없다. 博文局이 甲申政變(1884)으로 불타 旬報의 발행이 중단되자, 당시 정부는 다시금 더욱 발전된 형태의 <漢城週報>를 창간하였다. 본 旬報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신문이며 開化運動의 구체적인 결실로 창간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당시의 歷史·開化運動史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며, 서양식 인쇄기를 사용하여 인쇄한 신문이라는 점에서 西洋印刷術의 국내 受容史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特徵: 조사문화재 <漢城旬報>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漢城旬報>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헌자료

- 閔泳穆 等編, 漢城旬報. 新式鉛活字版本. [漢城] : [統理衙門 博文局], 1883-1884.
- 文化財廳 編, 近代文化遺産 新聞雜誌分野 目錄化調査研究 報告書. 大田 : 文化財廳 近代文化財課, 2010.

○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조사문화재 <漢城旬報>는 우리나라 개화기 최초의 신문으로 歷史·開化運動史·言論史 연구 등 우리나라 근대의 각종 분야 연구의 寶庫이며, 西洋印刷術의 국내 受容史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조사문화재 <漢城旬報>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漢城旬報>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종합의견 : 調査文化財 <漢城旬報>는 國家文化財로 登錄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함

<문화재전문위원 ○○○(근대소설)>

- 명 칭 : 한성순보(漢城旬報)
- 소 유 자 : 서울대 도서관
-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 규 격 : 20×29 cm
- 형 식 : 책자형
- 조성연대 : 1880년대
- 현 상

- 보관상의 편리성을 위해 합본되어 있음
- 보관용 표지에 “漢城旬報”라고 써 있음(일사문고 소장본의 경우 출판기관의 이름을 따 “博文旬報”라고 써 있음)
- 보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 정부기구였던 박문국(통리아문 소속)에서 발행(1883.10.31. 창간)
 -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24면 내외의 책자 형태여서 잡지로도 볼 수 있음)
 - 열흘에 한번 발행(순간)
 - 한문 표기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서울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漢城旬報”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신문으로 언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漢城旬報”(서울대도서관 소장본)는 강화도조약을 통해 문호를 개방한 조선 정부가 1883년 10월 31일 창간한 최초의 신문이다. 열흘에 한번 간행된 까닭에 신문과 잡지의 경계에 놓여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있어서 한문으로 표기된 것이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서양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 등 다양한 영역을 소개하여 개화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漢城旬報”(서울대도서관 소장본)는 몇호가 결락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구비되어 있고 자료의 보관상태 또한 비교적 양호하나, 최초 발행된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 일반 이용자들에게 노출된 까닭에 훼손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나. 독립신문

- 1) 명 칭 : 독립신문(원제:독립신문)
- 2)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 3)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4) 발행기간 : 1896.4.7~1899.12.4(한글판 776호, 영문판 442호)
- 5) 발행주체 : 창간대표 서재필, 발행처 한성 정동 배재학당
- 6) 체 재 : 23×35cm 4면
- 7) 재 질 : 종이
- 8) 소장수량

연도	구분	한글판			영문판			비 고
		수량	보유호수	미소장	수량	보유호수	미소장	
1896	1권	116	1호~116호	-	-	-	1~116호	
1897	2권	136	16호~154호	1~15, 92호	154	1호~154호	-	
1898	3권	49	1호~75호	17~19,41,52~228호	151	1호~151호	-	
1899	4권	175	1호~190호	17~31,191~278호	14	1호~14호	15~21호	
총호수		476			319			

9) 조사자 의견

<한국의국어대학교 ○○○ 교수(언론학)>

- 내용 및 특징

- 최초의 민간신문: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이다. 한성순보는 정부가 발간한 신문이었다. 이에 비해 독립신문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서재필이 창간하였으므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상업적인 광고를 실었기 때문에 그 후에 창간되는 다른 신문의 모델이 되었다.
 - 한글판과 영문판: 창간 당시는 한글판 3페이지와 영문판 The Independent 1페이지로 편집하였고, 격일간으로 주 3회 발행이었다. 1898년부터는 한글판과 영문판을 분리하여 2종의 신문이 되었고, 1898년 7월 1일부터는 발행회수를 늘려 일간으로 발행했다.
 - 정부와 서재필의 합작: 조선 정부는 독립신문의 창간을 위해 설립자금으로 3,000원과 서재필의 개인 생계와 가옥 임대를 위하여 1,4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동에 있는 정부 소유의 건물을 신문사의 사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립신문의 우송비를 다른 인쇄물의 우송료보다 싸게 하는 특혜를 주었다. 그러므로 서재필이 신문을 창간했지만 한 사람의 개인적 업적이 아니라 국내 개화파와 서재필의 합작이었다.
 - 국민계몽과 일인신문 견제: 정부가 서재필의 신문 발간을 지원한 것은 신문을 발행하여 국민을 계몽하는 동시에 일본인이 발행하고 있던 漢城新報에 대항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 민간신문의 모델: 서재필은 1898년 5월 14일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윤치호(尹致昊)와 미국인 아펜젤러(H.G.Appenzeller)에 이어 1899년 6월부터는 영국인 엠버얼리(H.Emberley)가 차례로 제작과 운영을 맡았다가 1899년 12월 4일 정부가 서재필에게 4,000원을 지급하여 독립신문의 판권과 인쇄시설을 매수한 뒤 이 날짜로 폐간되었다. 이 신문은 그 후에 창간된 뒤 여러 민간신문의 모델이 되었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독립신문은 구한말의 개화운동을 비롯하여 초창기 언론사 연구, 국어사 연구, 여성운동사 등 개화기 각 분야에 걸친 연구의 보고이다. 한글전용으로 발간되어 일반 서민들도 가능하면 싼 구독료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진정한 대중신문이었다.
 - 독립신문은 최초의 한글전용 민간신문이다. 개화사상을 널리 전파하고 정부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개혁을 외쳤다. 독립신문의 발행 이후에 점차 자생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늘었다.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신문 발달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 한성순보와 주보는 정부가 직접 발행한 신문이므로 논평과 비판의 기능이 없었다. 그러나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을 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1면 머리에 논설을 실어서 정부와 집권 위정자들의 비정(秕政)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였으며, 민간인의 잘못도 서슴지 않고 비판하였다. 앞으로 나타나는 민간신문의 모델이 된 것이다.
 - 독립신문 영문판 The Independent는 당시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여 외국인들에게 국내의 사정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던 국가 홍보의 역할을 맡았다.

※ 독립신문 체재의 변화

독립신문의 체재는 창간 이래 다음과 같이 경영과 체재상의 변화가 몇 차례 있었다.

- 1) 한-영 양국어 신문 발행기: 1896년 4월 창간 당시에는 한글판 3면과 영문판 1면을 한 신문에 같이 편집한 2국어(二國語) 신문으로 주 3회(화,목,토) 격일간이었다. 판형은 A4판으로 판면은 20cmx29cm 정도였고 본문은 한글전용에 4호 활자를 사용하였다. 창간호부터 4월 18일자 제 6호까지는 ‘독립신문’으로 표기하다가 제 12호부터 ‘독립신문’으로 바꾸었다. 영문판의 제호는 The Independent였다.
- 2) 한글-영문 2종 발행기: 1897년 1월부터는 한글판과 영문판을 분리하여 한글판 독립신문과 영문판 The Independent의 2종으로 되었다. 판형은 한글판은 그대로 두고 영문판은 24cmx37cm로 키웠다. 구독료는 1897년 1월부터 한글판은 동전 2푼(2전), 월 25전, 연 2원 60전으로, 영문판은 1장당 동전 5푼(5전), 월 75전, 연 6원으로 차별을 두었다.
- 3) 일간 발행기: 서재필이 돌아간 직후인 1898년 7월 1일부터는 독립신문을 일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독립신문의 일간 제작은 당시 사회가 이를 요구하였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 4월 9일부터 배재학당의 학생회인 협성회가 일간으로 매일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독립신문이 첫 민간신문으로 발행되어 이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매일신문이 독립신문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 4) 판형 변화: 일간으로 발행하면서 독립신문은 판형을 B5(판면은 17cmx23cm)로 줄였다. 그러나 1899년 9월 1일부터는 지폭을 또다시 창간 당시의 B4판으로 확장하였다.
- 5) 영문판: 1899년에는 주간 단위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정기적으로도 발행되어 전체 발행 호수가 14호에 그치고 말았다. 독립신문이 창간된 때로부터 폐간까지 43개월 동안 간행된 총 호수는 한글판 776호, 영문판이 442호였는데, 연도별 간행 호수는 다음과 같다.

독립신문 연도별 간행 내용

연도	한글판	영문판	비 고
1896	116	116	B4판: 한글판 3면, 영문판 1면
1897	154	154	한-영문판 분리 한-영 각 4면
1898	228	151	7월 1일부터 일간: 한글판은 A5판
1899	278	21	12월 4일까지 발간 후 폐간
총호수	776	442	

- 종합의견 :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음

<문화재위원 ○○○(서지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독립신문(獨立新聞)
-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재 질 : 지류(紙類)
- 판 종 : 신식연활자판본(서지기술사항 참간)
- 형 식 : 철장(綴裝)·가장(假裝)
- 조성연대 : 1896-1899년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獨立新聞>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獨立新聞 = 독립신문 / 徐載弼. -- 新式鉛活字版本. -- [漢城 貞同] : [培材學堂], 1896-1899.

冊(枚) : 插圖, 插畫, 3段, 36行 字數不定 ; 35.0×23.0cm. 隔日刊·日刊.

創刊代表: 徐載弼

創終刊: 1896.04.07.-1899.12.04.

面數: 한글(3면)·영문(The Independent, 1면)

言語: 한글·영문

刊期: 격일간(1896.04.07.-1897.06.30.), 일간(1898.07.01.-1899.12.04.)

版區分: 1897년부터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분리

DB化: 한국언론진흥재단 데이터베이스

所藏處: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現狀 : 조사문화재 <獨立新聞>은 근대의 신문으로 綴裝·假裝 등의 책자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紙質은 和紙·洋紙 등이다. 조사문화재 <獨立新聞>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등에 散藏되어 있으며,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 내용 및 특징 :

- 內容: 調査文化財 <獨立新聞>은 최초의 근대적 民間新聞으로 1896년 4월 7일 창간 당시는 한글판 3면과 영문판 'The Independent' 1면으로 주당 3회의 隔日刊 형태로 발행되었다. 1897년부터는 한글판과 영문판의 2종으로 분리되었으며, 1898년 7월 1일부터는 日刊으로 발행되었다. 본 新聞은 開化思想을 널리 전파하고 정부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개혁을 주도하기 위하여 徐載弼(1864-1951)에 의해 창간되었으나, 이는 徐載弼의 개인적 업적이 아니라 국내의 개화파와 서재필의 합작이었다. 조선의 정부는 본 新聞의 창간을 위한 설립자금으로 3,000원과 서재필 개인의 생계와 가옥의 임대를 위하여 1,400원을 지원하였고 정동에 있던 정부 소유의 건물을 新聞社의 社屋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신문의 우송료를 다른 인쇄물의 우송료보다 싸게 하는 특혜를 주었다. 정부가 서재필에게 신문의 발간을 지원한 것은 국민을 계몽하는 동시에 당시 일본인이 발행하던 <漢城新報>에 대항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1898년 5월 14일에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 尹致昊(1865-1945)와 아펜젤러(亞扁薛羅, 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에 이어 1899년 6월부터는 영국인 엠벌리(音法里, W. H. Emberley)가 차례로 제작과 운영을 맡았으나, 1899년 12월 4일에 정부가 서재필에게 4,000원을 지급하고 「獨立新聞」의 판권과 인쇄시설을 매수하자 이날로 폐간되었다. 본 신문은 그 후에 창간된 여러 民間新聞의 모델이 되었으며, 구한말의 開化運動史·言論史·國語史·女性運動史 등 開化期 각 분야에 걸친 연구의 寶庫이다. 한글전용으로 발간되어 일반 서민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진정한 대중신문이었다. LG상남언론재단이 影印本을 제작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이 이용할 수 있다.
- 特徵: 조사문화재 <獨立新聞>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

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獨立新聞> 중에서 아직 인터넷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헌자료
 - 徐載弼 等編, 獨立新聞 = 독립신문. 新式鉛活字版本. [漢城 貞同] : [培材學堂], 1896-1899.
 - 文化財廳 編, 近代文化遺產 新聞雜誌分野 目錄化調查研究 報告書. 大田 : 文化財廳 近代文化財課, 2010.
- 등록 가치 및 근거 기준
 - 조사문화재 <獨立新聞>은 우리나라 최초의 民間新聞이며, 우리나라 근대 開化運動史·言論史·國語史·女性運動史 등 개화기 각종 분야 연구의 寶庫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조사문화재 <獨立新聞>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獨立新聞> 중에서 아직 인터넷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종합의견 : 調查文化財 <獨立新聞>은 國家文化財로 登錄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함

<문화재전문위원 ○○○(근대소설)>

- 명 칭 : 독립신문(獨立新聞 / 독립신문)
- 소 유 자 : 연세대 학술정보원
- 규 격 : 35×23cm
- 조성연대 : 1890년대
- 현 상
 - 보관상의 편리성을 위해 합본되어 있음
 - 보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 민간 단체였던 독립협회에서 발행 (1896년 4월 7일 창간)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 격일간으로 주 3회 발행되다가 1898년 7월부터 일간으로 발행
 - 처음에는 한 호에 한글판과 영문판이 함께 있었으나, 1897년부터 각각 발행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연세대 학술정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독립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민간 신문이자 한글 신문으로 언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 및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독립신문”(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본)은 민간단체였던 독립협회가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이후 언론 분야에서 여러 민간신문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언론사적 의의가 높다.
 - 또한 “독립신문”은 지식층이나 관리들을 독자로 삼았던 이전의 한문 표기(혹은 국한문 혼용 표기) 신문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의 개화의식을 고취하

기 위해 한글 표기 신문으로 발행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따라서 개화기 무렵의 언어 생활을 엿보는데도 “독립신문”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등록문화재의 명칭으로 원제인 “독립신문” 살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독립신문”(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본)은 거의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고, 자료의 보관상태 또한 비교적 양호하나, 최초 발행된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까닭에 훼손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다. 협성회회보

- 1) 명 칭 : 협성회회보(원제:협성회회보)
- 2)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 3)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4) 발행기간 : 1898.1.1~1898.4.2(1~14호)
- 5) 발행주체 : 창간대표 양홍묵(회보장), 이승만(주필)
- 6) 체 재 : 19.3×25.3cm, 4면 발행의 2단체(1단 27행), 주1회 간행, 한글전용
- 7) 재 질 : 종이
- 8) 소장수량 : 13호(미소장 : 13호)
- 9) 조사자 의견

<한국의국어대학교 ○○○ 교수(언론학)>

○ 내용 및 특징

- 배재학당 학생회: 협성회(協成會)가 발행한 주간 신문이다.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에서 강의했던 서재필은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회의 운영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회를 운영하도록 지도하여 1896년 11월 30일에 협성회(協成會)가 결성되었다.
- 사회단체의 성격 : 협성회는 회원을 학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준회원에 해당하는 ‘찬성원(贊成員)’ 제도를 두어 학교 밖의 뜻있는 젊은이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폐쇄적인 학내 단체가 아니라 사회단체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 세미나 방식 토론회: 협성회의 토론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정동 감리교회에서 열렸는데 정해진 주제에 관해서 발표자가 찬성과 반대 연설을 한 뒤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세미나 방식이었다.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을 실시하는 배재학당에서 학생들이 민주적 회의 진행 방식을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공개 토론을 전개한다는 것은 학교 내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토론회에는 외부대신을 비롯하여 학부대신과 교사들이 자주 참가하였다.
- 신문은 토요일 발행: 협성회회보는 “전국 동포의 이목을 열어 내외국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하고, 이천만 동포가 일심합력 하여 임금과 나라를 받들고 아래로 우리 동포의 집안들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창간했다.
- 일반인 대상 종합지 성격: 학생회가 발행했지만 편집체제와 내용은 일반을 상대로 하는 종합지의 성격을 띠었으며 일반에 판매도 했다. 한글 전용으로 1면에는 논설을 실었고, 2, 3, 4면에 걸쳐서 ‘내보’와 ‘외보’, 그리고 맨 마지막인 4면 끝에 협성회의 소식인 ‘회중잡보’를 배치했다. 제4호부터는 기명논설도 실었다.

- 이승만의 고목가: 1898년 3월 9일자에는 이승만의 고목가(Song of Old Tree)라는 시가 게재되었는데 이 시는 국문학 상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로 평가받는 최남선의 ‘해(海)에게서 소년에게’(1908.11) 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으로 이 시를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로 보아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1898년 4월 2일 제14호까지 발행한 뒤에 발행을 중단하고 4월 9일 자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미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했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협성회회보는 신문은 발행기간이 짧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최초의 일간지 미일신문을 창간하는 기초가 되었다.
 - 외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발행된 신문으로 정부나 종교기관 또는 신문발행을 지원하는 단체의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발행된 첫 신문이었다. 한성순보는 정부 발행이었고, 독립신문은 민간신문이지만 정부의 보조를 받아 창간되었다.
 -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이었던 배재학당의 교육과 운영,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다.
 - 협성회회보는 신문 발달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글전용, 자주독립정신, 신문의 비판 기능 등을 갖춘 신문이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젊은 시절 행적을 더듬어 볼 수 있다.
 - 신문계보 : 협성회회보(1898.1.1) → 미일신문(1898.4.9) → 상무총보(商務總報)(1899.4.14)
- 종합의견 :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음

<문화재위원 ○○○(서지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협성회회보(協成會會報)
-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재 질 : 지류(紙類)
- 관 종 : 신식연활자판본(서지기술사항 참간)
- 형 식 : 철장(綴裝)·가장(假裝)
- 조성연대 : 1898년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協成會會報>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協成會會報 = 협성회회보 / 協成會 編. -- 新式鉛活字版本. -- [漢城 貞同]
: [培材學堂 學生會], 1898.

冊(枚) : 插圖, 插畫, 2段, 27行 字數不定 ; 19.3×25.3cm. 週刊(土曜日).

創刊代表: 梁弘默

主筆: 李承晚

創終刊: 1898.01.01.-1898.04.02.

面數: 4面

言語: 한글

連刊: 미일신문

所藏處: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現狀: 조사문화재 <協成會會報>는 근대의 신문으로 綴裝·假裝 등의 책자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紙質은 和紙·洋紙 등이다. 조사문화재

<協成會會報>는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조사문화재 <協成會會報>는 培材學堂의 학생회인 協成會가 발행한 한글 전용의 週刊新聞으로 매주 토요일에 발행되었다. 전국 동포의耳目을 열어 내외국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하고 2천만 동포가 一心合力하여 국왕과 나라를 받들고 아래로 우리 동포의 집안들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창간되었다. 배재학당의 학생회가 발행하였으나 편집체제와 내용은 일반을 상대로 하는 종합지의 성격을 띠었으며 일반에게 판매도 하였다. 1면에는 논설을 수록하고 2·3·4면에는 ‘內報’와 ‘外報’를 수록하였으며, 4면 말미에는 협성회의 소식인 ‘會中雜報’를 수록하였다. 제4호부터는 執筆者 記名의 논설도 실었다. 1898년 3월 9일자에는 李承晩(1875-1965)의 ‘古木歌(Song of Old Tree)’라는 詩가 게재되었는데 기울어 가는 國運을 고목에 비유한 것으로 국민들이 굳건한 자세로 싸운다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시는 國文學史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新體詩로 평가받는 崔南善(1890-1957)의 ‘海에게서 少年에게’(1908.11.)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新體詩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898년 4월 2일 제14호까지 발행한 뒤 폐간하고 4월 9일자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미일신문』으로 題號를 바꾸어 발행하였다. 본 會報는 비록 발행기간이 짧았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미일신문』 창간의 기초가 되고 정부나 종교기관 및 단체 등의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발행되었던 신문이다. 본 會報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교육기관인 배재학당 학생들이 외부의 보조를 받지 않은 채 한글전용을 채택하고 자주독립정신 고취 및 신문비판기능 등을 갖추어 발행하여 우리나라 근대 新聞發達史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대 대통령 李承晩의 젊은 시절의 행적연구와 개화기 청년들의 사상과 활동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特徵: 조사문화재 <協成會會報>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協成會會報>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헌자료

- 協成會 編, 協成會會報 = 협성회회보. 新式鉛活字版本. [漢城 貞同]: [培材學堂 學生會], 1898.
 - 文化財廳 編, 近代文化遺產 新聞雜誌分野 目錄化調查研究 報告書. 大田: 文化財廳 近代文化財課, 2010.

○ 등록 가치 및 근거 기준

- 조사문화재 <協成會會報>는 우리나라 한글전용 週刊新聞의 시초로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每日新聞> 창간의 기초가 되고 自主獨立精神鼓吹 및 新聞批判機能 등을 갖추어 우리나라 근대 신문발달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조사문화재 <協成會會報>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協成會會報>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종합의견 : 調査文化財 <協成會會報>는 國家文化財로 登錄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함

<문화재전문위원 ○○○(근대소설)>

- 명 칭 : 협성회회보
- 소 유 자 : 연세대 학술정보원
- 조성연대 : 1890년대
- 현 상
 - 보관상의 편리성을 위해 협성회회보와 미일신문이 합본되어 있음
 - 보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함
 - 협성회회보 13호 결호
- 내용 및 특징
 - 배재학당 학생회인 협성회에서 주간으로 협성회회보를 발행(1898년 1월 1일 창간)하다가 제14호(1898년 4월 2일자)를 마지막으로 미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고 일간으로 발행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연세대 학술정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협성회회보” 및 “미일신문”은 배재학당 학생회였던 협성회에서 발행한 신문으로 “미일신문”의 경우 최초의 일간신문이라는 의의가 있긴 하지만, 그 발행기간이 길지 않고 특정 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 또한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협성회회보” 및 “미일신문”(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본)은 배재학당 학생회였던 협성회가 발행한 일간 신문이다. 특히 “미일신문”은 “독립신문”이 격일간으로 발행되던 1898년 4월 9일 일간신문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최초의 일간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협성회회보”의 경우 3개월 정도, “미일신문”의 경우 1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만 발행되었다는 점, 공간적으로는 배재학당이라는 특정 학교를 기반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 또한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다른 등록문화재와 비견될 만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라. 매일신문

- 1) 명 칭 : 매일신문(원제:미일신문)
- 2)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 3)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4) 발행기간 : 1898.4.9~1899.4.4(278호)
- 5) 발행주체 : 창간대표 양홍묵(梁弘默), 이승만(李承晩)
- 6) 체 재 : 19.3×25.3cm, 4호 활자 4면 2단체, 일간, 한글전용
- 7) 재 질 : 종이
- 8) 소장수량 : 278호
- 9) 조사자 의견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언론학)>

- 내용 및 특징
 - 최초의 일간신문: 주간 발행이었던 협성회회보를 일간으로 발전시키면서 제호를 미일신문으로 바꾸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신문이다. 2년 앞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지만 아직 격일간에 머물고 있던 때에 미일신문은 일간으로 발행된 것이다.
 - 체 재: 협성회회보와 비슷했으나 협성회의 기사를 거의 신지 않고 광고도 게재하여 종합일간지의 면모를 갖추었다. 미일신문으로 발전한 후에는 협성회의 회장이 신문의 사장을 겸했다.
 - 외세저항의 논조: 이 신문은 외세에 저항하는 한국 신문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898년 5월 16 일자 제32호에는 러시아가 목포와 진남포의 땅을 팔라고 요구하고 프랑스는 석탄 채굴권을 얻어내려 한다는 기사를 실어 외교문제화 되기도 했다.
 - 초창기 신문 발달에 기여: 창간 후 1년만인 1899년 4월 4일 경영난과 정치 정세의 변화에 따라 폐간했다. 인쇄시설은 황국협회의 상무회사(商務會社)가 인수하여 4월 14일 상무총보(商務總報)로 개제했다. 한 때 이 신문 사장을 맡았던 이승만은 이종일이 창간한 '데국신문'에서 활약하는 등으로 초창기 신문 발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 큰 신문이었다.
 - 신문계보: 협성회회보(1898.1.1)→ 미일신문(1898.4.9)→商務總報(1899.4.14)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으로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언론발달에 기폭제가 되었다.
 - 미일신문은 1년 정도밖에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수명은 짧았으나 혁신적인 논조와 일간신문 시대를 가져온 점 등에 큰 의의가 있다.
 - 협성회회보와 미일신문이 발간된 후에는 언론사를 장식하는 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데국신문과 황성신문이 뒤이어 창간되었고, 이듬해인 1899년 1월에는 시사총보(時事叢報)가 창간되었다. 협성회회보-미일신문은 우리나라 민간신문 발달의 선도자였던 것이다.
 - 미일신문은 배재학당 학생회의 기관지라는 성격에서 탈피하여 일반 민간신문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내용이었다.
- 종합의견 :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음

<문화재위원 ○○○(서지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매일신문(每日新聞)
-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재 질 : 지류(紙類)
- 판 종 : 신식연활자판본(서지기술사항 참간)
- 형 식 : 철장(綴裝)·가장(假裝)
- 조성연대 : 1898-1899년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每日新聞>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每日新聞 = 미일신문 / 協成會 編. -- 新式鉛活字版本. -- [漢城 貞同] : [培材學堂 學生會], 1898-1899.

冊(枚) : 插圖, 插畫, 2段, 24行 字數不定 ; 19.3×25.3cm. 日刊.

創刊代表: 梁弘默

主筆: 李承晚

創終刊: 1898.04.09. ~ 1899.04.03.

面數: 4面

言語: 한글

前刊: 협성회회보

所藏處: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現狀: 조사문화재 <每日新聞>은 근대의 신문으로 綴裝·假裝 등의 책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紙質은 和紙·洋紙 등이다. 조사문화재 <每日新聞>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조사문화재 <每日新聞>은 週刊으로 발행되던 <協成會會報>를 『每日新聞』으로 題號를 바꾸고 日刊으로 발전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신문이다. 2년 앞서 <獨立新聞>이 창간되었으나 여전히 隔日刊에 머물고 있던 때에 일간으로 발행되었으며, 체제는 <協成會會報>와 비슷하였으나 협성회의 기사는 거의 수록하지 않고 광고도 게재하여 綜合日刊紙의 면모를 갖추었다. 『協成會會報』의 제작을 맡은 會報長은 梁弘默(?-?)이었으나, 『每日新聞』으로 발전한 후에는 협성회의 회장이 사장을 겸하였다. 본 신문은 외세에 저항하는 한국 신문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898년 5월 16일자 제32호에는 러시아가 목포와 진남포의 땅을 팔라고 요구하고 프랑스는 석탄채굴권을 얻어내려 한다는 기사를 실어 외교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창간 1년만인 1899년 4월 4일 경영난과 정치정세의 변화에 따라 폐간되었으며, 당시 인쇄시설은 皇國協會의 商務會社가 인수하여 4월 14일 『商務總報』로 개제하였다. 한때 본 신문의 사장을 지낸 李承晚(1875-1965)이 李鍾一(1858-1925)이 창간한 『帝國新聞』에서 활약하는 등, 초창기 신문발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 큰 신문이었다. 본 신문의 계보는 『協成會會報』(1898.01.01.) - 『每日新聞』(1898.04.09.) - 『商務總報』(1899.04.14.)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신문은 한국 최초의 綜合日刊新聞으로 당시의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언론발달에 기폭제가 되었으며, 비록 그 수명은 짧았으나 혁신적인 논조와 일간신문 시대를 도래하게 하였던 점 등에서 큰 의의가 있는 신문이다.

- 特徵: 조사문화재 <每日新聞>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每日新聞>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헌자료

- 協成會 編, 每日新聞 = 매일신문. 新式鉛活字版本. [漢城 貞同]: [培材學堂 學生會], 1898-1899.
- 文化財廳 編, 近代文化遺産 新聞雜誌分野 目錄化調查研究 報告書. 大田: 文化財廳 近代文化財課, 2010.

○ 등록 가치 및 근거 기준

- 조사문화재 <每日新聞>은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綜合日刊紙로 근대 언론

- 발달의 기폭제가 되고 혁신적인 논조와 綜合日刊新聞時代를 도래하게 하여 각종 분야 연구의 寶庫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조사문화재 <每日新聞>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每日新聞>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종합의견 : 調查文化財 <每日新聞>은 國家文化財로 登錄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함

<문화재전문위원 ○○○(근대소설)>

- 명 칭 : 미일신문
- 소유자 : 연세대 학술정보원
- 조성연대 : 1890년대
- 현 상
 - 보관상의 편리성을 위해 협성회회보와 미일신문이 합본되어 있음
 - 보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함
 - 협성회회보 13호 결호
- 내용 및 특징
 - 배재학당 학생회인 협성회에서 주간으로 협성회회보를 발행(1898년 1월 1일 창간)하다가 제14호(1898년 4월 1일자)를 마지막으로 미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고 일간으로 발행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연세대 학술정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협성회회보” 및 “미일신문”은 배재학당 학생회였던 협성회에서 발행한 신문으로 “미일신문”의 경우 최초의 일간신문이라는 의의가 있긴 하지만, 그 발행기간이 길지 않고 특정 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 또한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협성회회보” 및 “미일신문”(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본)은 배재학당 학생회였던 협성회가 발행한 일간 신문이다. 특히 “미일신문”은 “독립신문”이 격 일간으로 발행되던 1898년 4월 9일 일간신문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최초의 일간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협성회회보”의 경우 3개월 정도, “미일신문”의 경우 1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만 발행되었다는 점, 공간적으로는 배재학당이라는 특정 학교를 기반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 또한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다른 등록문화재와 비견될만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1) 명 칭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2) 소유자, 소재지 및 수량

구분	소유자	소재지	국한문판 소장수량	비 고
1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	719호	1904.8.4(16호)~1904.12.31(137호) 1905.1.5(1호)~1905.3.9(52호) 1905.8.11(1호)~1909.6.30(1134호)
2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857호	1905.8.12(2호)~1910.8.28(1461호)
3	서울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929호	1905.8.18(6호)~1910.2.9(1310호)

3) 발행기간 : 1904.7.18~1910.8.28(1461호)

4) 발행주체 : 편집인 겸 발행인 배설(裴說 : Ernest Thomas Bethell), 총무 양기탁

5) 체 재 : 35×51cm, 타블로이드 4단 6면(한글판 영문 4단체)

- 영문판 4면과 한글판 2면 → 국한문판/영문판으로 분리(1905.8.11), 한글판 창간으로 3개의 신문으로 분리(1907. 5. 23)

6) 재 질 : 종이

7) 조사자 의견

<한국의국어대학교 ○○○ 교수(언론학)>

○ 내용 및 특징

- 한말 최대의 민족지: 영국인 배설(裴說: Ernest Thomas Bethell)이 발행한 신문으로 한글판 2면과 영문판(The Korea Daily News) 4면의 2국어 신문으로 창간했다.
- 2개의 신문으로 분리: 1905년 8월 11일부터는 국한문판(대한매일신보)과 영문판(The Korea Daily News)의 2개 신문으로 분리했다.
- 한글 전용판 발행: 1907년 5월 23일에는 한글판을 새로 창간하여 국한문판, 영문판, 한글판의 3개 신문이 되었다.
- 치외법권 특혜: 배설은 영국인이기 때문에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렸으므로 일본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고 민족진영은 이 신문을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삼았다. 총무 양기탁을 비롯하여 논설진으로 박은식 신채호가 참여했다.
- 대한매일신보사는 국채보상운동의연금총합소가 되었으며 항일비밀 결사 ‘신민회’의 총본부이기도 했다.
-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배설을 추방하거나 신보의 발행을 중단시키도록 영국측에 끈질긴 외교교섭을 벌여서 배설은 1907년과 그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재판에 받았고 총무 양기탁은 국채보상의연금을 횡령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재판에 회부하여 영일 간에 외교분쟁이 야기되었다.
- 대한매일신보의 발행부수는 당시 국내발행의 전체 신문부수보다 훨씬 많았을 정도로 독자들의 절대적인 인기를 끌었다.
- 1909년 5월 1일 배설이 젊은 나이로 죽은 후에는 영국인 만함(萬咸 Alfred Marnham)이 경영을 맡았으나 이듬해 한일합방 직전에 일본 통감부에 신문을 팔아버렸다.
- 한일합방 이후부터는 ‘대한’ 2자를 삭제하고 제호를 매일신보로 고쳐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었다.
 - 신문계보: 大韓每日申報(1904.7.18) → 每日申報(1910.8.30) → 每日新報(1938.4.29) → 서울신문(1945.11.23)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신문의 사료적 가치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크다. ‘대한매일신보’는 한글판, 국한문판, 영문판의 세 종류가 있다. 러일전쟁에서 한일 강제합병

- 까지 국운이 기울던 시기에 강력한 항일논조로 발간되었다.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와 같은 민족진영의 논객들이 붓을 들었다. 일본은 이 신문을 폐간하거나 발행인 베셀을 추방하기 위해 영국을 상대로 오랜 외교공세를 폈다. 정치사, 외교사, 언론사, 민족운동사에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 대한매일신보는 러일전쟁에서 한일합병까지의 시기에 한국 문제를 둘러싼 영·일 두 나라의 외교사이자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 근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항일의병투쟁, 국채보상운동, 애국계몽운동 등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 민족운동사의 핵심적인 연구과제 가운데 하나라 할 수가 있다.
 -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언론사에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신문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신문이었고, 여기에 종사했던 언론인들은 우리나라 언론을 이끌어 온 당대의 논객들이요, 우국지사이자 독립투사들이었다. 이 신문이 세운 민족언론의 전통은 일제치하를 거쳐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 내려오고 있다.
 - 이 신문은 소장처 한 곳에 전 기간의 신문이 모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장 많은 지면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도서관의 소장 지면을 근대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 종합의견 :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음

<문화재위원 ○○○(서지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소 유 자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재 질 : 지류(紙類)
 - 판 종 : 신식연활자판본(서지기술사항 참간)
 - 형 식 : 철장(綴裝)·가장(假裝)
 - 조성연대 : 1904-1910년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大韓每日申報>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大韓每日申報 = 대한매일신보 / 裴說(Ernest Thomas Bethell). -- 新式鉛活字版本. -- [漢城] : [大韓每日申報社], 1904-1910.

冊(枚) : 插圖, 插畫, 4-6段, 41行 字數不定 ; 타블로이드판(35×51cm). 日刊.

編輯兼發行: 裴說(Ernest Thomas Bethell)

總務: 梁起鐸

創終刊: 1904.07.18.-1910.08.28.

面數: 6面

言語: 한글판, 영문판, 국한문판

版區分: 1905년에 한문판과 영문판으로 분리하고 후에 한글판 창간(1907.05.23.)

所藏處: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 現狀: 조사문화재 <大韓每日申報>는 근대의 신문으로 綴裝·假裝 등의 책자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紙質은 和紙·洋紙 등이다. 조사문화재 <大韓每日申報>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등에 散藏되어 있으며,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

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 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조사문화재 <大韓每日申報>는 영국인 裴說(Ernest Thomas Bethell, 1872-1909)이 발행한 신문으로 처음에는 한글판 2면과 영문판 'The Korea Daily News' 4면의 신문으로 창간되었다. 1905년 8월 11일부터 국한문판과 영문판의 2개 신문으로 분리되고 1907년 5월 23일에 한글판을 새로이 창간하여 국한문판·영문판·한글판의 3가지 신문이 되었다. 裴說은 외국인이라 治外法權의 특권을 누렸으므로 일본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고 민족진영은 본 申報를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삼았다. 총무 梁起鐸(1871-1938)을 비롯하여 논설진으로는 朴殷植(1859-1925)과 申采浩(1880-1936) 등이 참여하였고 大韓每日申報社는 1907년부터 시작된 國債報償運動 義捐金總合所가 되었으며 항일비밀결사 '新民會'의 총본부이기도 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가 裴說을 추방하거나 申報의 발행을 중단시키도록 영국 측에 끈질기게 외교교섭을 벌인 결과 裴說은 1907년과 그 이듬해(1908) 두 차례에 걸쳐서 재판권을 받았고 총무 梁起鐸은 국채보상의연금을 횡령하였다는 누명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英日間에 외교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발행부수는 당시 국내발행의 전체 신문 부수보다 훨씬 많았을 정도로 독자들의 절대적인 인기를 끌었다. 1909년 5월 1일 裴說이 卒去한 후에는 영국인 만함(萬咸, Alfred W. Marnham, ?-?)이 경영을 맡았으나 이듬해 庚戌國恥(1910.08.29) 직전에 일본 統監府에 양도되고 庚戌國恥 이후부터는 '大韓' 2자를 삭제하고 '每日申報'로 題號를 고친 뒤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고 말았다. 본 신보의 계보는 大韓每日申報(1904.07.18.) - 每日申報(1910.08.30.) - 每日新報 (1938.04.29) - 서울신문(1945.11.23.)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申報는 한글판, 국한문판, 영문판의 3가지 종류로 러일전쟁에서 庚戌國恥에 이르기까지 국운이 기울던 시기에 강력한 항일논조로 발간되었다. 朴殷植과 申采浩 및 梁起鐸 등의 민족진영의 논객들이 筆을 들었던 결과, 일본은 본 신보를 폐간하거나 발행인 裴說을 추방하기 위해 영국을 상대로 오랜 외교공세를 펼쳤다. 따라서 본 신보는 근대의 정치사·외교사·언론사·민족운동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 特徵: 조사문화재 <大韓每日申報>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大韓每日申報>는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헌자료

- 裴說(Ernest Thomas Bethell) 編, 大韓每日申報 = 대한미일신보. 新式鉛活字版本. [漢城]: [大韓每日申報社], 1904-1910.
- 文化財廳 編, 近代文化遺産 新聞雜誌分野 目錄化調査研究 報告書. 大田: 文化財廳 近代文化財課, 2010.

○ 등록 가치 및 근거 기준

- 조사문화재 <大韓每日申報>는 한글판, 국한문판, 영문판의 3가지 종류로 구한말 국운이 기울던 시기에 강력한 항일논조로 발간되어 근대의 政治史·外交史·言論史·民族運動史 등 우리나라 근대의 각종 분야 연구의 寶庫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

-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조사문화재 <大韓每日申報>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大韓每日申報>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종합의견 : 調査文化財 <大韓每日申報>는 國家文化財로 登錄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함

<문화재전문위원 ○○○(근대소설)>

- 명 칭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대한미일신보)
- 소 유 자 : 국립중앙도서관 / 서울대도서관 / 국립고궁박물관
- 규 격 : 35×51cm.
- 판 종(서지의 경우) : 타블로이드판
- 조성연대 : 1900년대
- 현 상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보관상의 편리성을 위해 총 13권으로 나뉘어 합본되어 있음(하드커버)
 - 보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함
 - 창간호는 없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중 1904년 8~12월 발행본의 청구기호로 미루어볼 때 창간호를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소장하고 있지 않음)
 - 1905년 4~7월, 1907년 5월~1909년 4월 등 결호가 있음
 - [서울대 도서관 소장본]
 - 보관상의 편리성을 위해 합본되어 있음(소프트커버)
 - 보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함
 - 창간호는 없음 (제6호 1905.08.18. 자 신문부터 보관 중)
 - 결호가 있음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
 - 매 페이지마다 따로 보관되어 있어서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함
 - 창간호는 없음
 - 결호가 있음
- 내용 및 특징
 - 1904년 7월 18일 서울 전동(算洞 : 지금의 종로구 수송동)에서 「런던 데일리 뉴스」의 특파원인 영국인 베텔(E.T.Bethell, 한국이름 裴說)을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하여 창간됨
 - 1910년 8월 28일(1461호)까지 발행된 후 경술국치 다음날부터 ‘大韓’의 두자를 떼어낸 채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로 속간됨
 - 처음에는 한글판 2면과 영문판(The Korea Daily News) 4면의 신문으로 창간하였으나 1905년 8월 11일부터 국한문판과 영문판을 분리하여 발행하였으며, 1907년 5월 23일 순한글판을 새로 창간하여 결국 국한문판·영문판·순한글판 등 세 신문을 발행하였음
 - 발행부수도 1만 부를 넘어 국내 발행 전체 신문부수가 많을 정도였음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大韓每日申報 / 대한미일신보”는 영국인 베텔을 편집 겸 발행인으로 내세워

일본군의 사전 검열 및 신문지법 상의 검열 규정을 피해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정신을 고취한 점에서 정신사적 의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체 신문 발행 부수의 절반을 넘을 만큼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언론사적 의의 또한 높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大韓每日申報 / 대한미일신보”는 러일전쟁 중이던 1904년 장지연, 신채호 박은식 등 민족주의 인사들이 영국인 베텔의 치외법권을 활용하여 창간한 신문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의병투쟁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각종 논설을 통해 민중들의 항일정신을 고취한 대표적인 민족지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이 여러 외교적 분쟁까지 각오하면서 발행인 베텔에 대한 탄압을 강행하고, 총무였던 양기탁에게 국채보상의연금을 횡령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재판에 회부하기도 한 것은 이 신문이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영국인 베텔이 죽고 국권조차 빼앗긴 상태에서 ‘대한’이라는 제호를 빼앗긴 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해버린 것은 민족사의 비극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그런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이 모두 창간호가 없는 상태에서 결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완질이 발견되기까지 세 기관의 “大韓每日申報 / 대한미일신보”를 함께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버금가는 보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바. 독립신문 상해판(獨立新聞)

- 1) 명 칭 : 독립신문 상해판(獨立新聞)
- 2)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 3)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4) 발행기간 : 1919.8.21~1926.11.30(198호)
- 5) 발행주체 : 사장 이광수, 출판국장 주요한
- 6) 체 재 : 28.0×40.5cm, 4면 6단체, 주3회간(화, 목, 토 발행), 국한문혼용
- 7) 재 질 : 종이
- 8) 보유수량 : 1919.8.21(6호)~1925.11.11(189호)
 - 미소장 : 12호(40,125,126,177~182,186~188호)
- 9) 조사자 의견

<한국의국어대학교 ○○○ 교수(언론학)>

○ 내용 및 특징

- 상해판 ‘독립신문’은 1919년 8월 21일에 창간되어 1926년 11월 30일자 제 198호까지 상해 임시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발행되었다. (한말 서재필의 독립신문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신문임)
- 독립신문은 ‘獨立’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가 1919년 10월 25일자 제22호부터 ‘獨立新聞’으로 바꾸었다. 이듬해인 1920년 1월 1일자 169호부터는 제호를 한글로 ‘독립신문’으로 변경했다.
- 독립신문은 3.1독립운동 후 국내에는 민간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창간되어 독립운동의 본산이 되는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과 이념을 널리 전파하고 중국 만주 지방의 독립운동 소식을 국내외에 알렸으며 민족언론의 정통을

- 세운 신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독립신문은 상해를 근거로 국내에도 비밀리에 보급되었으며, 중국, 만주, 러시아, 미주지역에 걸쳐서 널리 배포되었다.
- 독립신문은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 외에도 국내외의 독립운동사 연구의 일차 자료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나라 안팎에서 벌였던 민족독립운동을 고취했던 이 신문은 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 독립신문은 일제의 눈을 피해 임시정부의 연통제(聯通制)를 이용하여 국내 동포에 배포했다. ‘연통제’는 독립운동의 비밀조직이었는데 신문의 보급뿐만 아니라 독립자금의 조달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벌였던 시기의 독립운동사 연구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자료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상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는 비밀리에 배포되었던 신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는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것이다.
- 종합의견 :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음

<문화재위원 ○○○(서지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독립신문 상해판(獨立新聞 上海版)
-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독립기념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재 질 : 지류(紙類)
- 판 종 : 신식연활자판본(서지기술사항 참간)
- 형 식 : 철장(綴裝)·가장(假裝)
- 조성연대 : 1919-1926년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查文化財 <獨立新聞>(上海版)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獨立新聞 = 독립신문 / 上海臨時政府 編. -- 新式鉛活字版本. -- [中國] : [上海], 1919-1926.

冊(枚) : 插圖, 插畫, 6段, 41行13字 ; /타블로이드판(28.0×40.5cm). 주3회간.

社長: 李光洙

出版局長: 朱耀翰

創終刊: 1919.08.21.-1926.11.30.

面數: 4面

言語: 國韓文 혼용

刊期: 주3회간(화·목·토)

題號變更: 獨立(1919.08.21.), 獨立新聞(1919.10.25.), 독립신문(1920.01.01.)

所藏處: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독립기념관

- 現狀: 調查文化財 <獨立新聞>(上海版)은 근대의 신문으로 綴裝·假裝 등의 책자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紙質은 和紙·洋紙 등이다.
- 조사문화재 <獨立新聞>(上海版)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독립기념관 등에 散藏되어 있으며,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進行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調查文化財 <獨立新聞>(上海版)은 上海臨時政府와 연관이 깊은 신문이다. 본 신문이 나오기 전에는 臨時政府에서 1주일에 세 번씩 내는 <우리消息>이라는 통신을 발행하고 있었다. 본 신문은 원래 <獨立>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으나, 1919년 10월 25일자 제22호부터 <獨立新聞>으로 제호를 바꾸었으며 이듬해(1920) 1월 1일자 169호부터 제호를 한글의 <독립신문>으로 변경하였다. 3·1운동 후 국내에 아직 민간신문이 허가되기 전 창간되어 上海를 근거로 국내·중국·만주·러시아·미주지역 등에 널리 배포되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나라 안팎에서 벌였던 민족독립운동을 고취하였다. 본 新聞은 1919년 8월에 창간되어 1926년 12월 1일에 종간될 때까지의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사장 李光洙(1892-1950?)와 영업부장 李榮烈(?-?)이 주도했던 1921년 6월까지이고 둘째는 金希山(?-?)이 이를 맡았던 1921년 10월부터 1924년 12월까지이며, 셋째는 朴殷植(1859-1925)이 사장이었던 1925년 1월 무렵부터 동년(1925) 11월까지의 시기이다. 본 新聞은 日帝의 監視를 피해 임시정부의 聯通制組織을 통해 국내 동포에 배포되었다. ‘聯通制’는 독립운동의 비밀조직으로 신문의 보급뿐 아니라 독립자금의 조달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본 新聞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을 벌였던 시기의 獨立運動史研究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特徵: 調查文化財 <獨立新聞>(上海版)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調查文化財 <獨立新聞>(上海版)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헌자료

- 上海臨時政府 編, 獨立新聞 = 독립신문. 新式鉛活字版本. [中國]: [上海], 1919-1926.
- 文化財廳 編, 近代文化遺産 新聞雜誌分野 目錄化調查研究 報告書. 大田: 文化財廳 近代文化財課, 2010.

○ 등록 가치 및 근거 기준

- 조사문화재 <獨立新聞>(上海版)은 上海臨時政府와 연관이 깊은 신문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抗日獨立運動을 벌였던 시기의 獨立運動史研究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조사문화재 <獨立新聞>(上海版)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獨立新聞>(上海版)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종합의견: 調查文化財 <獨立新聞>(上海版)은 國家文化財로 登錄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함

<문화재전문위원 ○○○(근대소설)>

- 명 칭 : 독립신문(獨立新聞)
- 소 유 자 : 연세대 학술정보원
- 조성연대 : 1910년대~1920년대
- 현 상
 - 보관상의 편리성을 위해 상권과 하권으로 합본되어 있음(하드커버)
 - 보관 상태는 좋지 않음
 - 창간호 “獨立”을 포함하여 소장(창간호의 경우 독립기념관 소장본의 상태가 좋음)
- 내용 및 특징
 - 1919년 8월 21일 상해의 프랑스조계에서 창간
 -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소식 및 독립운동 관련기사 수록
 - 창간 때는 ‘獨立’이라는 제호로 제21호까지 계속하다가 제22호(1919년 10월 25일)부터는 ‘獨立新聞’이라 바꾸었고, 제169호(1924년 1월 1일)부터는 ‘독립신문’이라고 한글로 하였음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독립신문(獨立新聞)”은 국외에서 발간된 신문이긴 하지만, 당시 민족독립운동의 새로운 구심지였던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의 관심사 및 독립운동 관련 기사를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언론 분야보다는 국사 분야, 특히 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 그 의의가 높은 신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 신문은 처음 :“獨立”이라는 제호로 창간하여 21호까지 발간한 다음에 “獨立新聞”으로, 그리고 다시 “독립신문”로 제호를 바꾸었는데, 처음에는 일본에서 2.8독립선언을 주도한 다음에 중국으로 망명해 있던 춘원 이광수를 사장 겸 주필로, 주요한을 편집국장으로 하여 창간되었다. 중국 상해라는 악조건 때문에 1924년 이후 발행회수가 뜸해지긴 했지만, 종간 때까지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시정부 인사들과 교민들의 정신적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일본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민족 독립 의식을 고취하는데 앞장섰다.
 -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독립신문”은 창간호를 포함하여 완질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보관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서둘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사.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

- 1) 명 칭 :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
- 2) 소유자 : 연세대학교
- 3)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4) 발행기간 : 1896.2~1898.4(6호)
- 5) 보유수량 : 6책(1~6호)
- 6) 출판주체 및 매수
 - 출판주체 : 대한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 발행장소 : 동경

구분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매수(쪽)	비고
1호	최상돈	김용제	표기 없음	110	
2호	최상돈	김용제	표기 없음	270	
3호	김용제	김용제	표기 없음	135	
4호	김용제	김용제	친목회 권설사무소(동경)	100	
5호	원응상	김용제	친목회 권설사무소(동경)	183	
6호	원응상	김용제	친목회 권설사무소(동경)	175	

7) 규 격 : 15.2×22.6cm, 국판(菊判¹⁾), 계간, 국한문혼용

8) 재 질 : 종이

9) 조사자 의견

<한국의국어대학교 ○○○ 교수(언론학)>

○ 내용 및 특징

- 친목회회보는 일본 유학생들이 결성한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의 회지로 창간되었다. 잡지의 표지에는 1895년 10월 창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뒤 표지의 발행 날자는 1896년 2월 15일 발행으로 표시되었다. 1895년 10월 발행을 목표로 준비하였으나 실지 발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표지와 판권의 날자에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발행한 잡지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어로 발행한 최초의 잡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계간지로 3개월 단위로 발행되었고, 1898년 4월까지 동권 6호를 발행했다.
- 당시 유학생들은 문화의 전달자였고, 민족의 진로를 제시할 젊은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잡지는 비록 그 배포 범위가 회원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국내 사상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개화사상과 독립사상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친목회회보는 단순한 유학생 회지라기보다는 학술과 문예, 시사를 아우르는 종합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 회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이었으나 찬성원 외에 국내 각 학교와 정부기관에 보냈다. 유지(有志)들의 찬조금으로 잡지를 발행하였는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 일본인들의 찬조가 더 많았다.
- 동경 유학생들이 친목회회보 이후에 몇 개의 잡지를 발행하는데 그 원조가 바로 친목회회보였던 것이다. 보관된 잡지는 소중한 유물이며 근대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

○ 종합의견 :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음

<문화재위원 ○○○(서지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
-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1) 잡지서적 등의 판형의 한 가지로, 그 치수가 약 152×218mm인 것. 세로걸 국진지(636×939mm)를 16절(짧은변과 긴변을 4번씩 접음)하여 32면으로 자른 것으로, 46판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판형의 하나이다. 특히 딱딱하고 무게가 있는 학술서, 각급 학교교과서 등에 많이 사용된다(출처:한국언론진흥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재 질 : 지류(紙類)
- 판 종 : 신식연활자판본(서지기술사항 참간)
- 형 식 : 포배장(包背裝)
- 조성연대 : 1896-1998년
- 현 상

- 書誌記述: 調査文化財 <親睦會會報>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親睦會會報 = 친목회회보. 1-6號 /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 編. -- 新式鉛活字版本. -- [東京] 等 : [崔相敦] 等, 1896-1898.

6冊 ; 插圖, 插畫 ; 菊版(21.8×15.2cm). 季刊.

號數別發刊年月: 제1호(1896.02.), 제2호(1896.06.), 제3호(1896.10.), 제4호(1897.03.), 제5호(1897.09.), 제6호(1898.04.)

號數別發刊面數: 제1호(110)·제2호(270)·제3호(135)·제4호(100)·제5호(183)·제6호(175)

編輯·發行: 제1-2호(편집인 金鎔濟, 발행인 崔相敦), 제3-4호(편집겸발행인 金鎔濟), 제5-6호(편집인 金鎔濟, 발행인 元應常)

發行處: 제1-3호(발행처 표기 없음), 제4-6호(親睦會權設事務所, 東京)

所藏處: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現狀: 조사문화재 <親睦會會報>는 근대의 잡지로 包背裝의 책자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紙質은 和紙·洋紙 등이다. 조사문화재 <親睦會會報>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등에 散藏 되어 있으며,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조사문화재 <親睦會會報>는 1896년 2월 15일자로 발행된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의 회보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季刊 雜誌이다. 다만 일본에서 발행된 때문에 嚆矢의 자리를 「大朝鮮獨立協會會報」에 넘겨주기도 하였으나, 1996년 한국잡지협회에서 ‘한국잡지 100년의 해’를 기념할 때에 본 회보가 잡지의 효시로 선정된 바 있다. 창간호의 標題紙에는 ‘개국 504(1895)년 10월 발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版勸紙에는 1895년 11월 30일에 인쇄하여 1896년 2월 15일에 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제지의 발행 예정일과 관권지의 실제의 인쇄일과 발행일에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국내정세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본 회보는 季刊誌임을 밝혔으나 刊期를 지키지 못해 1898년 4월까지 통권 6호를 발행하는데 그쳤으며, 菊版(15.2×22.6cm) 크기에 110여 면의 분량으로 되어 있고 제4호부터 제호에 한글이 添記되었다.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는 1895년 5월 동경에서 설립된 최초의 재일한국유학생단체로 당시 113명의 관비유학생들이 慶應義塾에 입학한 뒤 魚允迪(1868-1935)과 尹致旣(?-?)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친목도모와 학식교환 그리고 한국문화의 계발에 있었다. 본 회보는 단순한 유학생의 會報誌라기보다는 학술과 문예 및 시사를 아우르는 종합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목차에 따르면 事實·논설·문원·강연·내외보·만국사보·잡보·회중기사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회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이었으나 국내의 각 학교와 정부

기관에도 배포되었다. 有志들의 찬조금으로 발행되었는데 후꾸자와(福澤諭吉, 1835-1901) 등 일본인들의 찬조가 더 많았으며, 이들은 선진문물과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한국근대화의 추진세력이 되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特徵 : 조사문화재 <親睦會會報>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親睦會會報>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헌자료

-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 編, 親睦會會報 = 친목회회보. 1-6號. 新式鉛活字版本. [東京] 等 : [崔相敦] 等, 1896-1898.
- 文化財廳 編, 近代文化遺産 新聞雜誌分野 目錄化調査研究 報告書. 大田 : 文化財廳 近代文化財課, 2010.

○ 등록 가치 및 근거 기준

- 조사문화재 <親睦會會報>는 일본에서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季刊雜誌의 嚆矢로 단순한 유학생의 會報誌라기보다는 학술과 문예 및 시사를 아우르는 종합지의 성격을 띠고 선진문물과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한국근대화의 추진세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조사문화재 <親睦會會報>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親睦會會報>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종합의견 : 調査文化財 <親睦會會報>는 國家文化財로 登錄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함

<○○고등학교 ○○○ 교사(근대서지)>

- 명 칭 : 친목회회보
- 소 유 자(소재지) 및 수량 : 서울대학교 도서관(관악구 대학동):1,2호
연세대도서관(서대문구 신촌동):1-6호 (재)아단문고(중구 서소문동):1,2,4,5,6호
- 규 격 : 국관
- 조성연대 : 1896-1898년
- 현 상 : 『친목회회보』의 주요 소장처는 서울대학교(2책:1,2호)와 연세대학교(6책:1-6완질)이다. 가장 의미가 큰 창간호의 상태는 서울대 소장본이 제일 좋은 편이다. 2호의 경우 연대본은 표지가 없으며, 3호는 연대본이 유일한데 상태 양호하다. 연대본 경우 4호는 앞표지가 분리되어있고, 판권이 있는 뒤표지가 매우 낡았으며, 6호도 뒤쪽 상태가 부족하다. 5호는 상태 양호하다. 아단문고본은 창간호의 뒤쪽이 상태가 안 좋고, 나머지 호수들은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 ① 『친목회회보』는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의 회지로 1896년 2월 15일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이다. 일본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대조선독립협회회보』와 ‘효시嚆矢’ 자리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

으나 1996년 ‘한국잡지100년’을 기념하는 한국잡지협회의 선정 작업에서 호시로 선정된 바 있다. ② 이 잡지는 단순한 유학생 회지라기보다는 학술과 문예, 시사를 아우르는 종합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점에서도 『대조선독립협회회보』보다 형식상 앞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정확한 발행부수를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회원들에게만 배포되었으며 찬성원 외에 정부기관에만 보내졌기 때문에 국내 잔존 부수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등록 가치 및 근거 기준 : (가) 『친목회회보』 (나) 『대조선독립협회회보』
 - (가)와 (나)는 한국근대출판사상 호시가 되는 대표적인 정기간행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가)는 일본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가)에 비해 후대에 발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 근대문화 내지는 근대지식의 형성과정에 있어 일본 유학생의 위치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것이 사실이다. (가)를 발행한 주체인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는 재일유학생회의 시초로 이것이 1930년대까지 이어진 유학생회의 모태가 되었다. 그리고 근대 출판의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출판,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발행한 것이 결정적인 하자瑕疵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좀더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나)보다는 (가)가 오늘날의 잡지라는 개념에 훨씬 더 접근해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가 반월간으로 18호까지 발행되었으나 한 호가 대략 20쪽에 불과한 것에 반해, 계간이었던 (가)는 6호까지밖에 발행되지 못했으나 많게는 270쪽(2호의 경우) 또는 183쪽(5호의 경우) 등이었던 것으로 보아 (나)보다는 (가)가 안정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잔존부수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가)가 (나)보다는 희귀한 것이 틀림없다.
 - (나)는 (가)보다 연대가 늦으며 형태상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가)에 비해 무엇보다도 자주적 배경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가 관비유학생들에 의해, 국내 또는 일본의 성금에 의해 발행되었다면, (나)는 외세에 의한 국권침탈과 지배층에 의한 민권유린의 현실 상황 속에서 자주국권과 자유민권의 개혁사상 아래 민족민주주의와 근대화운동을 부르짖은 독립협회의 기관지였다는 것이다. 정치사적 의미 부여에 있어서는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근대화에 있어 일본과의 과거사정리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우리의 중요한 정신문화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각 호당 약 일천 부 가량 발행된 것으로 알려진 (나)는 아직까지는 드물게나마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친목회회보는 연세대에 완질이 있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창간호(앞표지 손상 및 화보에 탈락이 있음)와 제2호(앞표지 없음), 제4호(앞표지 분리 및 뒷부분 불량), 제6호(본문 175쪽, 광고 2쪽 이하 낙장 = 판권 없음) 등에 문제가 있으며, 서울대에는 1,2호가 소장되어 있는데 창간호의 상태가 가장 완벽하다.
 - 따라서 창간호만 선정한다면 당연히 서울대본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모든 호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두곳의 모든 호들을 선정하든지, 상태를 고려하여 창간호(서울대), 3,5호(연세대)본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

- 1) 명 칭 :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
- 2)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 3)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4) 발행기간 : 1896.11~1897.8(18권)
- 5) 발행주체 : 대조선독립협회(회장: 안경수)
 - 별도의 판권지가 없어 발행인 등의 정보 없음(貞洞 출판)
- 6) 규격 : 14.5×20.8cm, 국판 10전, 각호 20-22쪽, 월2회 발행, 국한문 혼용
- 7) 재질 : 종이
- 8) 보유수량 : 9책(미보유 : 9책, 2,3,5,9,11,12,14,15,18)
- 9) 조사자 의견

<한국의국어대학교 ○○○ 교수(언론학)>

○ 내용 및 특징

-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1896년 11월 30일에 창간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최초의 잡지였다. 일본 유학생들이 발행한 친목회회보(1896년 2월 15일 창간) 보다는 8개월 반 늦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발행된 잡지였으며 독립협회를 배경으로 발행되어 보급되었기 때문에 구독자의 숫자나 보급 범위가 넓었고, 영향력도 컸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월 2회 발행으로 매월 15일과 말일에 발행되었다. 매호 20-22쪽 정도의 크기였다.
- 독립협회의 '회보'라는 형식으로 발행되었지만 회원들에게 국한한 내용보다는 국민적 이익에 관심을 두어 개화기 잡지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 내용은 계몽적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근대 문명과 과학 지식을 조명한 각종 논설이 실렸다.
- 1897년 8월 15일 통권 제 18호까지 발행한 후에 더 이상 발행되지 못하였다. 통권 18호 발행은 한말 잡지로서는 수명이 길었던 것이며 독립협회의 개화운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단체인 독립협회의 공식 의견이 반영되는 잡지이기 때문에 개화기 연구에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최초의 잡지로서 그 후에 발행된 잡지의 모델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크다.
- 국민 계몽과 정치 사회의 개혁을 목표로 선진 문물을 소개했던 증거로 보전할 가치가 크다.

<문화재위원 ○○○(서지학)>

- 현황 : 비등록
- 명칭 :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
- 소유자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재질 : 지류(紙類)
- 판종 : 신식연활자판본(서지기술사항 참간)
- 형식 : 포배장(包背裝)
- 조성연대 : 1896-1897년
- 현상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大朝鮮獨立協會會報>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大朝鮮獨立協會會報 = 대조선독립협회회보 = The Chosun. 第1-18號 / [大

朝鮮獨立協會] 編. -- 新式鉛活字版本. -- [漢城] : [大朝鮮獨立協會], 1896-1897.

冊 : 插圖, 插畫 ; 菊版(14.5×20.8cm). 半月刊(15·30일).

號數別發刊年月: 제1호(1896.11.), 제2-3호(1896.12.), 제4-5호(1897.01.), 제6-7호(1897.02.), 제8-9호(1897.03.), 제10-11호(1897.04.), 제12-13호(1897.05.), 제14-15호(1897.06.), 제16-17호(1897.07.), 제18호(1897.08.)

號數別發刊面數: 各號 20-22面

大朝鮮獨立協會: 會長 安駟壽

所藏處: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아단문고, 전갑주

- 現狀: 조사문화재 <大朝鮮獨立協會會報>는 근대의 잡지로 包背裝의 책자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紙質은 和紙·洋紙 등이다. 조사문화재 <大朝鮮獨立協會會報>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아단문고, 전갑주 등에 散藏되어 있으며,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조사문화재 <大朝鮮獨立協會會報>는 1896년 11월 30일에 大朝鮮獨立協會에서 창간호를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기간행물 형태의 잡지이다. 매월 15일과 말일에 발행된 반월간잡지로 菊版(21.8×15.2cm) 크기에 매호 20-22면에 불과하였다. 권당 판매가격은 10전으로 발행부수는 1천부 정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잡지의 嚆矢로는 1895년에 도입한 관비유학생들의 <親睦會會報>가 있으나, 국내가 아닌 日本 東京의 출판시설에서 발행되었으므로 차별적인 효시로 간주하기도 한다. 독립협회는 1896년 7월에 결성되어 1898년 12월까지 존속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단체로 외세에 의한 國權侵奪과 지배층에 의한 민권유린의 상황 속에서 자주 국권과 자유 민권 및 自強改革思想에 의하여 民族主義·民主主義·近代化運動 등을 전개하며 <獨立新聞>과 <獨立協會會報> 등의 기관지를 통해 협회의 주장과 사업을 알리고 대중의 계몽에 앞장섰던 단체이다. 본 회보는 啓蒙論說, 會員寄稿, 世界主要事件要約, 各國事情, 獨立協會消息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었는데, 특히 獨立協會의 두 흐름인 西歐市民思想과 국내에서 성장한 進歩思想이 합쳐져 서로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향의 논설을 함께 수록한 것이 특징이었다. 본 회보의 특징은 첫째, 독립협회의 기관지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였고, 둘째, 대중적 취향을 위해 독립협회와 직결된 내용 이외에도 近代文名과 科學知識을 조명한 논설과 외보 등을 통해 계몽적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셋째, 문자사용에 있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타협을 시도하여 한문전용과 국한문혼용을 병행하여 폭넓은 독자 대상을 확보한 점이다.

- 特徵: 조사문화재 <大朝鮮獨立協會會報>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大朝鮮獨立協會會報>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헌자료

- [大朝鮮獨立協會] 編, 大朝鮮獨立協會會報 = 대조선독립협회회보 = The Chosun. 第1-18號. 新式鉛活字版本. [漢城] : [大朝鮮獨立協會], 1896-1897.
- 文化財廳 編, 近代文化遺産 新聞雜誌分野 目錄化調査研究 報告書. 大田 : 文化財廳 近代文化財課, 2010.

- 등록 가치 및 근거 기준
 - 조사문화재 <大朝鮮獨立協會會報>는 국내에서 발행된 雜誌의 嚆矢로 개화기의 學術·文藝·時事는 물론 國民啓蒙思想과 獨立思想의 鼓吹에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조사문화재 <大朝鮮獨立協會會報>의 保存狀態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酸化가 진행되고 있어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문화재 <大朝鮮獨立協會會報> 중에서 아직 인터넷웹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 빨리 DB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웹서비스가 완벽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종합의견 : 調査文化財 <大朝鮮獨立協會會報>는 國家文化財로 登錄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가치가 충분함

<○○고등학교 ○○○ 교사(근대서지)>

- 명 칭 : 대조선독립협회회보
-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 수 량 : 9책(창간호,4,6,7,8,10,13,16,17호)
- 규 격 : 국판
- 형 식 : 잡지
- 조성연대 : 1896-1897
- 현 상 : 『대조선독립협회회보』의 주요 소장처는 서울대학교(9책: 1,4,6,7,8,10,13,16,17호)에서 소장하고 있으나 창간호부터 18호까지 완질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 없다. 다만 서울대학교가 창간호를 비롯하여 가장 많은 호수를 소장하고 있으며 상태 또한 합본된 형태로 매우 양호하다. 전체의 영인본이 이미 간행되었으므로 미발굴인 희귀 호수는 없다.
- 내용 및 특징 :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1896년 11월30일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기간행물이다.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독립신문』과 함께 대중계몽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 매체의 근대문화사상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독립협회라는 일개 단체의 기관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 ② 이러한 대중적 취향으로 인해 계몽적 성격이 두드러지며 더불어 근대문명과 과학지식 등을 폭넓게 소개하였다.
 - ③ 한글전용의 『독립신문』과는 달리 국한문 혼용과 한글전용을 병행하여 표기 문자 사용에 있어 현실과 이상을 타협하였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가) 『친목회회보』 (나) 『대조선독립협회회보』
 - (가)와 (나)는 한국근대출판사상 효시가 되는 대표적인 정기간행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가)는 일본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가)에 비해 후대에 발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 근대문화 내지는 근대지식의 형성과정에 있어 일본 유학생의 위치는 부정할 없을 만큼 확고한 것이 사실이다. (가)를 발행한 주체인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는 재일유학생회의 시초로 이것이 1930년대까지 이어진 유학생회의 모태가 되었다. 그리고 근대 출판의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출판,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발행한 것이 결정적인 하자瑕疵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좀더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나)보다는 (가)가 오늘날의 잡지라는 개념에 훨씬 더 접근해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가 반월간으로 18호까지 발행되었으나 한 호가 대략

20쪽에 불과한 것에 반해, 계간이었던 (가)는 6호까지밖에 발행되지 못했으나 많게는 270쪽(2호의 경우) 또는 183쪽(5호의 경우) 등이었던 것으로 보아 (나)보다는 (가)가 안정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잔존부수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가)가 (나)보다는 희귀한 것이 틀림없다.

- (나)는 (가)보다 연대가 늦으며 형태상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가)에 비해 무엇보다도 자주적 배경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가 관비유학생들에 의해, 국내 또는 일본의 성금에 의해 발행되었다면, (나)는 외세에 의한 국권침탈과 지배층에 의한 민권유린의 현실 상황 속에서 자주국권과 자유민권의 개혁사상 아래 민족민주주의와 근대화운동을 부르짖은 독립협회의 기관지였다는 것이다. 정치사적 의미 부여에 있어서는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근대화에 있어 일본과의 과거사정리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우리의 중요한 정신문화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각 호당 약 일천 부 가량 발행된 것으로 알려진 (나)는 아직까지는 드물게나마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가끔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눈에 띄는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서울대중앙도서관의 소장본을 선정대상으로 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7. 유물 사진

가. 한성순보	나. 독립신문	다. 협성회회보	라. 매일신문
			
마. 대한매일신보	바. 독립신문(상해판)	사. 친목회 회보	아.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붙임 2>

신문잡지 유물 기관별 소장현황

연번	대 상	수량	발간현황	소장처	소장현황	비 고
1	한성순보 (漢城旬報)	1건	1883.10.31~1884.10.9 (36호)	서울대 중앙도서관	1~36호 (미소장: 6개, 1,2,7,34~36호)	
2	독립신문 (원제:독립신문)	1건	1896.4.7~1899.12.4 - 창간 (한글3면+영문1면) - 1897년 2개신문으로 분리 · 영문판, 한글판 - 1898.7.1부터 일간으로 발행 총 발행부수 - 한글판 776호, 영문판 442호	연세대 학술정보원	<한글>(476호) (1896년)1권 : 1호~116호 (1897년)2권 : 16호~154호 (미소장 : 1~15, 92호) (1898년)3권 : 1호~75호 (미소장 : 17~19,41,52~228) (1899년)4권 : 1호~190호 (미소장 : 17~31,191~278호) <영문판>(319호) (1896년)1권 : 미소장(1~116호) (1897년)2권 : 1호~154호 (1898년)3권 : 1호~151호 (1899년)4권 : 1호~14호 (미소장 : 15~21호)	
3	협성회회보 (원제:협성회회보)	1건	1898.1.1~1898.4.2 (14호)	연세대 학술정보원	1~14호 (미소장 : 13호)	
4	매일신문 (원제:매일신문)	1건	1898.4.9~1899.4.3 (278호)	연세대 학술정보원	1~278호	
5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원제:대한매일신보)	1건 3식	1904~1905.3 - 영문 4+한글 2 page 1905.8.11-2개 신문으로 분리 - 영문, 국한문 1907.5.23-3개 신문 - 영문,국한문,한글전용 총 발행부수 : 1461호 * 1910.8.30 매일신보로 고쳐 총독부의 기관지가 됨	국립중앙 도서관	영문+한글판(168호) - 1904.8.4(16호)~1904.12.31(137호) - 1905.1.5(1호)~1905.3.9(52호) 국한문 (551호) - 1905.8.11(1호)~ 1909.6.30(1134호)	
				국립고궁 박물관	국한문 (857호) - 1905.8.12(2호)~ 1910.8.28(1461호)	
				서울대 중앙도서관	국한문 (929호) - 1905.8.18(6호)~ 1910.2.9(1310호)	
6	독립신문 (상해판)	1건	1919.8.21~1926.11.30 (주간 또는 격일간) 독립(1919.8.21)→ 독립신문(1919.10.25) 총 발행부수 : 198호	연세대 학술정보원	1919.8.21(1호)~1925.11.11(189호) (미소장 : 12호) - 40,125,126,177~182,186~188	
7	친목회회보 (親睦會會報)	1건	1896.2~1898.6(6호)	연세대 학술정보원	1~6호	
8	대조선독립 협회회보 (大朝鮮獨立協會 會報)	1건	1896.11~1897.8(18호)	서울대 중앙도서관	1,4,6,7,8,10,13,16,17호 (미소장: 9호, 2,3,5,9,11,12,14,15,18)	
계		8건 10식				

3. 「애국가 유성기 음반」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독립기념관 소장 「애국가 유성기 음반」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독립기념관 소장 「애국가 유성기 음반」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조사, 등록 예고('12.8.9~9.8)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년도	소장자	소재지	비고
애국가 유성기 음반	1매	지름 25.5cm (10인치반)	셀락 (shellac)	1942년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3) 주요 추진경과

- '12. 2~6월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조사
 - 대상 : 독립기념관 소장 유성기 음반 216매
 - 조사내용 : 음반 재생 및 서지사항 정리
- '12. 7. 17 등록조사
 - 조사자 :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음악), ○○○ 문화재전문위원(음반), ○○○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전임연구원(음반)
- '12. 8. 2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 '애국가 유성기 음반'을 등록 예고기로 함
- 등록예고
 - 기간 : '12. 8. 9~9. 8(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등록조사('12.7.17)>

- 문화재전문위원 ○○○ 등 의견 : 불임 참조

<근대문화재과 의견>

- 광복 이전에 우리나라를 알린 '애국가' 유성기 음반으로 자료의 희귀성이나 애국가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애국가 유성기 음반」 문화재 등록
- 출석 10명, 찬성 10명

불임 : 애국가 유성기 음반 등록조사 보고서('12.7.17) 1부

애국가 유성기 음반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

1. 명 칭 : 애국가 유성기 음반

2.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3. 소유자 : 독립기념관

4. 대상물 개요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년도	형식	비고
애국가 유성기 음반	1매	지름 25.5cm (10인치반) 양면반	셀락 (shellac)	1942년	Standard Play(78rpm) 전기녹음	

5. 현상

- ‘애국가’ 유성기 음반은 1942년 미국 LA에서 제작된 음반으로, 광복 이전에 우리나라의 유성기음반은 모두 일본 레코드 회사에서 제작되었으므로 애국가의 취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이 음반은 미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광복 이전에 취입이 가능하였음
- 올드팬사인에 있어 부르던 구애국가가 알려져 있던 시절에 안익태의 새 애국가를 보급하기 위해 신·구 애국가를 동시에 녹음한 음반임
- 이 음반은 흥사단에서 수집한 미주지역의 독립운동 사료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하면서 그 중에 포함된 음반임

6. 등록가치(요약)

- 애국가(신·구 2편)의 음반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현재까지 발굴된 애국가의 음반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역사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애국가’ 음반은 녹음과 제작, 수집과 기증의 과정이 정확히 밝혀져 있고, 독립운동의 과정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자료라는 점,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점, 자료의 희귀성으로 가치가 충분함(○○○)
- ‘애국가’ 음반은 신·구 애국가가 동시에 녹음된 자료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애국가 녹음이라는 점과 일제강점기 해외의 독립운동과 결부된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음(○○○)

7. 조사자 의견

<문화재전문위원 ○○○(근대음악)>

- 현 황 : 애국가 유성기 음반(독립기념관 소장)
- 명 칭 : 애국가 유성기 음반(1942년 미국 대한인국민회 제작)
- 소유자 : 독립기념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 량 : 1매
- 규 격 : 지름 25.5cm(10인치 반)

- 재 질 : 셀락(shellac)
- 형 식 : Standard Play(78rpm), 전기 녹음
- 조성연대 : 1942년
- 현 상
 - 1942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한인회에서 제작한 유성기 음반 1매.
 - 앞면에 2편의 <애국가>와 뒷면에 <무궁화삼천리가> 총 3편의 곡이 수록.
 - 앞면에 수록된 곡
 - (구)<애국가> : 스코틀랜드 민요, 1·2절, 이용준 독창, 피아노 반주, 녹음시간 2분
 - (신)<애국가> : 안익태 작곡, 1·2절, 여성 한인청년연합승리창가대 합창, 녹음시간 1분55초
 - 뒷면에 수록된 곡
 - <무궁화삼천리가> : 작사 작곡 미상, 여성 한인청년연합승리창가대 합창, 녹음시간 5분
 - 두 조각으로 파손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 현재까지 발굴된 <애국가>의 음반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역사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앞면 첫 번째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의 선율에 “동해물과 백두산이…”의 가사 1절과 2절을 붙여 만든 <애국가>이다.
 - 앞면 두 번째 곡은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로, 1936년 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가 발행한 <大韓國愛國歌>(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의 최초의 악보집)라는 악보를 음반화 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가사가 <大韓國愛國歌>와 같이 2절(현행 애국가는 4절)까지만 있고, 또 일부 단어가 하나님(하느님), 바람이슬(바람서리) 등, <大韓國愛國歌>의 가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애국가>의 최초 버전으로 취입한 음반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뒷면에 수록된 <무궁화삼천리가>라는 곡은 알려진 바가 없다.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조국사랑 운동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 1942년 10월 2일자 『新韓民報』에 본 음반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 여기에 “애국가 옛곡조와 새곡조”라는 표현이 있는데, “옛곡조”란 앞면의 첫 번째 곡을 지칭하고, “새곡조”란 앞면의 두 번째 곡을 지칭한다. 이는 이미 현재의 <애국가>가 미주 지역에서는 1942년 이전부터 불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애국가>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음반은 다량 발매를 속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똑같은 음반이 발굴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음반은 몇 번 듣고 버리는 소모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음반이 발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1945년 이전 <애국가> 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기란 불가능 했다. 왜냐하면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는 국내에서 금지곡이었기 때문이다.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제작을 하였지만, 1945년 이전에 제작된 유일한 <애국가> 음반으로 추정된다.(이 음반 이외에는 1945년 이전 국내외를 막론하고 <애국가>가 음반으로 제작되었다는 기록이나 자료가 학계에 보고된 것이 없다)
- 문헌자료
 - 대한인국민회(편), 『大韓國愛國歌 Korean National Hymn 안익태 근작』, 미국 상황 : Korean National Association Sanfrancisco-Calf. U.S.A., 1936년경.
 - 『新韓民報』, 1942년 10월 2일자 기사.
 - 전정임, 『안익태』, 서울 : 시공사, 1998.
 - 朝鮮總督府警務局(편), 『朝鮮總督府 禁止單行本目錄—一九四一年一月版』(영인출판사 영인본, 1986)
- 기 타

- 흥사단에서 수집한 미주지역 독립운동 사료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것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현재의 <애국가>와 옛 <애국가>의 음반이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 현재까지 발굴된 <애국가>의 음반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역사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1945년 이전에 발매된 유일한 <애국가> 음반으로 추정된다.
 - 다량으로 발매된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음반이 발굴될 가능성의 거의 없다는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 현재의 <애국가>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종합의견 : 애국가(신·구 2편)의 음반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현재까지 발굴된 애국가의 음반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역사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량으로 발매된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이 발굴될 가능성의 거의 없다는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등록문화재의 자격과 가치가 충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음반)>

- 현 황 : 독립기념관 소장 애국가 유성기음반
- 명 칭 : '애국가' 유성기음반(1942년 미국 대한인국민회 제작)
- 소유자 : 독립기념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심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량 : 유성기음반 양면반 1매
- 규격 : 지름 25.5cm(10인치반)
- 재질 : 셀락(shellac)
- 형식 : Standard Play(78rpm), 전기 녹음.
- 조성연대 : 1942년
- '애국가' 유성기음반은 1942년 미국 대한인국민회에서 제작한 10인치(25cm) 유성기음반 1매이며, 음반의 기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기념관 소장번호 : 독립흥1972-25
 RADIO RECORDERS RR 8115 SOLO & NAT'L ANTHEM KOREAN
 CHORUS (78 R.P.M. Start Outside)
 RADIO RECORDERS RR 8116 "MOO GOONG WHA" KOREAN CHORUS
 (78 R.P.M. Start Outside)

A면: 구애국가(올드랭사인), 이용준 독창, 피아노반주(미상), 녹음시간 2분
 애국가, 안익태 작곡, 한인청년연합승리창가대 합창, 녹음시간 1분 55초
 B면: 무궁화삼천리가, 작곡자 미상, 한인청년연합승리창가대 합창, 녹음시간 5분

- '애국가' 유성기음반은 보존 상태는 2조각으로 파손되어 있지만(사진 참조), 음질이 비교적 양호하며, 현 상태로도 재생에는 지장이 없어 완전한 재생이 가능하다. 차후에 신기술로 재생하면 완벽한 재생이 가능하다. (*현재 음반을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컴퓨터로 이미지를 음향으로 변환·재생하는 기술이 외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접촉제로 붙이지 말고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애국가 유성기음반 레이블은 곡목이 인쇄가 아니라 타이핑되어 있다. 이로 보면, 특별히 주문된 사가반(私家盤)으로 제작된 것으로, 당시에 제작·발매된 수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독립기념관의 미주 지역 자료조사에서도 동일한 음반의 다른 소장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광복 이전에는 국내에 반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내에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

다. 현재로서 이 ‘애국가’ 유성기음반은 유일본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 ‘애국가’ 유성기음반은 1942년 미국 LA에서 제작되었다. 광복 이전에 우리나라의 유성기음반은 모두 일본 레코드 회사에서 제작되었으므로 애국가의 취입이 불가능하였다. 이 음반은 미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광복 이전에 취입이 가능하였으며, 신·구 애국가를 모두 담고 있고, 애국가의 첫 취입이란 점에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올드랭사인에 없어 부르던 구애국가가 알려져 있던 시절에 안익태의 새 애국가를 보급하기 위해 신·구 애국가를 동시에 녹음한 점에서 독립운동사 자료로서도 의미가 깊다.
- 이 유성기음반의 신·구 ‘애국가’(A면), ‘무궁화삼천리가’(B면)의 연주자와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A면 구애국가(Auld Lang Syne) : 이용준 독창, 피아노반주(미상)
애국가(안익태) : 나성한인연합승리창가대 합창, 피아노반주(미상)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우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이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B면 무궁화삼천리가

무궁화 삼천리 내 사랑아 왕양한 내 품에 안기라
왕양한 하늘에 □□□□ 영원히 노래를 부르리
(1행 미상)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내 사랑 언제나 만만세
(이하 미상)

- 이 애국가 유성기음반의 신·구 애국가의 노랫말은 동일하다. 이 노랫말에서는 ‘보우(保佑)’가 ‘보호(保護)’로, ‘서리’가 ‘이슬’로 불리고 있어 노랫말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B면의 ‘무궁화삼천리가’는 합창곡인데, 아직까지 작사·작곡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악보도 알려지지 않아서 정확한 노랫말을 채록할 수가 없지만, 무궁화를 예찬하는 노래이므로 애국가와 함께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 1945년 이후 국내에서 취입된 음반은 현재 2종류가 알려져 있다.

- Korea K No.1 A 愛國歌(新) 獨唱宋鎮赫 合唱藝術大學音樂部合唱團 指揮金聖泰 피아노崔聖斗 作曲安益泰
 - Korea K No.1 B 愛國歌(舊) 合唱藝術大學音樂部合唱團 指揮金聖泰 피아노崔聖斗 作曲安益泰
 - Korea S-1005 國民歌謠 愛國歌 作曲編曲指揮 安益泰 伴奏高麗레코드管絃樂團
 - Korea S-1006 國民歌謠 韓國幻想曲 作曲編曲指揮 安益泰 伴奏高麗레코드管絃樂團
- 위 음반은 광복 후 첫 애국가 취입이란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광복

이전의 녹음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며, 음반의 희귀성이나 음반서지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논하기는 어렵다.

○ 문헌자료

- ‘애국가’ 유성기음반의 발매와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 『新韓民報』 1942. 10. 2. 記事

★류성기 진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의 세 가지 인국가를 류성기 판에 너은 것은 일즉 이 보도 한 바 콜로라도 산중에 있는 한 농부는 몇 十년 동안 한국 인국가를 드러 보지 못하다가 이 류성기의 인국가를 듣고 넘어 깎아서 자기가 평일에 저축한 돈을 스거니여 세여 보니 七十五元 三十三전이오 그 돈을 다가져 직미 한 쪽 련합회 집행부로 보니며 말하기를 『갑진 노리는 한 곡조에 천금이라면 무궁화 세 곡조에 七十五元 三十三전은 미우 째 갑시올시다』 하얏다

『한국 인국가 류성기판 사시오』

인국가의 시곡조와 넷곡조

무궁화삼천리가

[이상 세가지에 갑은 一원]

이번 八二九 현곡식 거형 시에 선전문을 류성기판에 너을 썬에 라성 한인청년 련합승리창가대의 합창 인국가의 시 곡조와 쇼년 성악가 리용준 군의 독창 인국가의 넷 곡조와 련합승리창가대의 합창 무궁화삼천리가 이상 세 가지 노리를 한 판 압뒤에 너어서 건사하기에 경편 하고 갑은 다만 一원이오니 누구시든지 사시기를 원하시는 이는 기별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인국가 시 곡조는 류성기를 트러 노코 자습하기에 가장 필요합니다

갑은 선금을 너야 하고 우비는 사시는 이가 담담히야 합니다

국민회 중앙 상무부 근계

- 위의 두 기사를 통해 ‘애국가’ 유성기음반의 정확한 발매시기를 알 수 있고, 아울러 정확한 연주자를 밝힐 수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저렴한 가격(1달러)으로 애국가를 널리 보급하고, 유성기를 틀어놓고 노래를 자습할 목적으로 음반을 발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신문은 콜로라도 산중에서 농사를 짓던 재미교포 한 분이 이 음반을 듣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신이 평소 저축한 75달러 33센트를 음반 보급의 성금으로 몽땅 기부한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재미 교포에게 망향의 설움을 달래주던 이 ‘애국가’ 음반의 발매가 얼마나 감격스런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 기 타

- 이 음반은 흥사단에서 수집한 미주지역의 독립운동 사료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하면서 그 중에 포함된 음반이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애국가 유성기음반은 녹음 경위와 제작, 수집과 기증의 과정이 정확히 밝혀져 있고, 독립운동의 과정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 이 음반은 최초의 신·구 애국가 녹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양 민요 올드랭사인(Auld Lang Syne)에 얹어 구전되던 애국가창가가 새로운 안익태 애국가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이 음반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제강점기에서는 취입이 불가능했던 국내가 아니라 해외동포들의 자각과 성금으로 제작 보급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다.

- 애국가 유성기음반은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자료이다. 애국가 노랫말이 한두 개인의 창작이란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민족의 집단적인 창작과 애창을 통해서 가꾸어져 왔다. 개화기 수많은 애국가 창가 가운데 우리 겨레의 사랑과 애창 속에서 가꾸어 온 만큼 ‘애국가’에는 근대 사회 민족의 수난과 역경을 헤쳐 온 역사가 담겨있다. 이 ‘애국가’ 유성기음반에는 외국의 가요를 차용해서 부르던 번안가요에서부터 새로운 곡을 만들고 가꾸어 가던 민족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 애국가 유성기음반은 광복 이전 독립 투쟁기에 해외에서 어렵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으며, 현재 유일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희귀성으로 볼 때에도 달리 비교할 대상이 없는 중요한 사료이다.
- 이상의 여러 사항으로 볼 때 이 애국가 유성기음반은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종합의견 : ‘애국가’ 음반은 녹음과 제작, 수집과 기증의 과정이 정확히 밝혀져 있고, 독립운동의 과정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자료라는 점, 최초의 신·구 애국가 녹음이란 점,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점, 자료의 희귀성 등으로 볼 때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전임연구원 ○○○(음반)>

- 현 황 : 독립기념관 소장 애국가 유성기음반
- 명 칭 : ‘애국가’ 유성기음반(1942년 미국 로스엔젤리스 한인회 제작)
- 소유자 : 독립기념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심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 량 : 유성기음반 양면반 1매
- 규 격 : 지름 25.5cm(10인치반)
- 재 질 : 셀락(shellac)
- 형 식 : Standard Play(78rpm), 전기 녹음
- 조성연대 : 1942년
- 현 상
 - ‘애국가’ 유성기음반은 1942년 미국 로스엔젤리스 한인회에서 제작한 10인치(25cm) 유성기음반 1매이며, 음반의 기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기념관 소장번호 : 독립홍1972-25
 RADIO RECORDERS RR 8115 SOLO & NAT'L ANTHEM KOREAN CHORUS (78 R.P.M. Start Outside)
 RADIO RECORDERS RR 8116 "MOO GOONG WHA" KOREAN CHORUS (78 R.P.M. Start Outside)
 - A면: 구애국가(올드랭사인), 이용준 독창, 피아노반주(미상), 녹음시간 2분
 애국가, 안익태 작곡, 한인청년연합승리창가대 합창, 녹음시간 1분 55초
 - B면: 무궁화삼천리가, 작곡자 미상, 한인청년연합승리창가대 합창, 녹음시간 5분
- 등록 가치 및 근거 기준
 - 본 음반은 한국독립운동사와 해외이민사 및 애국가 발달사 등 여러 국면과 연관되어 한국의 역사, 문화면에서 상징성이 클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20세기 전반기의 한국 내외 정세의 격동성을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본 음반은 한국의 애국가를 담은 최초의 녹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고국의 독립을 기원하며 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독립운동사의 영역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각기 선율이 다른 신, 구 애국가가 동시에 녹음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국 애국가의 발달사에서 실증적인 사

료로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음반이라는 유형의 물질과 소리라는 무형의 대상을 아우른 ‘음반’이라는 특수 자료로서 등록문화재라는 개념과 관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음반 자체는 유형의 역사물로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담긴 녹음은 디지털로 복제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종합의견 : 본 ‘애국가’ 음반은 신·구 애국가가 동시에 녹음된 자료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애국가 녹음이라는 점과 일제강점기 해외의 독립운동과 결부된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점에서 근대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8. 유물 사진

	
<p>애국가(A면)</p>	<p>무궁화삼천리가(B면)</p>
	
<p>애국가(A면)_서지사항 확대</p>	<p>무궁화삼천리가(B면)_서지사항 확대</p>

4. 항일독립운동 유공자 묘소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경기도 소재 「항일독립운동 유공자 묘소」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검토('12.8.2)를 거쳐 등록예고('12.8.13~9.11)된 「항일독립운동 유공자 묘소」에 대하여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서울 손병희 묘소 등 7건

연번	명칭	소재지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리자	비고
1	서울 손병희 묘소	서울 강북구 우이동 254	1,538	천도교유지재단	천도교유지재단	
2	서울 신익희 묘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 74-3	1,401	신하균	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3	서울 김창숙 묘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 127-4	728	국유(산림청)	(사)십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4	서울 이시영 묘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 127-1	1,394	국유(산림청)	이종문	
5	서울 이준 묘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 127-2/ 산127-15	1,917	국유(산림청)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6	구리 한용운 묘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84-2	226	공유(서울시)	서울 망우공원묘지 관리사무소	
7	서울 안창호 묘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9-9 도산공원	1,688	공유(서울시)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3)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2.8.13~9.11(30일간)
- 제출의견 : 1건
 - 『서울 한용운 묘소』의 소재지 정보 수정과 문화재 명칭 변경 요청(경기도 구리시청, 2012.8.20)

(4) 심의 내용 : 문화재 등록 여부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7.5~6)>

-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등 3명 : 불임참조

연번	명 칭	조사자 의견			비 고
		○○○	○○○	○○○	
1	서울 손병희 묘소	○	○	○	
2	서울 신익희 묘소	○	○	○	
3	서울 김창숙 묘소	○	○	○	
4	서울 이시영 묘소	○	○	○	
5	서울 이준 묘소	○	○	○	
6	구리 한용운 묘소	○	○	○	
7	서울 안창호 묘소	○	○	○	

<근대문화재과 의견>

-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서울 손병희 묘소」 등 7건 문화재 등록
- 출석 10명, 찬성 10명

불임 :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공자 묘소 등록조사보고서('12.7.5~6) 1부.

<붙임>

서울 손병희 묘소 조사보고서('12.07.06)

1. 명 칭 : 서울 손병희 묘소
2. 용 도 : 묘소
3.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우이동 254
4. 소유자 및 관리자
 - 토지 소유자 : 천도교유지재단
 - 소유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5. 등록면적 : 1,538㎡
 - 봉분(호석), 담장, 곡장, 상석, 향로석, 망주석 2기, 비석 2기 일대
6. 손병희(孫秉熙, 1861.04.08~1922.05.19)
 - 충북 청원 출생
 - 한말 천도교의 지도자, 독립운동가, 천도교 제3대 교조를 지냄. 민족대표 33인으로, 3·1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었으며 교육·문화사업에 힘씀
 - 손병희의 생애
 - 1882년 22세 때 동학에 입교
 -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전봉준과 호남·호서를 석권하고 관군을 격파하였으나,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
 - 1897년 최시형의 뒤를 이어 교세 확장에 힘씀
 - 1901년 일본을 경유, 상하이로 망명, 이상헌(李祥憲)이라는 가명을 사용(1903년 귀국)
 - 진보회 조직, 신생활운동 전개
 - 1906년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 제3대 교조에 취임, 출판사 보성사 창립
 - 1908년 교조 자리를 인계 후 우이동에 은거
 -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3·1운동 주도
 - 1922년 2년간 옥고 후 서울 상춘원에서 요양 중 병사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7.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8. 조사자 의견('12.7.5~6)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묘소 봉분 및 잔디가 잘 관리되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주변 환경 정비도

잘되어 있음

- 주변 수림 및 소나무림이 잘 보존되어 경관이 양호하고 조망이 매우 뛰어난 곳임
-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한 분으로 등록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문화재위원 ○○○(근대사)>

1) 보존여건 및 환경

- 별달리 손덜 곳이 없을 정도로 보존상태 양호.
- 바로 옆에 있는 천도교 간부를 양성하던 봉황각과 함께 천도교측에서 관리.
- 묘소를 둘러싼 주변 공간이 매우 넓고 조경이 잘 되어 있음.

2) 등록가치

- 손병희는 한국근대사에서 제3대 교조로 천도교를 이끌었던 종교지도자, 또 민족대표 33인의 실질적 대표로 3·1독립선언을 주도하였던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란 점에서, 그의 묘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참고사항

- 충청북도에서는 그의 고향인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에 ‘손병희선생생가’를 복원하고 ‘의암기념관’을 건립하여, 손병희에 대한 추모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활용가치

- 나라사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자원
-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자원
- 봉황각과 함께 3·1운동관련 역사답사코스, 역사교육, 역사체험공간으로 활용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의암 손병희 묘’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1) 주요 특징(보존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 의암 손병희 묘소는 우이동계곡의 초입부인 서울 강북구 우이동 254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의 가장 우측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담장을 경계로 의암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의 신앙생활 및 천도교 지도자들에게 항일독립운동을 이끌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한 봉황각(서울유형문화재 제2호)이 입지하고 있으며, 전면에 1960년대 말 천도교수유회관(종로구 경운동 88 소재)을 이 건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서울 의암 손병희 묘소는 봉황각과 별도의 담장으로 경계짓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존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다.

2) 등록가치의견

- 의암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동학) 지도자이자 1919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3·1 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국가

보훈차원에서 인물로서 선생의 공훈을 기림과 동시에, 근대시기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항일운동 관련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둘레길 안내판과 비교하여 “**선생 묘소”로 하거나 일괄 “선생”을 삭제하여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함. “이준열사 묘소”/“이준 묘소” 비교 필요.

서울 신익희 묘소 조사보고서('12.07.05)

1. 명 칭 : 서울 신익희 묘소
2. 용 도 : 묘소
3.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74-3
4. 소유자 및 관리자
 - 토지 소유자 : 신하균, 산림청
 - 소유자 주소 : 신하균/서울 강북구 수유동 ○○, 산림청/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관리자 : 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 관리자 주소 : 서울 종로구 효자동 164-2
5. 등록면적 : 1,401㎡
 - 봉분(호석), 곡장, 혼유석, 망주석 2기, 장명등 1기, 비석 1기, 석인 2기, 동물상 2기 일대
6. 신익희(申翼熙, 1892.06.09~1956.05.05)
 - 출생 : 경기 광주
 - 호는 해공(海公),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정치가, 임시정부의 외무부장, 내무부장을 지냈고, 8·15 광복 후에는 제헌 국회의장, 제2대 국회의장에 당선,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거 유세 중 병사
 - 신익희의 생애
 - 1918~1919년 독립선언문 발표 논의, 3·1운동 참여
 -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기초의원 이후 임시정부 법무총장, 임시 의정원 부의장 등 역임
 - 1935년 민족혁명당 창당에 참가
 -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 결성, 독립운동계의 통일적인 대일전선 형성
 - 1943년 임시정부 외교연구위원회 부회장 역임
 - 1956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대통령후보로 지명, 유세 중 병사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7.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8. 조사자 의견(2012.7.5~6)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묘 봉은 잡초로 덮혀 있고, 잔디는 거의 고사한 상태로 주변 관리가 소홀 하였다. 장래 묘소의 잔디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함
 - 묘봉 주변에 실유카, 개나리, 철쭉, 땅향등 무질서하게 배식되어 있어 묘소경관에 적합한 수종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독립운동가, 정치가 및 8.15 광복 후 제헌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으로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문화재위원 ○○○(근대사)>

- 1) 보존여건 및 환경
 - 묘소 주변의 조경이 잘 되어 있음
- 2) 등록가치
 - 신익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수립 당시 헌법을 기초하고 내무부장 등을 맡아 활동한 독립운동가, 또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회의장과 대통령에 출마하였던 정치가로 잘 알려진 인물로, 그의 묘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 활용가치
 - 나라사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자원
 -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자원
- 3) 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공 신익희 묘’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1) 주요 특징(보존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 해공 신익희 묘소는 통일교육원 및 아카데미 하우스 인근 강북구 수유동 산74-3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가운데 가장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묘소 진입로는 잘 정비되어 있으며, 진입로 우측에 민가가 있지만 묘소경관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등록가치 의견
 - 해공 신익희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 정치인이다.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초대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후 국회의장 이승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자 국회의장직을 승계하였다.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상하이 임시정부의 창설에 참여하였다. 국가보훈차원에서 인물로서 선생의 공훈을 기림과 동시에, 근대시기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항일운동 관련 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둘레길 안내판과 비교하여 “**선생 묘소”로 하거나 일괄 “선생”을 삭제하여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함. “이준열사 묘소”/“이준 묘소” 비교 필요

서울 김창숙 묘소 조사보고서('12.07.05)

1. 명 칭 : 서울 김창숙 묘소
2. 용 도 : 묘소
3.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 127-4
4. 소유자 및 관리자
 - 토지 소유자 : 산림청
 - 소유자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관리자 :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 관리자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4-3번지 심산기념관 3층
5. 등록면적 : 728㎡
 - 봉분(호석),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2기, 비석 2기 일대
6. 김창숙(金昌淑, 1879.07.10~1962.05.10)
 - 출생지 : 경북 성주
 - 독립운동가, 교육자, 을사5적 처형요구, 광복 후 이승만정권에 항거, 부정선거 규탄, 성균관대학교 창립, 초대학장 역임
 - 김창숙의 생애
 - 1905년 『을사조약』 체결반대 매국 5적 성토 상소, 옥고
 -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을 호소하는 '파리장서'활동 주도
 - 1925년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
 - 1946년 전국 유림 결속, 유림재단 정리 후 유도회 조직
 - 1946년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 설립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7.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8. 조사자 의견('12.7.5~6)
 -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묘소 주변 조경은 향나무, 회양목 등 상록수가 주종으로 식재되어 있어 어둡고 자연성이 떨어지므로 계절감을 주는 밝은 낙엽수를 보완하여 묘소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독립운동가 교육자(성균관대 초대 학장역임), 정치인으로써 활약한 분으로 등록 문화재로써 가치 있다고 생각됨
 - <문화재위원 ○○○(근대사)>
 - 1) 보존여건 및 환경
 - 보존 및 관리 상태 양호
 - 주변 조경이 잘 되어 있음

2) 등록가치

- 김창숙은 3·1운동 발발 직후 유림계를 대표하여 파리지사를 갖고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또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한 제2차유림단사건 등에 관계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해방 후 친일유림들을 청산하여 유학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성균관대학을 설립한 종교지도자이자 교육가로 활동한 인물로, 그의 묘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활용가치

- 나라사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자원
-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자원
- 지조와 절개를 지킨 ‘조선의 선비’를 기리는 자원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심산 김창숙 묘’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1) 주요 특징(보존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 심산 김창숙 묘소는 통일교육원 및 아카데미 하우스 초입부 인근 강북구 수유동 산 127-4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등산로에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애국선열 안내판을 따라 등산로에서 분기하여 묘소 진입계단을 통해 묘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등산로에서는 직접 보이지는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 등록가치 의견

- 심산 김창숙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로서 단재 신채호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과 함께 ‘삼절’로 평가받는 조국 통일, 반독재 투쟁, 민족사학 육성 등에 앞장선 ‘유림출신 민족운동가’이다. 국가보훈차원에서 인물로서 선생의 공훈을 기림과 동시에, 근대시기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항일운동 관련 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둘레길 안내판과 비교하여 “**선생 묘소”로 하거나 일괄 “선생”을 삭제하여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함. “이준열사 묘소”/“이준 묘소” 비교 필요.

서울 이시영 묘소 조사보고서('12.07.05)

1. 명 칭 : 서울 이시영 묘소
2. 용 도 : 묘소
3.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127-1
4. 소유자 및 관리자
 - 토지 소유자 : 산림청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관리자 : 이종문
 - 관리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86-1 두산 위브(아)107-601
5. 등록면적 : 1,394㎡
 - 봉분(호석), 곡장,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1기, 장명등 1기, 석인 2기 일대
6. 이시영(李始榮, 1869.12.03~1953.04.17)
 - 출생지 : 서울 저동
 - 정치가·독립운동가, 경학사와 신홍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 임시정부 법무·재무 총장을 역임, 광복 후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승만대통령 통치에 반대하여 사직
 - 이시영의 생애
 - 1911년 신홍강습소와 경학사 설립, 독립군 양성
 - 1919년 임시정부 법무총장, 재무총장
 - 1930년 학국독립당 창당
 - 1933년~1945년 임시정부 국무위원, 재무부장
 - 1947년 성재학원 신홍대학(현 경희대) 설립
 -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당선
 - 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서훈
 - 1953년 피난처인 부산 동래에서 서거
7.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8. 조사자 의견(2012.7.5~6)
 -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주변 숲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만연되어 참나무 고사목 피해가 심했으나, 소나무림과 다른 잡목림은 잘 보존되어 주변자연경관이 양호하였음
 - 묘소주변 잡초 및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 독립운동가, 정치가 및 임시정부 법무, 재무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문화재위원 ○○○(근대사)>

1) 보존여건 및 환경

- 보존 및 관리 상태 양호

2) 등록가치

- 이시영은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6형제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적 인물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며,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한 인물로, 그의 묘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활용가치

- 나라사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자원
-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자원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성재 이시영 묘’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1) 주요 특징(보존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 성재 이시영 묘소는 통일교육원 및 아카데미 하우스 초입부 인근 강북구 수유동 산127-1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등산로에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애국선열 안내판을 따라 등산로에서 분기하여 묘소 진입계단을 통해 묘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진입 초입부에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점 등이 위치하여 진입로에 경관적 위해요인이 되지만, 묘소경관에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강북구에서 개최한 다산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강북구청장이 직접 강북구 독립유공자 묘소 순례 및 안내를 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등록가치 의견

- 성재 이시영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며, 임시정부 범무, 재무총장을 역임하고 광복 후 초대 부통령을 지낸 애국선열이다. 국가보훈차원에서 인물로서 선생의 공훈을 기림과 동시에, 근대시기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항일운동 관련 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둘레길 안내판과 비교하여 “**선생 묘소”로 하거나 일괄 “선생”을 삭제하거나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함. “이준열사 묘소”/“이준 묘소” 비교 필요

서울 이준 묘소 조사보고서('12.07.05)

1. 명 칭 : 서울 이준 묘소
2. 용 도 : 묘소
3.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127-2/ 산127-15
4. 소유자 및 관리자
 - 토지 소유자 : 산림청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관리자 :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 관리자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 786-4
5. 등록면적 : 1,917m²
 - 묘, 묘비, 동상, 기념탑 일대
6. 이준(李儁, 1858.12.18~1907.07.14)
 - 출생지 : 함경북도 북청
 - 순국선열·애국계몽운동가,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활동, 1907년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행위를 세계에 호소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측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순국
 - 이준의 생애
 - 1898년 독립협회 조직
 - 1902년 개혁당 조직 정치개혁운동 전개
 - 1904년 보안회 조직, 일본인의 황무지개척권 반대
 - 1904년~1906년 국민교육회, 한북흥학회, 헌정연구회 조직
 - 1905년 『을사조약』 폐기 상소 운동 중 일경에 체포
 - 1907년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에 고종의 밀사로 참석, 순국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 1963년 헤이그에서 유해봉환 국민장거행, 수유리 묘소에 안장(10월4일)
7.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8. 조사자 의견('12.7.5~6)
 -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묘, 묘비, 동상 기념탑등은 석조물로 규모 있게 잘 조성되어 있으나 주변 조경으로 회양목, 옥향 등 정형적인 상록수로만 식재되어 있으므로 주변자연경관 및 묘소에 적합한 조경배식 계획이 필요함
 -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에 고종의 필사로 참석해 순국하신 분으로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문화재위원 ○○○(근대사)>
 - 1) 보존여건 및 환경
 -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던 유해를 봉환하여 이장한 것(1963)
 - 묘역이 매우 넓고 보존상태가 양호

○ 묘역이 잘 정비되어 있고 주변의 조경이 잘 되어 있음

2) 등록가치

○ 이준은 대한제국의 법관양성소 출신으로 고종의 명을 받아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어 일본의 침략을 세계에 호소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지에서 순국한 인물로, 그의 묘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활용가치

- 나라사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자원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일성 이준 묘’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1) 주요 특징(보존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 일성 이준 묘소는 통일교육원 및 아카데미 하우스 인근 강북구 수유동 산 127-2/ 산127-15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등산로에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애국선열 안내판을 따라 묘소 진입로를 통해 묘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진입 초입부에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점 등이 위치하여 진입로에 경관적 위해요인이 되지만 묘소주변에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진입로에 조형물(자유수호상)을 설치하였고, 묘소형식도 부조 및 조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2) 등록가치 의견

○ 일성 이준 선생은 1907년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행위를 세계에 호소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측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순국하였다. 국가보훈차원에서 인물로서 선생의 공훈을 기림과 동시에, 근대시기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항일운동 관련 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이준열사 묘소”는 “이준 묘소”로 하여 둘레길 안내판과 비교하여 “**선생 묘소”를 일괄 “선생”을 삭제하여 통일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서울 한용운 묘소 조사보고서('12.07.06)

1. 명 칭 : 서울 한용운 묘소
2. 용 도 : 묘소
3.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 84-2
4. 소유자 및 관리자
 - 토지 소유자 : 서울시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관리자 : 서울 망우공원묘지 관리사무소, 한영숙(유족)
 - 관리자 주소 :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 57,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601-1
5. 등록면적 : 추후 측량
 - 봉분 2기, 곡장, 상석, 향로석, 비석1기 주변
6. 한용운(1878.08.29~1944.06.29)
 - 출생지 : 충남 홍성
 - 독립운동가 겸 승려, 시인. 일제시대 때 시집 《님의 침묵(沈默)》을 출판하여 저항 문학에 앞장섰고,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 종래의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 주요 저서로 《조선불교유신론》
 - 한용운의 생애
 - 1908년 전국 사찰대표 52인의 한 사람으로 원흥사(元興寺)에서 원종종무원(圓宗宗務院)을 설립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명을 시찰했다.
 - 1918년 서울 계동(桂洞)에서 월간지 《유심(惟心)》을 발간
 - 1926년 시집 《님의 침묵(沈默)》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섬
 -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개칭,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
 - 1937년 불교관계 항일단체인 만당사건의 배우자로 검거되어 투옥
 - 1944년 별세, 묘지 조성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이 추서
 - 1998년 연보비 제작
7.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8. 조사자 의견('12.7.5~6)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묘소는 서울 망우공원 내에 있어서 망우공원 묘지관리사무소 및 유족이 잘 관리하여 보존관리 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임
 - 독립운동가 겸 승려, 시인으로써 활약한 분으로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문화재위원 ○○○(근대사)>

1) 보존여건 및 환경

- 보존상태 양호

2) 등록가치

- 한용운은 민족대표 33인으로 3·1독립선언을 주도하였던 독립운동가이자, 승려로서 《불교유신론》을 제창하여 불교의 개혁을 주창한 불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님의 침묵》으로 저항 문학을 선도하였던 인물로, 그의 묘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만해 한용운 묘’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1) 주요 특징(보존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 만해 한용운 묘소는 망우리 공원 즉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에 정비된 순환도로가 산책로로 제공되고 있다. 묘소입구에 “만해 한용운 선생의 묘 입구”라는 안내비와 한용운 시비가 있고, 산책로로부터 10여m 높은 곳에 만해 한용운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애국선열 안내판을 따라 묘소 진입로를 통해 묘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 한강이 중간중간 내려보이는 양호한 조망을 형성하고 있다.

2) 등록가치 의견

- 만해 한용운 선생은 승려, 시인으로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이며, 시집 《님의 침묵(沈默)》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선 독립운동가이다. 국가보훈차원에서 인물로서 선생의 공훈을 기림과 동시에, 근대시기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항일운동 관련 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둘레길 안내판과 비교하여 “**선생 묘소”로 하거나 일괄 “선생”을 삭제하여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함. “이준열사 묘소”/“이준 묘소” 비교 필요.

서울 안창호 묘소 조사보고서('12.07.06)

1. 명 칭 : 서울 안창호 묘소
2. 용 도 : 묘소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9-9 도산공원
4. 소유자 및 관리자
 - 토지 소유자 : 서울시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관리자 :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 관리자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9-9 도산공원 내 도산안창호기념관
5. 등록면적 : 추후 측량
 - 봉분(호석), 혼유석, 상석, 향로석, 비석1기 주변
6. 안창호(1878.11.09~1938.03.10)
 - 출생지 :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도룡섬
 - 한말의 독립운동가·사상가. 독립협회(獨立協會), 신민회(新民會), 흥사단(興士團) 등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활동
 - 안창호의 생애
 - 1898년 독립협회 가입, 관서지부 창립 발기, 평양 쾌재정에서 연설
 - 1899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점진학교 설립, 황무지 개간 사업
 - 1905년 공립협회 창립, 초대 회장 피선, 《공립신보》 발간
 - 1907년 동경을 거쳐 귀국,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 조직
 - 1913년 흥사단 창립
 - 1919년 3·1운동,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및 국무총리 서리 취임
 - 1924년 만주지역 답사, 남경에 동명학원 설립
 - 1930년 상해에서 한국독립당 결성
 - 1931년 윤봉길 의거로 피체, 국내 압송 4년형 받고, 서대문형무소와 대전형무소에서 복역
 - 1938년 경성제독대학 부속병원에서 서거, 망우리 공동묘지 안장
 - 1962년 건국 공로훈장 수령
 - 1973년 도산공원 유해 이장(부인 이혜련 여사와 합장)
7.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8. 조사자 의견('12.7.5~6)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1973년 강남구청에 도산공원으로 조성하여 잘 보존 되고 있으며, (사)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 도산 안창호 기념관리와 함께 교육적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었음
 - 묘소 및 묘소주변 조경으로 배롱나무, 단풍나무, 목련 등 경관계획도 잘 되어 있었으며, 정비된 주변공원과 함께 보존 관리가 양호하였음

- 독립운동가, 사상가 및 독립협회, 신민회 홍사단 등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으로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문화재위원 ○○○(근대사)>

- 1) 보존여건 및 환경
 - 묘역이 도산공원 내에 있고 보존상태 양호
 - 도산공원과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에서 관리
- 2) 등록가치
 - 안창호는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이래 해방 때까지 국내·미주·연해주·중국 등지에서 공립협회·홍사단 등 많은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인물이며, 특히 수립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독립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그의 묘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활용가치
 - 나라사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국민교육의 자원
 -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자원
 - 홍사단의 정신을 발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자원
-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도산 안창호 묘’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1) 주요 특징(보존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 안창호 묘소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던 도산선생의 묘를 1973년 11월 10일 현재의 도산공원으로 이장하였으며, 전면 대로를 도산대로로 명명하는 등 강남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1998년 11월 9일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는 도산안창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도산선생의 정신을 펼쳐나가고 있다.
- 2) 등록가치 의견
 -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이자 민족계몽운동가로서, 1907년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하여 구국 운동을 전개하였고, 1909년에 “청년학우회”를 조직하여 청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13년에 “홍사단”을 조직하여 민족계몽운동과 국권회복 활동을 펼치는 등 독립운동가이다. 국가보훈차원에서 인물로서 선생의 공훈을 기림과 동시에, 근대시기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항일운동 관련 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3)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둘레길 안내판과 비교하여 “**선생 묘소”로 하거나 일괄 “선생”을 삭제하거나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함. “이준열사 묘소”/“이준 묘소” 비교 필요

5.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 교구청」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남 목포시 소재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 교구청」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검토('12.8.2)를 거쳐 등록예고('12.8.20~9.19)된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 교구청」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 교구청」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산정동 74-1
 - 소유자/관리자 :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준공년도 : 1937년경
- (3) 건축물개요
 - 설 계 자 : 미상
 - 건축구조 : 벽돌조, 콘크리트슬라브
 - 대지면적 : 6,520m²
 - 측량면적 : 365m²
 - 연 면 적 : 1,234.34m²
 - 수량 및 층수 : 1동, 지하1/지상3층
- (4)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2.8.20~9.19(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심의 내용 : 문화재 등록 여부 심의

라. 추진경과

- '08.12.29. 문화재 등록 신청

- '10.3.4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0.4.1 문화재위원회 검토
 - 보류(활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재검토)
- '12.1.2 문화재 활용계획 접수
- '12.4.5 문화재위원회 검토
 - 부결(건축 원형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 '12.7.12 소유자 재검토 요청
 - 원형보존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문화재 등록 재검토 요청
- '12.8.2 제4차 문화재위원회 검토
- '12.8.20~9.19 문화재 등록 예고

마. 활용계획(안)

- 1층 : 교구 역사관, 역대 교구장 약사 및 교구장 문장 소재, 가톨릭선교장, 휴게실
- 2층 : 순교사제 기념관(안 브레난 몬시뇰 교구장, 토마신부, 오 요한신부), 교회 미술(성화)전시관, 목상(기도)공간
- 3층 : 사제유품실, 제구 전시관(미사와 기타 전례시 사용하는 성구)
- 지하층 : 운영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창고, 기계실

바.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0.3.4)>

-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 광주대교구의 교구청 건물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교구청 자체의 관리가 요구되며, 그 보존 의도가 주요하다고 판단됨
 - 광주 교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목포시 당국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 정립을 하길 기대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판단을 유보함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간략화된 이태리 팔라조 형식의 건물로 벽돌의 분위기도 좋고 수녀원의 독특한 분위기가 남아있어 보존의 가치는 있음
 - 현재의 성지화 계획은 본 건물을 지나치게 왜소하게 보일 수 있어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현재 목포시와 협조하여 교구청 주변 일대를 천주교 성지로 조성 중이며, 계획안 조감도를 보면 역사성, 장소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근대건축전문가 등 관련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필요함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7.19)>

- 문화재위원 ○○○(단국대학교 교수, 건축사)
 - 본 건물은 교구청의 사무실과 수녀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외형은 물론이고 내부 칸벽도 그다지 변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인하지 못한 지붕골조를 제외하고는 구조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초기역사와 성 콜롬반외방전교회의 의료 선교의 흔적이 배어 있는 장소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건축사)
 - 1층은 공식적인 대외 접견 및 업무용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천정이 높고 천정의 구성형식 등이 잘 남아있어 보존의 가치가 있으며, 특히 행잉도어 및 창호의 형태가 양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있음
 -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목가구조의 퇴락, 외벽 및 천정 누수 및 탈락 등 전체적인 수리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건축물 차원에서 건축물 수리보수를 위한 교구차원에서 자구노력을 전체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유지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건축사)
 - 역사적인 중요성과 건축(양식)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본 건물의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보존의 측면에서 본 건물의 공간활용계획은 현재 산정동성당의 목포선교 100주년기념관(한국 레지오 마리아기념관)의 전시물과 중복되는 듯 하여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근대문화재과 의견>

- 예고 내용대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문화재 등록
 -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명칭 부여
- 출석 10명, 찬성 10명

붙임 :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 교구청」 등록조사보고서('12.07.19) 1부.

<붙임>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 교구청 조사보고서('12.07.19)

1. 명 칭 : (현)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 교구청 (구)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 교구청
2. 용 도 : (현) 미사용 (원) 교구청
3. 소재지 : 목포시 산정동 97-7 외 4필지(97-8,74-1,74-13,74-15)
4. 소유자 : (현)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원)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현소유자 주소 : 광주 북구 임동 5-32
5. 건축물 개요
 - 설계자 : 미상
 - 시공자 : 미상
 - 건축구조 : 벽돌조, 콘크리트슬라브
 - 준공일 : 1937년
 - 대지면적 : 6,520㎡
 - 건축면적 : 365㎡
 - 연면적 : 1,234.34㎡
 - 층수, 높이 : 지하1층/ 지상3층
6. 구조 및 양식
 - 적벽돌조+경사지붕
 - 지하층은 석조, 지상층은 적벽돌조로, 내부바닥은 목조마루로 구축하였으며 외벽에 서는 층간 코니스와 창문주위 상하부 장식에 의해 수평성을 강조
 - 둥근 아치가 독특한 전면 입구의 포치가 특징적이며 이태리 팔라조 형식의 건물로 근대적 특징이 나타남
7. 연혁
 - 1937.4~1943.2 천주교 광주지목구 설정하여 최초의 교구청으로 건축하여 사용
 - 1945.9~1956.2 교구청으로 재사용
 - 1956~1967년 성 골롬반 외방 선교수녀회 건물로 활용
 - 1967~1990년 성신간호전문대학으로 활용
 - 1990~2002년 샬르트 성바로 수녀회 건물로 활용
8. 수리기록
 - 전체 수리기록은 남아있지 않음
9. 문화재보존여건
 - 현재 미사용 방치,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결과 현재는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
 - 교구청 건물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천주교 성지로 조성 중이며 교구청 건물은 개보수

후 천주교 박물관으로 활용 예정이므로 보존활용 여건은 양호

- 천정 몰딩 등이 그대로 남아 있고 건물의 원래 상태가 남아 있음. 전남지역 가톨릭 선교의 흔적을 갖고 있어 의미 있음

10. 조사자 의견

가. 1차 관계전문가 조사의견('10.3.4)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 광주대교구의 교구청 건물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교구청 자체의 관리가 요구되며, 그 보존 의도가 주요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 건축물은 불용상태이고, 그 건물 내외부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곳은 금회 등록 신청 건물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다.
- 광주 교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목포시 당국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 정립을 하길 기대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간략화된 이태리 팔라조 형식의 건물로 벽돌의 분위기도 좋고 수녀원의 독특한 분위기가 남아있어 보존의 가치는 있다.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남지역 가톨릭 성지이므로 당시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신청건물이외에 주변의 벽돌건물들도 함께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의 성지화 계획은 본 건물을 지나치게 왜소하게 보일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1937년 설립된 광주교구의 최초 교구청 건물로 그 동안 교구청, 수녀원, 간호대학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내부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건축원형을 추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적벽돌 조적식 구조로 일반적 건축양식과 기법에 의해 건축되어 두드러진 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 건축원형을 추정하기도 쉽지 않고 현재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하고 두드러진 건축적 특성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가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운데, 주출입구 현관, 내부 목조 계단, 천장의 석고플라스터 장식 등 일부는 보존가치가 있다.
- 현재 목포시와 협조하여 교구청 주변 일대를 천주교 성지로 조성 중이며, 계획안 조감도를 보면 역사성, 장소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적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근대건축전문가 등 관련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필요하다.

나. 2차 관계전문가 조사의견('12.7.19)

<문화재위원 ○○○(단국대학교 교수, 건축사)>

1)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교구청 개요

- 1937년에 건축된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의 첫 교구청 건물로 1955년부터는 성 콜롬반외방선교수녀회 수녀원 목포분원과 성 콜롬반 병원으로, 1990년 교구에 이관된 이후부터 2002년까지는 목포 가톨릭병원으로 사용되었다.(주로 성 콜롬반수녀회와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의 수녀원으로 사용) 2002년 목포가톨릭 병원이 폐업된 후 대성전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변의 건물들(목포 가톨릭 병원, 성 콜롬반 간호학교)이 철거되고, 교구청 앞쪽의 건물은 목포시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좌측의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좌우대칭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벽돌 조적식 건물로 외벽을 지하층은 석조로 1-3층은 적벽돌로 마감하였으며, 각층 구분 수평띠와 처마 코니스 등 단순화한 이태리 팔라조풍의 건물이다. 경사지붕에 8개의 환기용 도머창과 굴뚝이 있고, 외벽 벽돌면에는 페인트칠이 되어 있다. 반원아치와 필라스터 기둥으로 장식된 주출입구 현관과 내부목조계단, 천장의 석고플라스터 몰딩, 행거 미서기 문 등 양식적인 요소도 있다.

3) 문화재 보존여건

- 대상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주변 건물의 철거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등 계획된 성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변건물을 목포시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본 건물을 교회 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보존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4) 등록가치 의견

- 본 건물은 교구청의 사무실과 수녀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외형은 물론이고 내부 칸벽도 그다지 변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인하지 못한 지붕골조를 제외하고는 구조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초기역사와 성 콜롬반외방전교회의 의료 선교의 흔적이 배어 있는 장소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교구청”

<문화재전문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건축사)>

1)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교구청 개요

-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최초교구청으로서, 1937년경 건축(법인등기부 1938.

5. 24 등록)되어 있으며, 1955년 이후 콜로반외방선교수녀회 수녀원 목포 분원 및 성산간호전문대학으로 사용

- 1990년대부터 2002년까지 샬트르성바오로 수녀회 수녀원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방치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지하벽체는 석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벽돌조임. 둥근 아치가 전면 입구의 포치를 구성하며, 단아하고 장식이 없는 매우 가지런한 건축물임
- 바닥은 바닥장선(floor joist)위에 목조마루(woodflooring)을 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난방은 각 실의 창호측 바닥에 배관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복사난방(온수 또는 스팀)으로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2개의 방 연결부에 굴뚝 및 연통이 있어 실내부에 난로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임

3) 문화재 보존여건

- 현재는 사용되지않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지붕의 누수, 천정 및 목재마루의 퇴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내부에도 습기로 인해 벽체 및 벽지 등의 탈락 등이 발생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임. 교구청 건물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천주교 성지로 조성 중이며, 교구청 건물은 개보수 후 천주교 박물관으로 활용 예정
- 1층은 공식적인 대외 접견 및 업무용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천정이 높고 천정의 구성형식 등이 잘 남아있어 보존의 가치가 있으며, 특히 행잉도어 및 창호의 형태가 양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있음
- 2층은 집무공간으로 보이며, 천정이 높고 출입문의 형태도 기능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설비는 부분적으로 개보수의 흔적도 보임
- 3층은 숙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2층과 3층 사이에 별도의 출입을 관리하는 창호를 두고 출입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4) 등록가치 의견

-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최초교구청으로서, 1930년대 후반 지역의 천주교관련 유적으로서 의미있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이번조사과정에서 지붕에서 발견된 콜로반외방선교수녀회 수녀들이 입국하면서 사용하였던 가방이 다수 발견되고, 이 가운데 S'COLUMBANS HOSPITAL 이라 표기된 가방 및 가방 이름표 등은 역사발물관에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아주 좋은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목가구조의 퇴락, 외벽 및 천정 누수 및 탈락 등 전체적인 수리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건축물 차원에서 건축물 수리보수를 위한 교구차원에서 자구노력을 전체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유지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주변이 경사지형으로 우수 등이 당해 건축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주차장 등으로 정리되지 않

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교구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근대건축)>

1)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교구청 개요

- 1936년 광주지목구 신청
- 1937. 4. 13 지목구 설립
 - 광주에 교구청을 갖추지 못하여 목포 현 신정동 성당에 교구청을 둬(맥폴린 감목대리가 상주하면 전교)
 - 건물은 이전에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광주지목구를 신청하며 목포에 교구청을 두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신청과 동시에 착공했다 하더라도 1년여만에 준공하는 것은 쉽지 않음)
- 1943. 2. 17 교구청 목포에서 광주(북동 성당)로 이전
- 1945. 9. 16 교구청 광주에서 목포(산정동 성당)로 이전
- 1956. 2. 5 교구청 광주로 이전(임시)
- 1956. 7. 8 교구청 광주 확정
- 1945년~1956년 교구청 기간중
- 1955. 1. 17 본 건물을 수녀회에 기증하여 진료소로 활용함
- 1955. 7. 5 본 건물에서 골룸반병원으로 개원
- 이후 병원 및 간호대학 건물 등으로 사용됨

2) 보전 여건 및 주요 특징

- 수차례 용도변경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사제관→의료원→간호대학→수녀원 등)으로 그 용도가 유사한 것이었다. 중앙의 복도를 중심으로 양 측으로 실을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건물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실 내부의 인테리어를 조금씩 바꾸는 정도였다. 구조적으로도 조적조 형식인 까닭에 내부의 실구획을 위한 벽체는 상하층 동일한 위치에 있고, 특히 중앙복도는 지붕의 트러스 밑에까지 이어진 형식이어서 실 내부구획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건물의 외관과 더불어 실 내부에도 초창이 후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건물 내부는 사용되지 않은지 10여년이 경과하여 낡아 있고, 부분적으로 퇴락한 곳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복도라던가 실 내부의 장마루 및 계단실 부분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또한 1층의 교회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강당과 철제문이 설치된 문서창고 및 현관 입구 등도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형을 찾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붕 내부의 트러스는 금번 현지조사에서 새로이 조사되었다. 왕대공 트러스 형식으로 전후 경간이 큰 까닭에 중앙 포스트를 중심으로 좌우에 달대공

이 2개씩 있는 형식이다. 전후 지붕면마다 환기를 위한 다락창을 일정 간격으로 4개씩 설치하였으며, 내부에서는 과거 사제들이 사용하였던 여행가방이 다수 발견되어 본 건물의 역사성을 보여주었다. 이들 여행가방에는 짐표와 탁송기록 및 일제시대 당시 신문 등이 함께 발견되어 향후 본 건물의 보존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등록가치 의견

- 건물은 광주와 목포지역 천주교 전파와 관련된 역사성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1937년 혹은 그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일반적이었던 재래식 벽돌을 사용하였으며, 지하층과 기단부는 화강암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기하였다. 주요구조부는 벽돌외에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보강하고 지붕은 목조트러스를 사용하였는데, 건축 당시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 건축적 또는 양식적인 측면에서 본 건물의 특징은 조적식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1층의 동쪽 단부에 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형식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서 좀더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시 구조형식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상에서와 같은 역사적인 중요성과 건축(양식)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본 건물의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존의 측면에서 본 건물의 공간활용계획은 현재 산정동성당의 목포선교 100주년기념관(한국 레지오 마리아기념관)의 전시물과 중복되는 듯하여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사적 제157호 「환구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 「환구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 「환구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공동)
- (2) 대상문화재명 : 환구단(사적 제157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번지
- (3) 신청내용 : 문화재(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변 현상변경(조경, 조명)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번지 등
 - 사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 환경(조경, 조명) 개선

구분	당해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안)	수정(안)	조경개선	경관조명
신청사유	현 계단실을 확장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녹지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고건축과 현대건축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조명 개선
신청위치	조선호텔 북서측 야외 주차장 계단탑(환구단 석고 인근)		조선호텔 남서측 도로변 공개공지	호텔부지내 삼문방향 환구단 후면 진입로 계단 조선호텔 외벽
사업규모	EV설치 2기 계단탑(420m ² →59.26m ²)	EV설치 1기 계단탑 (420m ² →50.49m ²)	녹지공간 조성 및 확장 (347.52m ² →513.90m ²)	경관조명 개선 3개소
이격거리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구역에서 40m이격	문화재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국가지정문화재		1구역(신축금지)	1구역(신축금지)

(4) 심의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 현상변경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9.3)〉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 현재의 계단탑은 사적지 내 석고와 인접한 위치의 최소한의 구조물인바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크기와 형태 확장변경은 사적지 경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위치, 크기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조경 및 주변공간 조성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가능하다고 사료됨
 - 환구단 주변 조명개선공사는 시공계획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색상, 조도 등의 구체적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근대문화재과 의견〉

- 환구단 주변 조경공사는 계획대로 시공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계단탑의 확장이나 경관조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부결

- 부결
 - 소위원회 구성하여 면밀한 검토
 - 심의결과를 문화재위원회에 보고
- 출석 10명, 찬성 10명

7.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문화관 엘리베이터 신설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문화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문화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천주교회유지재단(대구시 중구 남산동)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계산동성당(사적 제290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0(계산동 2가 7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0
 - 사업내용 :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문화관 엘리베이터 설치
 - 사업규모 : 엘리베이터 1기 설치(지하 2층, 지상 5층)
 -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8m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원지형 보존)
- (4) 심의사항 :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문화관 엘리베이터 설치 현상변경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7.26)>

- 문화재위원 ○○○, 경일대 ○○○ 교수
 - 상기 내용은 해당 문화재와 근접한 문화관에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증축 행위임. 문화재와 다소 근접하고 있으나 소규모 증축행위로 문화재 보호나 주변경관에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엘리베이터 입면은 기존 문화관 입면 패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음

<근대문화재과 의견>

- 대구 계산동성당 보호구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8m이격된 문화관에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부결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 영향 여부 재검토
- 출석 10명, 찬성 10명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근대2012-05-008

8. 한글 유물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한글 분야 유물 중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큰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글 분야 유물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등록 조사, 검토회의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말모이 원고’ 등 7건 10점

번호	유물명	크기 및 수량	제작년도	소유자/보관처	소재지	비고
1	말모이 원고	17.2×23.7cm, 1권, 240자 원고지 (본문 153매 찾기 76매)	1911	이병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 미성아파트	
2	조선말 큰사전 원고	19.5×26.9cm 12권, 400자 원고지	1929~ 1957	한글학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19.5×26.9cm, 5권, 400자 원고지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3	국한회어 (國漢會語)	2권 건:20.3×31.2cm 곤:20.6×32.2cm	1895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4	국어문법(國語 文法) 원고	15.7×23.5cm 12줄 원고지 76매	1910	한글학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5	국문연구안 (國文研究安)	15.0~17.4× 21.0~25.cm	1911~ 1920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6	국문정리 (국문정리) (國文正理)	17.0×24.5cm,1권	1897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로올라 도서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17.0×24.3cm,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정보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7	전보장정 (電報章程)	16.7×26.7cm, 1권	1888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16.7×26.8cm, 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3) 주요 추진경과

- '12. 1~3월 한글분야 문화재 등록 기초 조사(○○○)
- '12. 6. 22. 한글분야 등록검토 대상 선정 자문회의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전 연세대 교수, ○○○ 한국기술교육대교수, ○○○ 한국방송통신대교수, ○○○ 한양대 교수, ○○○ 국립국어원
 - 자문결과 : '말모이 원고' 등 12건 등록 조사 대상 유물 선정 및 기준(안) 마련, '훈맹정음', '박문서관 목판본' 등 추가
- '12. 7. 17~7. 19 한글분야 등록조사(10개소 15점)
 - 조사자 : ○○○ 전 연세대학교 교수(국어학), ○○○ 문화재전문위원(근대 소설), ○○○ 문화재전문위원(국어사), ○○○ 경북대학교 교수(국어학)
 - 조사장소 : 한글학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독립기념관 등 10개소
- '12. 8. 2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문화재위원회 보고
- '12. 9. 13 한글 유물 문화재 등록 검토회의
 - 참석자 : ○○○ 문화재위원장,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전 연세대 교수, ○○○ 국립국어원
 - 회의결과 : '말모이 원고' 등 7건을 문화재 등록 대상으로 선정함, '국어사전 원고' 등 4건은 자료 보완,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재검토기로 함

(4) 검토내용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7.17~7.19)>

- ○○○ 전 연세대교수 등 의견 : 붙임 참조

<근대문화재과 의견>

-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조사의견,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역사적·사료적으로 가치가 있는 말모이 원고 등 7건을 등록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결과 : 원안 가결

- 「말모이 원고」 등 7건 10점 등록 예고 가결
- 출석 10명, 찬성 10명

붙임 : 한글 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12.7.17~7.19)

한글 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

1. 목 적

- 한글 분야에서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보존하고자 함
- 한글날(10.9)을 맞이하여 문화재를 등록함으로써 한글 유물의 문화재적 평가 및 가치 부여를 통한 근대 동산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2. 추진경과

- '12. 1~3월 한글분야 문화재 등록 기초 조사(홍윤표)
- '12. 6. 22. 한글분야 등록검토 대상 선정 자문회의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전 연세대 교수, ○○○ 한국기술교육대교수, ○○○ 한국방송통신대교수, ○○○ 한양대 교수, ○○○ 국립국어원
 - 자문결과 : '말모이 원고' 등 12건 등록 조사 대상 유물 선정 및 기준(안) 마련, '훈맹정음', '박문서관 목판본' 등 추가
- '12. 7. 17~7. 19 한글분야 등록조사(10개소 15점)
 - 조사자 : ○○○ 전 연세대학교 교수(국어학),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문화재전문위원(국어사), ○○○ 경북대학교 교수(국어학)
 - 조사장소 : 한글학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독립기념관 등 10개소
 ※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 및 '훈맹정음'은 실물 부재로 본 조사에서 제외함
- '12. 8. 2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문화재위원회 보고
- '12. 9. 13 한글 유물 문화재 등록 검토회의
 - 참석자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전 연세대 교수, ○○○ 국립국어원
 - 회의결과 : '말모이 원고' 등 7건을 문화재 등록 대상으로 선정함. '국어사전 원고', '조선어사전', '조선말 독본 첫책', '조선말 교과서 둘째책'은 자료 보완,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재검토기로 함

3. 조사개요

가. 조사일자 : '12.7.17~7.19(3일간)

나. 조사자

- ○○○ 전 연세대학교 교수(국어학)
-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 문화재전문위원(국어사)
- ○○○ 경북대학교 교수(국어학)

다. 조사내용 : 한글 유물 실사 및 문화재적 가치 검토, 관계자 인터뷰 등

번호	유물명	크기 및 수량	제작년도	소유자	소재지	비고
1	말모이 원고	17.2×23.7cm, 1권, 240자 원고지 (본문 153매, 찾기 76매)	1911년 이후	이병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 미성아파트	

2	국어사전 원고	16×23.7cm, 1권, 192자 원고지 660매	미상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3	조선말 큰사전 원고	19.5×26.9cm 12권, 400자 원고지	1929~ 1957	한글학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19.5×26.9cm, 5권, 400자 원고지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4	국한회어 (國漢會語)	2권 건:20.3×31.2cm 곤:20.6×32.2cm	1895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5	국어문법(國語 文法) 원고	15.7×23.5cm 12줄 원고지 76매	1910	한글학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6	국문연구안 (國文研究安)	15.0~17.4× 21.0~25.2cm	1911~ 1920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7	국문정리 (국문정리) (國文正理)	17.0×24.5cm,1권	1897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로올라 도서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17.0×24.3cm,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정보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8	조선어 사전	15.6×22.8cm 두께 6.3cm, 1권	1938	박형익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8안길
9	전보장정 (電報章程)	16.7×26.7cm, 1권	1888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16.7×26.8cm, 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10	조선말독본 첫책	13×18.8cm 첫째 책, 2권	1927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11	조선말교과서 둘째책	12.9×18.6cm 둘째 책, 3권	1927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4. 등록기준(안)

- 한글 분야에서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
- 한글 보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것
- 소장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등록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초판1쇄로 한정함
- 문법책은 1910년대를 하한선으로 함
- 교과서는 원칙적으로 타 분야 교과서 조사 후 종합적으로 검토

5. 조사자 의견(요약)

번호	유물명	소유자/보관처	조사자의견				비고
			○○○	○○○	○○○	○○○	
1	말모이 원고	이병근	○	○	-	○	
2	국어사전 원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	○	×	-	△	
3	조선말 큰사전 원고	한글학회	○	○	-	○	
		독립기념관	○	○	-	○	
4	국한회어 (國漢會語)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	○	○	-	○	

5	국어문법(國語文法) 원고	한글학회	○	○	-	○	
6	국문연구안(國文研究安)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	○	○	-	○	
7	국문정리(國文正理)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로올라 도서관	○	○	○	-	
		한국학중앙연구원	○	○	○	-	
8	조선어 사전	박형익	○	×	○	-	
9	전보장정(電報章程)	국립중앙도서관	○	○	○	-	
		한국학중앙연구원	○	○	○	-	
10	조선말독본첫책	독립기념관	○	○	-	○	
11	조선말교과서둘째책	독립기념관	○	○	-	○	

가. 말모이 원고

-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현대식 국어사전인 ‘말모이’ 편찬을 위한 원고임(○○○)
- 용언(用言)의 어미 및 체언(體言)의 조사(助詞)를 포함한 토씨도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는 등 국어학적인 의미가 있음(○○○)
- 당시 최고의 국어학자인 주시경이 중심이 되어 표제항과 뜻풀이말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등 국어 사용 및 국어사전의 역사에서 귀중한 자료임(○○○)

나. 국어사전 원고

-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이 시도된 단일어 사전의 중요한 흔적임(○○○)
- 국어사전의 원고인 것은 분명하지만,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하고자 했던 국어사전 「말모이」의 원고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 국어사전 원고는 「말모이」를 개고한 것으로 이규영이 쓴 것이라는 주변적 증거는 있지만 자료 자체에 관련된 기록이 없음(○○○)

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

- 최초로 간행한 국어사전의 원고로 한글 및 국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리의 중요한 유물임(○○○)
- 일제강점기 말에 있어서 조선어말살 정책에 맞서 민족어를 보존하고자 했던 국어학자들의 땀과 열이 그대로 녹아있음(○○○)
- 한글학회가 1929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당시의 국어학자와 인접 분야의 학자들이 총동원되어 국민적 염원이었던 우리말 큰사전 편찬 간행에 사용된 원고임(○○○)

라. 국한회어

-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대역사전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신문화·문명의 도입이라는, 개화기의 개화사상에서 편찬한 것임(○○○)
- 한국어를 한자나 한자어 또는 한문으로 풀이한 일종의 대역 사전으로, 국어학적으로 중요한 자료임(○○○)

- 정부가 시도한 최초의 국어사전이라는 점과 획기적이면서도 과도기적 본문 전개 등의 역사성이 있음(○○○)

마. 국어문법 원고

-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國語文法)> 친필 원고로 현대문법의 종합적인 체계를 개척하여 오늘날 정서법의 자리를 굳힌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기본이론을 세운 귀중한 책임(○○○)
- 대한제국 시기의 국어를 집대성하여 국어학 연구에서 큰 의의를 부여함(○○○)
- 국내 학자에 의해 국어 문법 연구가 이루어진 효시임(○○○)

바. 국문연구안

- 한글연구기관인 국문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로 우리나라 문자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로 오늘날의 한글맞춤법의 근간이 됨(○○○)
- 대한제국 시기 국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임(○○○)
- 훈민정음 창제 발표 이후 정부가 국어문자정책에 관여한 사례로서, 개화기 국어학에서 중요함(○○○)

사. 국문정리

- 이봉운(李鳳雲)이 국문에 관한 주장을 종합한 연구서로서 국문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국어사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권점을 활용하여 띄어쓰기를 표시하는 등 여러 면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함(○○○)
- 국문에 대한 올바른 연구,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에 대한 문법연구서임(○○○)

아. 조선어사전

- 문세영(文世榮)이 편찬하여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1938년 7월 10일에 발행한 초판본으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단일어 사전, 특히 현대적인 의미의 국어사전임(○○○)
- 흔하지 않은 초간본이지만 권말부록 부분이 결락되어 있음(○○○)
- 현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우리말과 우리글을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로가 있음(○○○)

자. 전보장정

-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최초로 한글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결과물임(○○○)
- 국내 전보규칙의 전신이 되었고, 국문 전신부호의 제정으로 우리 한글 전보가 시작됨(○○○)
- 한글 기계화의 초기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차. 조선말 독본 첫책

-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만들어 놓은 매우 희귀한 조선어 교과서로서 독립운동사, 한글 변화사, 교과서 편찬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재임(○○○)
- 독립운동사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이 현지의 언어와 접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ㄷ) ㄷ ㅋ ㅌ ㄱ ㅎ’, 그리고 하단에는 ‘한낱말사이 높은소리, 낮은소리, + 한문말 X 다른나라말’이라는 순서배열과 부호 사용이 표시되어 있다.

- 그 체재는 ‘알기. (本文) 찾기, 字劃찾기’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모두 153면으로 되어 있다. ‘ㄱ’으로부터 시작하여 ‘갈죽’까지의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알기’나 ‘ㄱ’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원고본이 첫 권임을 알 수 있다. 모두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또는 편찬작업이 완성되어 원래는 모든 원고가 다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서지기술

- (1) 책명: 말모이
- (2) 저자 : 주시경(1876~1914), 김두봉(1889~1960), 권덕규(1890~1950), 이규영(1890~1920) 등으로 추정된다.
- (3) 발행소 : 미간
- (4) 발행연도 : 1911년부터 편찬사업 시작
- (5) 판종 : 필사본, 원고본
- (6) 지질 : 양지
- (7) 소장자 : 이병근(서울대 명예교수)
- (8) 책광 : 23.7×17.2 cm
- (9) 판광 : 18.5×13.2 cm
- (10) 판식 : 四周雙邊
- (11) 장수 : 240자 원고지 153매
- (12) 보존상태 : 매우 양호한 편
- (13) 내용

- 한국에서 최초로 편찬을 시도한 현대적인 국어사전으로, 최남선(崔南善)·박은식(朴殷植) 등이 고문화(古文化)의 선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주시경(周時經)·김두봉(金斗奉)·권덕규(權惠奎)·이규영(李奎榮) 등의 국어학자들이 민족주의적인 애국계몽의 수단으로 편찬하려 했던 원고이다.
- 말모이는 조선광문회에서 1911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를 편찬하게 하여 편찬된 사전이지만 출판되지 못하고 원고,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는 사전이다.
- 말모이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周時經, 金斗奉, 李奎榮, 權惠奎 등 모두 4명이었다. 1914년에 주시경이 세상을 떠나자, 1916년에는 이 말모이의 바탕이 되는 문법책으로 김두봉이 조선말본을 간행하기도 하였으나 그가 상해로 망명하고, 이규영이 작고함으로써 말모이의 편찬은 완성단계에서 멈추어졌고 그 원고조차 산실되어 현재는 그 첫째권으로 보이는 ‘ㄱ-갈죽’까지의 표제항이 있는 한 권(이병근 교수 소장)만 남아 있을 뿐이다.

(14) 의의

우리나라의 사전 편찬의 역사를 대역사전과 국어 단일어사전, 그리고 고어사전을 구분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역사전

종류	편저자	사전명	편찬연도	표제어수
한국어 - 한자	이준영, 정현, 이기영, 이명선, 강진희	국한회어	1895년	약 27,000 개

한국어- 프랑스어	Félix-Clair Ridel	Dictionaire Coréen - Francais(한불 사전)	1880년	약 27,000 개
한국어- 영어	H.G.Underwood	A Concise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영한 한영사전)	1890년	
	J.Scott	Introduction, English-Corean Dictionary(영한사전)	1891년	
한국어- 일본어	趙義淵 井田勤 衛	日韓 韓日 言語集	1910년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	1920년	58,639개 한자어 40,734개 언문어 17,178개 이두 727개
	조선어연구회	鮮和新辭典	1942년	
영어- 한국어	James S. Gale	A Korean-English Dictionary(한영 사전)	1897년	약 34,000개
	George H. Jones	An English-Korean Dictionary(영 한사전)	1914년	
러시아어- 한국어	푸칠로	露朝辭典	1874년	약 4,000개
프랑스어- 한국어	C h a r l e s Allévêque	Petit Dictionaire Français-Coréen(法 韓字典)	1901년	
라틴어- 한국어		Parvum Vocabularium Lation-Coreanum ad usum studiosae(羅韓小辭典)	1891년	
일본어- 한국어	趙義淵 井田勤 衛	日韓 韓日 言語集	1910년	
	日語雜誌社	日韓 會話辭典	1907년	

(나) 국어 사전

편찬자	사전명	편찬연도	표제어수
조선광문회(주시경, 김두본, 이규영, 권덕규 등)	말모이	1911년-	‘ㄱ-갈죽’ 부분만 남아 있음
심익린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1925년	6,106 개 최초의 국어학습사전
문세영	조선어사전	1938년	약 89,000개
이운재	표준조선어사전	1947년	
조선어학회	조선어큰사전	1947년	164,125개
문세영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	1949년	
신기철·신영철	표준국어사전	1958년	
이희승	국어대사전	1961년	약 230,000개
신기철, 신영철	새우리말큰사전	1974년	약 310,000개
이희승	국어대사전(수정증보판)	1982년	
금성사(김민수, 고영근, 임홍빈, 이승재)	국어대사전	1996년	약 300,000개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년	509,076개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1991년	약 450,000개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1998년	약 50,000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년	약 390,000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사전(6권)	1961년-1962년	187,000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992년	약 330,000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06년	약 400,000개

(다) 고어 사전

저자	책명	간행연도	출판사	어휘항수
辛兌鉉	古語集解	1940	正音 35	338개
方鐘鉉	古語材料辭典(前後集)	1946-1947	同省社	전집 약 1,870개 후집 약 3,530개 총 약 5,400개
丁泰鎭·金炳濟	朝鮮古語方言辭典	1948	一成堂書店	고어 약 2,000개 이두 약 1,630개 방언 약 9,600개
김종오	古語 例解	1949	조선어연구 1-1~1.8	
이상춘	조선 옛말 사전	1949	을유문화사	약 5,250개
정희준	朝鮮 古語辭典	1949	동방문화사	고어 약 6,400개 이두 약 1,600개
김근수	참고 고어사전	1949	필경	약 650개
김종오	古語 例解(完)	1950	조선어연구 2.3	
劉昌惇	古語辭典	1959	동국문화사	정희준(1949)의 증보판(429-594)에 고어 약 3,000개 증보
南廣祐	古語辭典	1960	동아출판사	11,315개
劉昌惇	李朝語辭典	1964	연세대출판부	약 32,000개
리서행	조선어 고어 해석	1965	평양 고등교육출판사	고어 약 12,000개 이두 약 1,100개
南廣祐	補訂 古語辭典	1971	일조각	
김영환	중세조선말사전(1)	199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약 9,000개
홍윤표·송기중·정광·송철의	17세기 국어사전	1995	태학사	27,716개
南廣祐	敎學 古語辭典	1997	敎學社	약 30,000개
박재연	고어스던	2001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1,695개
박재연·김영·이민숙	홍루몽 고어사전	2004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3,869개
고려언어연구원	조선말 고어사전	2006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약 20,000여개 김영환, 중세조선말사전(1)을 완성시킨 것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말모이’는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현대식 국어사전이다. 따라서 그 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소 유 자 : 이병근(서울대 명예교수, 서울시 마포구)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수 량 : 1책
- 규 격 : 책 크기 17.2×23.7cm
- 재 질 : 양지(洋紙)의 원고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필사본
- 형 식 : 양지에 4침 장정
- 조성연대 : 1911년에 착수하여 수년 간 계속됨.
- 현 상
 - 사전편찬용으로 특별 제작한 원고지에 반듯한 글씨로 정서한 원고본임. 표제항은 ‘ㄱ’항부터 시작하여 ‘갈죽’까지만 수록되어 있음. 현재 전하는 것은 이 1책뿐임. 전체 책수는 알 수 없음
 - 책의 외표지는 한지로 된 한 장본(韓裝本)이고, 표지 서명은 없다. 내지는 광택이 나는 양지(洋紙)에 ‘ㄱ ㄷ ㄹ ㄴ ㄷ ㄴ’와 같이 풀어쓰기로 서명이 적혀 있다. 그 뒤에 ‘알기’라 하여 일러두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2쪽이다. 본문은 153쪽, 찾기 50쪽, 자획찾기 26쪽으로 내용 순서가 들어 있다.
 - 본문을 쓴 종이는 사전 제작을 위해 특별히 인쇄한 원고지이다. 원고지 형식은 1면이 좌우 2단 편집 체제인데 각 단이 세로 15칸, 가로 8칸이어서 1개 단에 120칸이 배치되어 있다. 2단 형식이므로 1면당 글자수는 총 240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인쇄된 원고지에 먼저 표제어를 굵은 글씨로 쓰고, 표제어 다음에 약간 작은 글씨로 뜻풀이말을 썼다. 뜻풀이말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줄글이다. 원고지의 상하단과 좌우단 테두리선 밖에 첫소리로 쓰이는 자음자, 받침으로 쓰이는 자음자, 가운데소리로 쓰이는 모음자 등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전 편찬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이 원고본의 필사자는 주시경,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중의 한 분일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 표제어는 ‘ㄱ’항부터 시작하여 ‘갈죽’까지만 수록되어 있음. 이어서 ‘알기’라 하여 일러두기 내용이 1장에 씌어 있다. 여기에는 말소리의 높낮이 표기법, 한자어와 외국어 표기법, 품사를 뜻하는 각종 약호가 표기되어 있다. 품사를 뜻하는 ‘임’, ‘역’ 등은 주시경이 만든 문법 용어를 채용하였다.
 - 김민수에 따르면, 말모이 편찬 작업은 1910년 10월에 창설된 조선광문회에서 1911년 10월에 이미 시작했던 주시경,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의 「말모이」 원고를 이어받아 계속한 것이다.(김윤경 『조선문자국어학사』(1938. 657쪽 및 737쪽))
 - 주시경의 제자 이윤재는, “지금부터 한 20여년 전에 조선광문회에서 맨 처음으로 사전 편찬을 시작하고 4-5년간 계속으로 어휘 수집에서 주해까지 상당히 진행하여 가는 중, 여기에 전력하던 김두봉씨가 해외로 나가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하여 그만 중지된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으며, 그 원고 「말모이」는 모두 산실되고 남은 것이 얼마 있지 아니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조선어사전 편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936년 한글 4권 2호). 1936년에 이미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한 이윤재의 진술로 보아, 이병근 교수의 소장본은 남아 있는 원고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문헌자료
 - 김민수 (1983), 『말모이』의 편찬(編纂)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13집, 1-34면.

- 이병근(1977),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 (고본(稿本)) - 《알기》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학회, 『언어』 2권 1호, 67-84면.
- 기 타
 - 소장자 이병근 교수에 따르면, 이 자료는 1967년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사는 석씨 성을 가진 할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석씨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도 학자였다고 하였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주시경은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많은 국어학자들의 스승이며, 한국어학의 역사에서 커다란 봉우리를 이룬 인물이다. 국어사전 『말모이』 정서본은 주시경을 핵심으로 하는 당시의 국어학자들이 민족 언어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해 만든 사전 원고본이다.
 - 국어사전 「말모이」 정서본은 우리 학자들의 손으로 시도된 최초의 국어 사전 편찬 작업 결과물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주시경,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이 주도하여 이 사전의 편찬을 진행한 것은 국어학과 사전출판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일제의 탄압에다가 주시경의 요절, 김두봉의 해외 망명 등이 겹쳐 이 정서본이 책으로 출간되지 못하였지만 영본(零本)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이 정서본은 훗날 이어지는 국어사전 편찬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 정서본의 완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영본으로 유일하게 전해지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더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말모이」 정서본은 현대적 국어사전 편찬을 시도한 최초의 자료이다. 비록 출판되지 못하였지만 당시 최고의 국어학자인 주시경이 중심이 되어 표제항과 뜻풀이말을 모두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 국어 사용 및 국어사전의 역사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나. 국어사전 원고

- 1) 명 칭 : 국어사전 원고
- 2)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 3)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도서관
- 4) 수 량 : 1권(192자 원고지 660매)
- 5) 규 격 : 16.0×23.7cm
- 6) 발행주체 : 미상
- 7) 재 질 : 종이(양지)
- 8) 조성연대 : 1914년경
- 9) 조사자 의견

<전 연세대학교 ○○○ 교수(국어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국어사전 원고
-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도서관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번지
- 수 량 : 1책
- 규 격 : 16.0×23.7cm
- 재 질 : 원고지(양지)

- 판 중(서지의 경우) : 필사본
- 형 식 : 4침 장정
- 조성연대 : 1914년경
- 현 상

- 이 「사전」 원고는 청색으로 인쇄된 원고지에 붓글씨로 쓴 원고본으로, 표제는 ‘사전’이고 내제는 없다. 책의 크기는 16.0×23.7cm이고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가로 8행 세로 24자로 된 원고지로, 192자 원고지라고 할 수 있다.
- 표지 서명은 「사전」이다. 이 표지서명은 필사한 것으로 이 원고가 만들어질 때의 필사는 아니다. 왜냐 하면 본문에 쓰인 글씨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본문의 원고에 쓰인 글씨는 달필인데 비하여 ‘사전’이라고 쓴 표지의 글씨는 줄필이다. 마찬가지로 이 원고지의 표지도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개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를 쓴 사람이 외표지를 만들었다면 더 정성들여 깨끗하게 포장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사전 원고는 청색의 원고지에 쓰여 있다. 이 원고지는 18x24자의 192자 원고지에 쓰여 있다. 이러한 원고지의 특성으로 보아서 이 원고지는 1900년대초부터 1960년대까지의 원고지로 추정된다.
- 표제어는 ‘마름질’에서 시작하여 ‘봐쑹’까지 되어 있다. 모두 660장이다.
- 이 국어사전 원고는 어느 사전의 원고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마름질’ 항목 하나를 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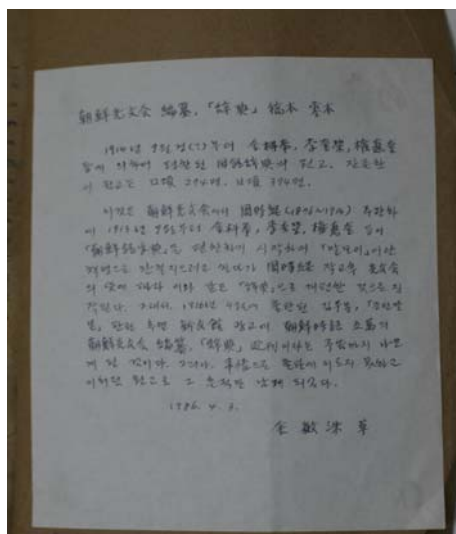
이 원고의 ‘마름질’ 항목은 다음과 같다.

마름질(名) 무엇 맨들 감을 마르는 일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인쇄된 국어사전에는 이러한 뜻풀이와 동일한 것이 없다. 즉 심의린(1925년),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문세영(1938), 조선어사전, 이윤채(1947), 표준조선어사전 등과 같은 초기의 국어 사전 원고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후대의 사전 원고로 보기 힘들다. 후대의 사전 원고들은 대부분 가로쓰기이지 세로쓰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원고는 간행되지 않은 국어사전의 원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징에 의하여 김민수 교수는 이 원고가 ‘말모이’의 원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이 원고의 앞에 김민수 교수가 초(草)해 놓은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朝鮮光文會 編纂, 『辭典』 稿本 零本

1914년 9월경(?)부터 金料奉, 李奎榮, 權憲奎 등에 의하여 편찬된 國語辭典의 원고, 잔존한 이 원고는 口 項 274면, ㅂ 항 394면.

이것은 朝鮮光文會에서 周時經(1876-1914) 주관 하에 1913년 9월부터 金料奉, 李奎榮, 權憲奎 등이 『朝鮮語辭典』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말모이』이란 책명으로 완결지으려고 하다가 周時經 작고 후 光文會의 뜻에 따라 이와 같은 『辭典』으로 개편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1916년 4월에 출판된 김두봉 『조선말본』 판권 후면 新文館 광고에 朝鮮語法 五萬의 朝鮮光文會 編纂 『辭典』 近刊이라는 豫告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事情으로 출판에 이르지 못하고 이처럼 원고로 그 흔적만 남게 되었다.

김민수 교수는 이 사전 원고를 주시경전서 제5집에 전재하고 다음과 같은 논지의 해설을 붙이고 있다.

이 사전에 쓰인 글씨를 이규영의 필적으로 추정하고 말모이의 새받침과 문법 용어가 시의에 맞게 실용되도록 고쳐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새받침이 주석 끝에 첨부되고 미처 고치지 못한 새받침과 용어가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이 1915, 6년경 말모이로 개고하기 시작한 흔적이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 표제어 ‘몬, 몸, ㅂ, 반절, 받침, 보다, 맺, 면접, 몬다, 외, 몸매, 미’ 등에서 노출된 것이 뚜렷이 목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몬(名) 누리에 있는 모든 쓸 잇고 쓸 업는 것의 모두 부르는 이름

몸(名) (ㄱ) 한낫 사람이나 짐승 쏘는 모든 것의 몬이를 이르는 것 (ㄴ) 어찌한 일이나 것의 바탕이 되는 것(말의 몸, 몸채) (ㄷ) 안악네의 아기 맨 것 등등

결국 이 사전 원고는 이병근 교수 소장의 말모이를 개고하기 위해 만든 원고로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김민수 교수의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동의할 수 있는 점과 동의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동의할 수 있는 점

- ① 표제어에 쓰인 표제항에 주시경 선생이 주장하고 있는 용어들이 보인다
는 점 (‘몬’ 등)
- ② 뜻풀이에 사용된 표기법이 이병근 교수 소장의 『말모이』와 일치한다는 점
- ③ 이 사전 원고에 쓰인 필적이 이병근 교수 소장의 말모이에 쓰인 필적과 유사하다는 점
- ④ 기왕에 간행된 어떤 기존의 사전에서도 이 사전 원고에 보이는 뜻풀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 ⑤ 이 원고가 육당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

동의할 수 없는 점

- ① 이병근 교수 소장의 『말모이』와 원고지가 다르다는 점
- ② 이병근 교수 소장의 『말모이』는 가로쓰기인데, 이 사전 원고는 세로쓰기라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 사전 원고는 조선광문회에서 계획하고 편찬하려고 하였던 말모이의 원고라는 확증은 없지만 그 주장에 매우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4) 의의

이 사전은 이병근 교수 소장의 말모이 원고와 마찬가지로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의해 편찬이 시도된 단일어 사전의 중요한 흔적이어서 국어와 한글에 대한 중요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명 칭 : 국어사전 원고
-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도서관
- 수 량 : 660매
- 규 격 : 16.0×23.7cm
- 재 질 : 종이
- 판 종(서지의 경우) : 원고본
- 조성연대 : 미상
- 현 상
 - 이 원고의 표지에는 1986년 4월 3일 고려대학교 김민수 교수가 쓴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는데, 이 메모에서 「말모이」의 원고라고 언급하고 있다.
 - 하지만, 이 원고는 이병근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말모이」 원고와 여러 차이가 있다. 먼저 사용된 원고지가 이병근 소장본의 경우 ‘말모이’ 원고라는 점이 인쇄되어 있는 반면, 이 원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이병근 소장본의 경우 가로쓰기로 되어 있으나, 이 원고의 경우에는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병근 소장본 「말모이」와는 다른 원고라고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
 - 口항 274매와 日항 394매로 이루어져 있다. 국어사전의 원고인 것은 분명하나, 어느 국어사전의 원고인지 현재 확인할 수 없어서 연대 및 가치를 확정 짓기 어렵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원고는 국어사전의 원고인 것은 분명하지만,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하고자 했던 국어사전 「말모이」의 원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대 김민수 교수가 「말모이」 원고라고 간단하게 언급한 메모가 있긴 하지만,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 또한 이병근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말모이」 원고에서 사용된 원고지와 다르고,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 점도 동일한 원고로 보기 어렵게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병근 소장본 「말모이」와는 다른 원고라고 판단된다.
 - 이에 원고의 성격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경북대학교 교수(국어학)>

- 명 칭 : 국어사전 「사전」 원고
-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도서관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도서관
- 수 량 : 1책
- 규 격 : 책 크기 16×23.7
- 재 질 : 양지(洋紙)의 원고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필사본
- 형 식 : 저질의 갈색지를 표지로 하여 임시로 묶음
- 조성연대 : 1914년경(?)(김민수 1986)
- 현 상
 - 사전편찬용으로 작성한 원고로서 표제어가 ‘마름질’에서 시작하여 ‘봐서ㅓㅇ’까지 되어 있다. 현재 전하는 것은 이 1책뿐임. 전체 책수는 알 수 없다.
 - 책의 외표지는 질이 낮은 갈색의 양지이고, 표지 서명이 손으로 쓴 ‘사전’이라 되어 있다. 임시로 책을 맨 장정으로 허술한 외양을 보여 준다. 앞표지 안쪽면에 1986년 4월 3일에 쓴 김민수 교수의 설명 문장이 종이에 써서 붙여져 있다. “朝鮮光文會 編纂, 「辭典」 稿本 零本”이라는 제목 아래 “1914년 9월 경(?)부터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 등에 의해 편찬된 국어사전의 원고”라고 써 놓았다.
 - 본문을 쓴 종이는 양지의 원고지로 192자가 들어갈 수 있으며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세로 24칸 가로 8행이다. 본문 속에는 개칠을 하거나 줄을 그어 수정한 곳이 적지 않다.
- 내용 및 특징 :
 - 표제어는 ‘마름질’에서 시작하여 ‘봐서ㅓㅇ’까지 되어 있다. 현재 전하는 것은 이 1책뿐이다. 김민수(1983)에 따르면, 말모이 편찬 작업은 1910년 10월에 창설된 조선광문회에서 1911년 10월에 이미 시작했던 주시경,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의 「말모이」 원고를 이어받아 계속한 것이다.(김윤경 『조선문자급어학사』 1938. 657쪽 및 737쪽)
 - 이 책은 표지 서명이 「사전」이라 되어 있으며, 이병근 교수 소장본 「말모이」와 형태서지적 특징이 매우 다르다. 고려대 소장본 「사전」은 이병근 소장본과 전혀 다른 형식의 원고지에 기입되어 있다. 글씨도 가로글이 아닌 세로글로 되어 있고 원고지 양식도 아주 다르다.
 - 이 고려대 소장본 「사전」은 「주시경전서 5」(탐출판사, 1992년)에 영인되어 있다. 이 영인본의 편찬자는 전 고려대 교수 김민수이다. 김민수 교수는 「주시경전서 5」에 “조선광문회 편, 필사 「사전」(1914-9) 해설”이라는 글을 붙여서 이 필사본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김민수는 「사전」의 필적은 이규영의 것이며, 「말모이」의 받침과 문법 용어를 시의에 맞게 실용적으로 고쳐 놓았다고 했다.
 - 이 원고본에는 이 책을 누가 언제 썼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 김민수 교수가 붙인 설명문과 논문 김민수(1983)에 의존하여 이 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책 자체에 이 원고의 필자나 성격을 알려주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 문헌자료
 - 김민수 (1983), 「말모이」의 편찬(編纂)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13집, 1-34면.

- 이병근(1977),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고본(稿本)) - 《알기》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학회, 「언어」 2권 1호, 67-84면.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김민수는 고려대 소장 「사전」은 「말모이」를 개고한 것으로 보았다. 1919년에 이규영이 작고함으로써 사전 출판이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김민수 교수의 이 고증이 충분한 증거를 갖춘다면, 고려대 소장본 「사전」도 앞의 「말모이」를 묶어서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대 소장 「사전」에 「말모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광고문 등 주변 상황적 증거는 있지만, 이에 대한 논증은 순전히 김민수 교수의 논문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귀중한 자료이기는 하나 이런 한계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종합의견 : 이 국어사전 원고는 「말모이」를 개고한 것으로 이규영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수 교수). 이 판단은 많은 자료를 섭렵한 학자의 연구 결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신뢰성은 높다. 그러나 주변적 증거는 있지만 이 자료 자체에 관련된 기록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한계이다.

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

- 1) 명 칭 : 조선말 큰사전 원고
- 2) 소유자 및 권수

구분	소유자	권수	소재지	비 고
1	한글학회	12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2	독립기념관	5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계		17권		

- 3) 수 량 : 26,500여장
- 4) 규 격 : 19.5×26.9cm
- 5) 저 자 : 조선어학회
- 6) 재 질 : 종이(양지)
- 7) 조성연대 : 1929~1942년
- 8) 조사자 의견

<전 연세대학교 ○○○ 교수(국어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조선말큰사전 원고
- 소 유 자 :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4 한글학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 량 : 17책(한글학회 12책, 독립기념관 5책)
- 규 격 : 19.5×26.9cm
- 재 질 : 원고지(양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필사본
- 형 식 : 검정색 끈으로 상하 2침 장정
- 조성연대 :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큰사전은 1929년부터 편찬작업을 시작하였고, 1957년에 마지막 권이 간행되었으므로 이 사전 원고는 1929년부터 1942년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로 추정된다.
- 현 상

-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원래 한글학회 소장본이었었는데, 한글학회 허웅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에 일부 양도함으로써 현재 이 원고는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한글학회에는 12책이 소장되어 있고 독립기념관에는 5책이 소장되어 있다.

<한글학회 소장본>

한글학회 소장본은 모두 12책인데, 400자 원고지로 되어 있다. 갈색의 두터운 종이로 표지를 만들어 놓았고 표지에는 원고의 시작되는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가 쓰여 있다. 즉 ‘분다-빙다, 시-싫, 외-유, 우층-윙윙’ 등으로 쓰여 있다.

본문은 검은색 펜으로 쓰여 있는데 곳곳에 검은 색 펜과 붉은 색 펜으로 수정한 부분이 보인다. 어느 쪽에는 종이를 오려서 내용을 쓴 후 붙인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 각 책의 원고지 매수는 일정하지 않다.

그 책에 따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권수 표시	항목 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쪽수
1	제3권	1447-1505	분다 - 빙다	303쪽
2	제4권	1890-1961	시 - 싫	390쪽
3	권수표시 없음	2253-2269	외 - 우층통행	372쪽
4	권수표시 없음	2299-2339	우층 - 윙윙	284쪽
5	권수표시 없음	2339-2379	유 - 윗판	
6	권수표시 없음	2379-2412	으 - 잇만이	
7	제5권	2666-2712	절용-제밀	
8	권수표시 없음	2803-2848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9	제6권 (6의1)	3125-3199	ㅌ - 팀파니	
10	제6권 (6의2)	3199-3298	ㅍ - 핑핑히	
11	권수표시 없음	3372-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	180쪽
12	여별	3298-3385	ㅎ - 허리(큰사전원고 (여별))	433쪽

<독립기념관 소장본>

	권수 표시	항목 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쪽수
1	5의 1	1-240	ㅈ-잡제	347쪽
2	5의 8	1473의 1-1667	찌그러지다-진도바리	235쪽
3	5의 11	201-399	척사윤음-청찰	228쪽
4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영다	391쪽
5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418쪽

○ 서지기술

- (1) 책명: 조선말큰사전 원고
- (2) 저자 : 조선어학회
- (3) 발행소 : 미간
- (4) 발행연도 : 1929년부터 편찬 시작

- (5) 판종 : 필사본
 (6) 지질 : 양지
 (7) 소장자 :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8) 책광 : 19.5×26.9 cm
 (9) 판광 :
 (10) 판식 :
 (11) 장수 : 한글학회 400자 원고지 12책, 독립기념관 400자 원고지 5책
 (12) 보존상태 : 양호한 편
 (13) 내용
- 이 원고를 바탕으로 하여 1947년에 1권과 2권은 『조선말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3권부터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학회의 이름이 조선어학회에서 한글학회로 바뀐 것이 그 이유다. 연활자본의 B5판으로 6권으로 간행되었는데 본문은 3,672면, 기타 132면, 총 3,804면으로 을유문화사에서 간행하였다. 순우리말·한자말·외래어·관용어·사투리·은어(변말)·결말을 비롯하여 고유명사·전문어·제도어·고어(옛말)·이두 등 총 16만 4125어휘를 수집하여 국어로 뜻풀이하였다.
 - 이 사전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어 작업에 들어간 지 28년 만인 1957년 10월 9일 완간되었다.
 - 이 사전의 편찬을 위하여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를 두고 신명균(申明均)·이극로(李克魯)·이운재(李允宰)·이중화(李重華)·최현배(崔鉉培) 등 5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극로·이운재·한징(韓澄)·이용기·김선기(金善琪) 등 5명을 편찬원으로 선정하였다.
 - 1936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선어학회에 통합된 뒤, 전임 집필위원으로 이극로·이운재·정인승(鄭寅承)·한징·이중화 등 5명이 선임되고, 권승욱·권덕규(權惠奎)·정태진(丁泰鎭) 등 3명이 증원되었다.
 - 1945년 9월 8일 정인승·이극로·김병제(金炳濟)·이중화·정태진·이강로(李江魯)·신영철 등 7명이 편찬원으로 참가하였고, 1956년 4월부터는 정인승·권승욱·유제한(柳濟漢)·이강로·김민수(金敏洙) 등 5명이 집필을 하고, 한중수·이승화·정재도 등 3명이 교정을 맡았다.
 - 어휘 수집은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 만든 약간의 어휘 카드, 약 7만 어휘를 간략히 주석한 이상춘(李常春)의 기증원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선어사전》(1920), 게일(Gale, J.S.)의 《한영사전》(1897) 및 당시의 간행물에 의존하였으며, 사투리는 《한글》 독자와 방학 동안 귀향하는 학생들에 의하여 수집되었다.
 -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을 주도하였던 학자들이 검거되었다. 함경도 함흥재판소는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은 민족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최종판결하여 1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운재와 한징은 심한 고문으로 옥사하기도 했다.
 - 이 사건의 증거물로 일제에 압수당했던 원고 2만 6500여장은 1945년 9월에 서울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남아 있는 조선말큰사전 원고이다. 그러나 남아 있는 원고는 조선말큰사전을 편찬할 때의 원고 모두가 아니고 그 일부뿐이어서, 그 일실(逸失)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안타까울 뿐이다.
- (14) 의의
- 이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민족운동 및 독립운동의 산 증거이며, 또한 우리 스

스로 우리 국어사전을 최초로 간행한 국어사전의 원고이므로 한글 및 국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이다. 현재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명 칭 :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 소 유 자 : 한글학회 및 독립기념관
- 수 량 : 총17권(한글학회 12권, 독립기념관 5권)
- 규 격 : 19.5×26.9cm
- 재 질 : 종이(원고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원고본
- 현 상
 -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어 조선어사전 편찬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신명균·이극로·이운재·이중화·최현배 등 5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이극로·이운재·한징·이용기·김선기 등 5명을 편찬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1936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선어학회에 통합된 뒤, 전임 집행위원으로 이극로·이운재·정인승·한징·이중화 등 5명이 선임되고, 권승욱·권덕규·정태진 등 3명이 증원되었다. 1945년 9월 8일 정인승·이극로·김병제·이중화·정태진·이강로·신영철 등 7명이 편찬원으로 참가하였다.
 - 이러한 오랜 작업의 결과로 1947년 10월 9일 「조선말큰사전」 제1권이 간행되었고, 이후 1949년 5월 5일 제2권이 간행된 바 있다. 이후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개칭되면서 3권부터의 각 권 및 판차가 달라져 1·2권의 지은이가 한글학회로 바뀌고 책명도 「큰사전」이 되었다. 1957년 10월 9일 사전 편찬 작업에 들어간 지 28년 만에 총 6권으로 완간되었다.
 - 이 원고는 이 사전을 만들 때 작성하였던 원고 중 일부로 한글학회에서 12권, 독립기념관에서 5권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원고는 두 종류(원본과 복제본)로 구분된다. 원본의 경우에는 원고가 작성된 후 빨간색 펜으로 교정되는 과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만, 복제본의 경우에는 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옮겨 쓰기만 했기 때문에 교정 흔적이 없다. 한국전쟁 때문에 원고가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제본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독립기념관과 한글학회에서 나누어 보관하고 있으나, 한글학회의 경우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서둘러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 이 사전은 그뒤의 국어사전들과 다른 특징은 표제어의 배열을 겹닿소리글자의 어휘들을 “가, 가, 거, …… 까, 까, 꺼, 께, ……”의 차례가 아니라 “가, 까, 거, 꺼, ……”의 차례로 하고 있다.
 - 이 사전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반어 뿐만 아니라 전문어·제도어·고유명사·옛말·이두 등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표준말’(1936)에 따라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분하면서, 비표준어와 버려야 할 말에 특별한 표지를 하여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는 1929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조선어사전편찬회

가 조선어학회와 한글학회로 이어지면서 무려 28년 동안 작업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말에 있어서 조선어말살 정책에 맞서 민족어를 보존하고자 했던 국어학자들의 땀과 열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1942년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은 그 좋은 예이다. 당시 일본 경찰은 이 원고를 압수하고 사건의 증거물로 사용하기도 했다.

- 그런데 해방이 된 후 경성역 창고에서 이 원고가 발견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해방 직후 독립국가로서 공식언어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던 대한민국이 국가적, 학문적 역량을 결집하여 「조선말큰사전」 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한 것이다.
- 이처럼 민족사의 고난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글학회 소장본과 독립기념관 소장본 모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경북대학교 교수(국어학)>

- 명 칭 : 조선말 큰사전 원고
- 소 유 자 : 한글학회(총 12권) 및 독립기념관(총 5권)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4. 한글학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 량 : 17권(한글학회 12권, 독립기념관 5권)
- 규 격 : 책 크기 19.5×26.9cm
- 재 질 : 양지(洋紙)의 원고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필사본
- 형 식 : 검정색 실끈으로 2개소 좌철 장정
- 조성연대 : 한글학회가 1929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한 후 한 권씩 차례대로 총 6권이 간행되었다. 마지막 6권의 간행 연도가 1957년도이므로 원고지 작성과 수정 작업도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다. 1929년-1942년 사이.
- 현 상
-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에 12권, 독립기념관에 5권 도합 15권이 보존되어 있다. 각 권은 원고지를 가제본하여 묶은 책자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자료는 「큰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한 어휘 항목 정리 및 수정 내용을 필사한 것이다. 원고지에 작성된 각각의 표제어와 뜻풀이 내용이 필사되어 있고, 사이 사이에 가필과 수정이 다수 가해져 있다.

<한글학회 소장본>

각 권의 외표지는 갈색 양지이며, 본문은 400자 원고지에 작성되어 있다. 표지에는 시작 표제어와 끝 표제어가 표기되어 있다. 표기에 3권으로 표기된 것이 1책이고, 4권으로 표기된 것이 6책, 5권 표기가 2책, 6권은 6의1, 6의2로 구분하여 2책이다. 제6권 중에는 ‘큰사전원고(여벌)’이라 하여 두툼한 분량에 ‘ㅎ-허리’ 향이 표기되어 있다. 원고지는 변색되고 마모가 있으며, 원고지 본문에는 오려 붙인 종이에 수정한 내용을 써넣고 붙인 것이 적지 않다.

<독립기념관 소장본>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모두 5책인데 두 책은 권차 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 중 5권은 그 11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없어진 책이 여럿 있다. 한글학회 소장본에 5권에 해당하는 것이 2권이 있으니 현전하는 5권은 모두 다섯 책이 된다. 11번이 끝번이라고 하더라도 5권 안에서만 모두 6책이 유실

된 셈이다.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한글학회 소장본과 책의 형태와 서지, 수정 사항 표시 방법 등이 모두 같다.

○ 내용 및 특징 :

<한글학회 소장본>

각 권에 들어간 표제어와 원고지에 부여된 쪽수는 다음과 같다.

- 3권 - 분다~빙다 (1447~1505 연필로 기재)
- 4권 - 시~싫 (1890~1961 연필 기재)
 - 외~우측통행 (2253~2299)
 - 우측~윙윙 (2299~2339)
 - 유~윙관 (2339~2379)
 - 으~읏만이 (2379~2412)
- 5권 - 절용~제밑 (2666~2712)
 - 주청사~찌그러뜨리다 (2803~2848)
- 6권(6의1) - ㅌ~팀파니 (3125~3199)
- 6의2) - ㅍ~핑핑히 (3199~3298)
 - 핸드-오르간~현훈증[쫓] (3372~34011?)
- (여벌) - ㅎ~허리 (3298~3385)

<독립기념관 소장본>

- 5의 1 - ㅈ-잡제 (1-240)
- 5의 8 - 찌그러-지다~진도-바리 (1473의1-1667)
- 5의 11 - 척사-윤음~칭찰 (201-399)
- ?권 - 여~열다
- ?권 - ㅎ~핸드-백 (하단에 '일'을 썼다가 지우고 '1'이라 적음)

?표로 표기해 놓은 것은 권수를 모르는 것이며, 2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의 한글학회 소장본과 비교해 보면 'ㅎ~핸드-백'이 표기된 책은 6의3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열다'가 표기된 책은 제4권 중의 하나에 비정할 수 있다.

겉표지의 장정 방법과 원고지 지질, 내용의 수정 방법 등은 두 기관 소장본이 모두 같다.

○ 문헌자료

- 한글학회50년사(한글학회, 1971)
- 新國語學史(金敏洙, 一潮閣, 1981)
- 국어사전편찬론(조재수, 과학사, 1984)

○ 기 타(소장 경위 등, 없을 경우 생략)

- 「큰사전」은 한글학회가 1929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한 후 한 권씩 차례대로 총 6권이 간행되었다. 각권의 발행일은 1권이 1947년 10월 9일, 2권이 1949년 5월 5일, 3권이 1950년 6월 1일, 4권이 1957년 8월 30일, 5권이 1957년 6월 30일, 6권이 1957년 10월 9일이다. 원고본 전체가 한글학회 사무실에 소장되어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했듯이 원고의 일부가 독립기념관에 이관되어 있다.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1985년 9월 18일에 한글학회로부터 기증 받았다고 한다. 「큰사전」 편찬이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민족의 언어를 지키려는 학자들의 애국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자는 원고에 담긴 숭고한 뜻을 널리 선양하고, 이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기관에서 통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국어사전 「큰사전」은 한글학회가 엮은 최초의 종합적인 대규모 국어사전이다.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를 두고 신명균(申明均), 이극로(李克魯), 이윤재(李允宰), 이중화(李重華), 최현배(崔鉉培) 등 5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극로·이윤재·한징(韓澄)·이용기·김선기(金善琪) 등 5명을 편찬원으로 선정하였다. 나중에 1936년에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선어학회에 통합된 뒤, 전임 집필위원으로 이극로·이윤재·정인승(鄭寅承)·한징·이중화 등 5명이 선임되고, 권승욱·권덕규(權惠奎)·정태진(丁泰鎭) 등 3명이 증원되었다. 1945년 9월에는 정인승, 이극로, 김병제, 이중화, 정태진, 이강로, 신영철 등 7명이 편찬원으로 참가하였다. 당대의 중요한 학자가 모두 참가하여, 국민적 염원이었던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 간행한 것이다.
 - 「큰사전」의 원고본들은 우리 민족의 국어생활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큰사전」 간행의 밑바탕이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재 등록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종합의견 :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가 1929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당시의 국어학자와 인접 분야의 학자들이 총동원되어 이룩한 「큰사전」의 원고본이다.

라. 국한회어

- 1) 명 칭 : 국한회어(國漢會語)
- 2)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 3)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4) 수 량 : 2권
- 5) 규 격
 - 건(乾) : 20.3×31.2cm
 - 곤(坤) : 20.6×32.2cm
- 6) 발행주체 : 이준영, 정현, 이기영, 이명선, 강진희
- 7) 재 질 : 종이(한지)
- 8) 조성연대 : 1895년
- 9) 조사자 의견

<전 연세대학교 ○○○ 교수(국어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국한회어(國漢會語)
-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규장각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규장각
- 수 량 : 2권
- 규 격 : 乾 20.3×31.2cm, 坤 20.6×32.2cm
- 재 질 : 한지[楮紙]
- 판 종(서지의 경우) : 필사본
- 형 식 : 5침장정의 동장본(東裝本)
- 조성연대 : 1895년
- 현 상

-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필사본으로서 乾 坤의 2책으로 되어 있다. ‘國漢會話’라는 表紙題가 있는 표지만 右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左綴로 되어 있다. 우철이 아닌 좌철이 된 것은 이 책이 가로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식이 없이 無界로, 각면을 좌우 2단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각단은 대개 24행으로 되어 있다. 각행에 대개 하나의 표제항과 이에 대한 漢字釋 또는 漢文釋(또는 英文釋이 첨가되기도 하다)이 달려 있다.
- 이 책의 첫째책인 ‘國漢會話 乾’(표지제)은 다시 ‘국문자집 상’과 ‘국문자집 하’로 나뉘어 있는데 ‘국문자집 상’은 58장, 그 ‘하’는 119장이다. 국한회화 건의 표지제가 붙어 있는 둘째 책은 좌철의 앞쪽(그러나 표지제가 있는 표지로 볼 때에는 책의 말미)에 서문 1장이 붙어 있고 이에 이어 ‘朝鮮國漢會語終’이라 되어 있는 1장과 본문 185장이 있다. 그래서 이 국한회어는 건책이 177장, 곤책이 187장, 모두 364장으로 되어 있다. 每面이 좌우 2단으로 되어 있고 각단에 24개의 표제항이 있는 체재로 되어 있으므로 건곤 각책에는 각각 약 17000개씩의 표제항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건책은 草稿이고 곤책은 이 초고를 증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건책에 들어 있는 항목은 곤책에 그대로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곤책은 24행인 1단에 평균 12개 정도의 항목을 추가로 행간이나 여백에 쓰고 석을 붙였다. 따라서 곤책에 들어 있는 표제항은 건책에 들어 있는 표제항보다 훨씬 많아 곤책에 들어 있는 표제항이 이 사전의 어휘수가 될 것이다. 곤책에 수록되어 있는 표제항수는 약 27,000개가 되므로 국한회어의 어휘수는 27,000여 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입력한 자료를 보면 모두 25,520개의 표제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한회어는 1895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곤책에 붙어 있는 서문에 ‘大朝鮮開國 五百四年乙未秋八月上澣序’라 되어 있어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서문에는 사전의 편찬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사전편찬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1895년에 그 편찬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곤책도 완전히 마무리된, 완성된 사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건책을 편찬한 후 이를 다시 배열하여 다른 곳에 옮겨쓴 후 행간이나 여백에 단어를 보충하여 곤책을 만들었으니 이 사전의 편찬자들은 이 곤책을 정리하여 청서하려 하였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결국 이 국한회어는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사전의 편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음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다른 기록이 없어 그 과정은 알 수 없다. 단지 이 사전은 1890년 후에 착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분이다. 왜냐하면 이 사전의 한문석을 담당하였던 鄭玟이 1890년에 문과에 등과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하기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국한회어는 李準榮, 鄭玟, 李琪榮, 李明善, 姜璉熙의 다섯 사람이 힘을 모아 편찬한 사전이다. 서문의 글에 그 기록이 보인다.

國文解	前主殿司長	李準榮
漢文釋	前承文院副正字	鄭玟
記錄士	前主事	李琪榮
編輯士		李明善
校訂		姜璉熙

- 국문으로 된 표제항은 이준영이, 이 표제항에 대한 한문, 한자석은 정현이, 그

리고 편집 교정 기록은 각각 이명선 강진희 이기영이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건책에는 한문석에 영문석을 첨가한 것이 곳곳에 보이는데(건책에만 보일 뿐 곤책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영문석은 교정자인 강진희가 하였을 것이다.

- 이 책은 처음에 ‘國漢會話’라는 題名을 붙였었지만 정리된 책에는 모두 ‘國漢會語’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책의 원명은 ‘국한회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서지기술

- (1) 책명: 국한회어
- (2) 저자 : 이준영, 정현, 이기영, 이명선, 강진희
- (3) 발행소 : 미간
- (4) 발행연도 : 1895년
- (5) 판종 : 필사본 乾坤 2책
- (6) 지질 : 저지
- (7) 소장자 : 서울대 규장각도서
- (8) 책광 : 건 20.3×31.2cm 곤 20.6×32.2cm
- (9) 판광 :
- (10) 판식 :
- (11) 장수 : 건 177장, 곤 187장, 모두 364장
- (12) 보존상태 : 양호한 편
- (13) 내용

- 1895년에 李準榮 鄭玆 李琪榮 李明善 姜璉熙에 의하여 우리 국어를 표제어로 하여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대역사전이다. 이 「국한회어」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필사본으로서 건 곤의 2책으로 되어 있다. 건·곤 각책에는 약 17,000개씩의 표제항이 있다. 그러나 건책은 초고이고 곤책은 이 초고를 정리·증보한 것이기 때문에 건책에 들어 있는 약 25,000개의 표제항이 이 사전의 어휘수가 된다.
- 곤책의 서문에서 보듯이 「국한회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져서 四隣이 講和할 때에 언어를 통해서 그 情誼의 친소가 결정되므로 통역할 기준과 틀을 설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 라고 생각하여 편찬된 것이다.
- 「국한회어」의 편찬동기는 그 이후에 나온 조선광문회의 ‘말모이’나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과는 다르다. ‘말모이’는 민족계몽사상에 입각하여 만들어졌고, ‘조선어사전’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정책적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국한회어」는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신문화·문명의 도입이라는, 개화기의 개화사상에서 편찬된 것이다. 이것은 1895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일치한다. 1894년의 갑오경장에서부터 1895년의 을미개혁에 이르기까지의 개화초기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 「국한회어」의 표제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 및 학문에 대한 용어가 매우 많이 실려 있는 것이다.
- 「국한회어」가 이 사전의 표제어에 대해 국문으로 주해를 하지 않고 한자·한문으로 풀이를 한 것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해석될 수 있다. 1894년에 법령이나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으로 번역하여 붙이며 혹 國漢文을 混用한다는 칙령 등은 「국한회어」의 「國文으로 語之柄을 建하며 漢文으로 語之義을 釋하고」와 상통되는 것이다. 「국한회어」는 문자 그대로 ‘국문을 한문으로 풀이한 말모음’이라는 뜻이다. 이 사전에서는 ‘國文’이란 말을 사용하고 ‘諺文’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

다. “國文으로 語之柄을 建하며”, “國文의 隔入相生한 本例을 踵하고”, “國文解”등에서 보이는데 이것은 개인의 글이나 저술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會語’란 말이 뒤에 ‘말모이’와 연관되어 주목되는 것이다.

- 이 「국한회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국어를 표제어로 하여 만든 최초의 국어사전이다. 따라서 이 「국한회어」는 사전편찬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한회어」는 그 가치가 우선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전의 표기법을 통하여 19세기말의 음운론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또한 어휘사와 국어학사 연구에도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 횡서로 되어 있어 표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좌綴(左綴)로 되어 있다. 판식(版式)이 없이 무계(無界)로, 2단으로 된 각 면에는 48개씩의 한글로 된 표제항과 이에 대한 한자 또는 한문석(漢文釋: 건책에는 영문대역이 첨가되기도 함)이 있다.
- 내용이 사전의 표제항은 고유어와 한자어를 포괄하는 단어, 한자의 석음(釋音: 가늘 세, 細), 구(句: 가시에 썰니다, 간에 바람이 들다), 고사성어(설하장팔십一舌下杖八十), 속담·격언(개 보름 쇠듯 한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신어(新語: 헌법·정치학·경찰관·수학·화학·자전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도기적인 언어사전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건책의 끝에는 구미(歐美) 계통의 지명을 한자어를 표제항으로 하고, 영어로 풀이하여 모아 놓았다.
- 표제어의 배열은 자음은 현대의 철자법과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으나, 모음은 ‘아애야어에예오외요우위유으의이와왜워웨’의 순서로 되어 있다.
- 이 사전은 사전편찬사상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이 사전의 표기법을 통하여 19세기 말의 음운론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어휘사연구와 사전학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14) 의의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국어를 표제어로 만든 최초의 국어 대역사전이다. 따라서 한글 연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중요한 문화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명 칭 : 국한회어
-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 소 재 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수 량 : 2책(건, 곤)
- 규 격 : 건 20.3×31.2cm 곤 20.6×32.2cm
- 재 질 : 한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필사본
- 조성연대 : 1895년
- 현 상
 - 이준영(李準榮)·정현(鄭玟)·이기영(李琪榮)·이명선(李明善)·강진희(姜璉熙)가 편찬한 국한대역사전이다. 건책(乾冊) 177장, 곤책(坤冊) 187장 도합 364장으로 되어 있다. 건책은 초고이고 곤책은 건책의 정리·증보본으로 볼 수 있다. 곤(坤)책

의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1895년에 이루어졌고, 국문석(國文釋)·한문석·편집·교정·기록은 각각 이준영·정현·이명선·강진희·이기영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표지에는 ‘국한회화(國漢會話)’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지에는 ‘국한회어(國漢會語)’로 표기되어 있다.(내지를 따라 명칭을 ‘국한회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가로쓰기로 되어 있어 표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좌철(左綴)로 되어 있다.
- 각 페이지는 좌우 2단으로 되어 있고 각 단은 대개 24행으로 되어 있다. 한글로 된 표제항과 이에 대한 한자 또는 한문석(漢文釋: 건책에는 영문대역이 첨가되어 있기도 하다)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 곤책의 표제항수에 해당하는 약 2만 5천개의 어휘가 실려 있다. 이 사전의 표제항은 고유어와 한자어를 포괄하는 단어, 한자의 석음(釋音), 구(句), 고사성어, 속담·격언·신어(新語)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건책의 끝에는 구미(歐美) 계통의 지명을 한자어를 표제항으로 하고, 영어로 풀이하여 모아놓기도 했다.
 - 표제어의 배열은 자음은 현대의 철자법과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으나, 모음은 ‘아애야어에에오외요우위유으의이와왜워웨’의 순서로 되어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사전은 한국인에 의해서 한국어를 표제어로 하여 편찬된 최초의 국한대역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표지명이 ‘국문을 한자나 한문으로 풀이한 말모음’이라는 뜻의 ‘국한회화’로 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를 한자나 한자어 또는 한문으로 풀이한 일종의 대역사전이다.
 - 이런 대역사전이 필요했던 것은 19세기말 신문화·신문명이 도입되면서 개화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통역의 중요성 또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25,000개의 표제항 중 헌법·정치학·경찰관·수학·화학·자전거 등 여러 신어(新語)들이 발견되기도 하며, 건책의 끝에는 구미(歐美) 계통의 지명을 한자어를 표제항으로 하고, 영어로 풀이하여 모아놓기도 했다.
 - 국어학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사전은 사전편찬사상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표제에 해당하는 ‘會語’는 뒤에 광문회에서 편찬을 주도했던 국어사전 「말모이」와 연관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諺文’이라는 말 대신에 ‘國文’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사전 편찬사에서의 의의 뿐만 아니라 사전의 표기법을 통하여 19세기 말의 음운론, 어휘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경북대학교 교수(국어학)>

- 명 칭 : 국한회어(國漢會語)
-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규장각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내 규장각 서고
- 수 량 : 2권
- 규 격 : 책 크기 (건-20.3×31.2) (곤-20.6×32.2)
- 재 질 : 닥종이
- 판 종(서지의 경우) : 필사본
- 형 식 : 전통적 한지 표기에 5침의 장정인데 좌철로 된 점이 특징적임

○ 조성연대 : 1895년

○ 현 상

- 국어사전 편찬용으로 편찬한 원고본으로 건, 곤 2책으로 되어 있음.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 표제어에 한문으로 풀이말을 붙인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이 책의 표지에는 책 제목이 ‘國漢會話’라 묵서되어 있다. 책의 내지 혹은 본문 상란에 ‘學部圖書’, ‘朝鮮總督府圖書之印’, ‘京城帝國大學圖書章’, ‘서울大學校圖書’ 등 여러 개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권두 내지에는 ‘奎22658’이라는 규장각 도서 번호가 찍혀 있다.
- 「국한회어」의 편찬에 관계한 인물은 서문의 끝에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國文解	前主殿司長	李準榮
漢文釋	前承文院副正字	鄭玟
記錄士	前主事	李琪榮
編輯士		李明善
校訂		姜璉熙

- 「국한회어」의 필체를 검토해 보면 3인 이상의 필사자가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의 필체에 경상방언 요소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홍윤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국문해를 담당했던 李準榮은 당시 외부대신, 법무대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낸 李夏榮(1858-1919)의 동생이다. 이 하영이 경주 출신이므로 동생인 이준영도 경주 출신일 것이다. 기록사였던 李琪榮은 李準榮의 동생일 가능성이 있다. 「국한회어」에 경상방언 요소가 다수 반영된 배경은 여기에 있다.

○ 내용 및 특징

- 전통적 고서 형태(한장본韓裝本)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책의 형식은 매우 이색적이다. 책의 장정은 우철(右綴) 5침 선장본이고, 표지 서명은 일반 고서와 같이 우철 표지의 좌단에 묵서되어 있다. 그러나 책의 서문과 본문의 필서 방식은 현대 양장본 책의 좌철본처럼 좌에서 우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표지서명은 동일하지만 책의 서문과 본문은 맨 끝장에서 시작하여 좌에서 우 방향으로 진행된 이상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문의 문장 전개 방향은 양장본처럼 좌에서 우 방향으로 진행된다. 서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세로쓰기가 아닌 가로쓰기라는 획기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 표제어의 배열 순서를 가나다라 순으로 한 점도 획기적이다. 표제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풀이말을 한문으로 표기한 방식도 획기적이다. 이 책이 나오기 이전의 모든 어휘집(훈몽자회, 유합, 물명고 등)은 한자어가 표제어이고 한글은 뜻풀이에 들어가 있다. 이 책은 한장본(韓裝本)과 양장본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표제어와 뜻풀이말의 문자사용에서도 과도기적 모습을 보인다. 「국한회어」이후의 국어사전은 표제어도 한글, 뜻풀이말도 한글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표제어와 뜻풀이말의 문자 표기 방식은 <한자-한글>(훈몽자회 등), <한글-한자>(국한회어), <한글-한글>(큰사전 등)로 변화하였다. 이 흐름 속에서 「국한회어」는 중간의 과도기 모습을 보이는 문헌이다.

○ 문헌자료

- 홍윤표(1985), 최초의 국어사전 「국한회어」에 대하여, 「백민 전재호박사 화갑기념 국어학논총」, 형설출판사.
- 백두현(1998), 「국한회어」의 음운 현상과 경상방언, 「방언학과 국어학」(청

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 「國漢會語」, 1986. 太學社.

○ 기 타

- 이 책의 편찬에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이하영의 동생 이준영이 참여하였고, 관직 경력이 있는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책은 정부 기관의 위촉과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책이 출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원고본으로 남게 된 것은 개화기의 혼란한 정국으로 사람이 자주 바뀌어 도중에 중단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에서 추진한 편찬 사업이어서 그 원고본도 국가 기관에 보관되었고, 학부 장서인 등 많은 장서인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국한회어」는 정부에서 시도한 최초의 국어사전 편찬 원고라 할 수 있다. 표제어의 배열 방식이 이전 시기의 어휘집(훈몽자회 등)과 달리 한글 표제어를 세우고 한문 뜻풀이를 한 점도 국어사전 역사에서 과도기적 혁신을 보인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한회어」 이후의 국어사전은 표제어도 한글, 뜻풀이말도 한글로 표기되어 과도기를 벗어나게 된다. 표제어와 뜻풀이항의 문자 표기 방식은 <한자-한글>(훈몽자회 등), <한글-한자>(국한회어), <한글-한글>(큰사전 등)로 변화하였다. 이 흐름 속에서 「국한회어」는 중간적 과도기 모습을 보이는 문헌인 것이다. 뜻풀이항에 영어 단어를 이용한 점도 시대적 역사성을 보여 준다. 한문이 퇴조하고 영어가 한국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첫 징후를 이 문헌에서 관찰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배열 순서 역시 가나다 순(자모순)으로 하여 획기적 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런 순서 역시 영어 사전의 자모순 배열에 영향을 받은 것임이 확실하다.

- 앞에서 언급한 책의 장정법과 본문의 전개 방향 역시 한장본과 양장본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책이 이루어진 1895년의 개화기의 역사적 과도성과 이 책의 과도기적 성격은 서로 잘 부합된다.

- 정부가 시도한 최초의 국어사전이라는 점과 획기적이면서도 과도기적 본문 전개 등이 갖는 역사성을 감안할 때 이 책은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 종합의견 : 「국한회어」(國漢會語)는 정부가 시도한 최초의 국어사전이라는 점과 획기적이면서도 과도기적 본문 형식 등이 갖는 역사성을 감안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마. 국어문법 원고

- 1) 명 칭 : 국어문법(國語文法) 원고
- 2) 소 유 자 : 한글학회
- 3)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 4) 수 량 : 1권
- 5) 규 격 : 15.7×23.5cm
- 6) 저 자 : 주시경
- 7) 재 질 : 종이(양지)
- 8) 조성연대 : 1909년
- 9) 조사자 의견

<전 연세대학교 ○○○ 교수(국어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국어문법(주시경 친필 원고본)
- 소 유 자 : 한글학회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4
- 수 량 : 1책
- 규 격 : 12.6×19.3cm
- 재 질 : 인쇄된 양지 원고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필사본
- 형 식 : 5침 장정
- 조성연대 : 1909년
- 현 상

- 이 책은 청색으로 줄을 친 세로 12행의 원고지에 붓으로 정성들여 쓴 원고본이다. 이 원고지는 그 당시에 시중에서 인쇄하여 판매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은 우편 하단에 ‘京城北內印行’이라 쓰인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 표지는 일반 한적과 같은 표지로 5침장정으로 되어 있다. 내지에는 ‘出版許可’ ‘檢閱濟’ ‘紙數七十六枚’ ‘內部警務局印’이란 인기가 있고 중간에 ‘周時經’이란 도장이 찍혀 있어서 저자가 주시경이며, 이것을 경무국에서 검열하여 출판을 허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주시경 선생의 친필원고임이 틀림없다.
- 표지제목은 없고 내용이 없는 원고지 3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내지 제목이 있는 면이 나온다. 내지 제목은 ‘國語文法’이라고 墨書로 쓰여 있다. 이어서 ‘序’가 4쪽이 있는데 그 끝에 ‘隆熙三年 七月 日 周時經 序’라 되어 있어서 이 원고본이 1909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이어서 ‘국어문법’이라는 제목이 다시 나오고 ‘國文音學大要’가 나오고 ‘訓民正音’, ‘기간달’ ‘짬뽕갈’ 등이 계속된다. 모두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곳곳에 수장한 부분이 보인다. 책의 쪽과 쪽 사이에는 ‘務局印’이라는 검열 도장이 모두 찍혀 있어서 1909년 당시에 일본의 검열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모두 76장으로 되어 있다.
- 끝에는 판권지가 쓰여 있는데

隆熙三年十月 日 印刷
 隆熙三年十月 日 發行
 京城西部養生坊倉洞三十一統四戶
 著作兼發行者 周時經
 京城中部青進坊松峴十六統二戶
 印刷者 金漢洙
 京城 中部壽洞
 印刷所 同文館
 京城南部尙洞
 發行所 博文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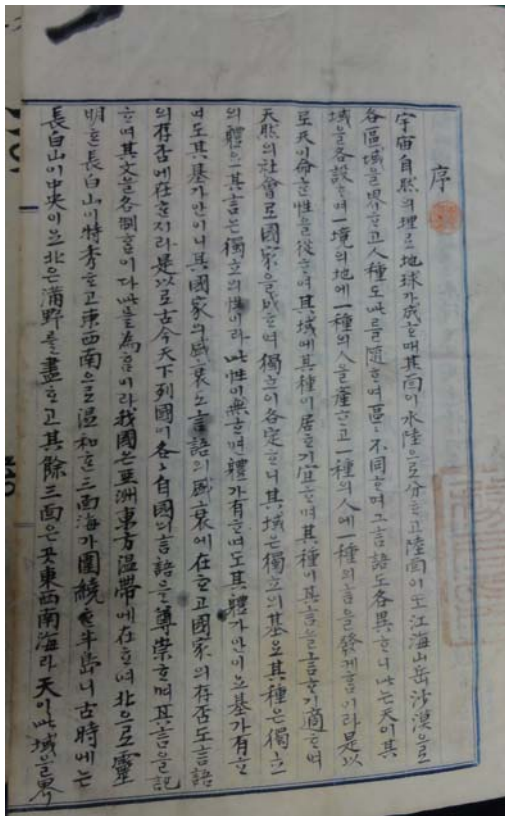
이라 되어 있다. 주시경 선생의 주소지가 ‘京城西部養生坊倉洞三十一統四戶’임을 알 수 있다.

- 서지기술

(1) 책명: 國語文法

- (2) 저자 : 주시경(1876-1914)
- (3) 발행소 : 미간
- (4) 필사연도 : 1909년
- (5) 발행연도: 책은 1910년 박문서관에서 간행
- (6) 판중 : 필사본, 원고본
- (7) 지질 : 양지
- (8) 소장자 : 한글학회
- (9) 책광 : 15.7×23.5cm
- (10) 판광 : 12.6×19.3cm
- (11) 판식 : 四周雙邊
- (12) 장수 : 76장
- (13) 보존상태 : 매우 양호한 편
- (14) 내용
 - 주시경 선생의 저서 가운데 <국어문법(國語文法)>은 1910년 박문서관에서 납활자본으로 펴낸 책으로, 현대문법의 종합적인 체계를 개척하여 오늘날 정서법의 자리를 굳힌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기본이론을 세운 귀중한 책이다. 책의 내용은 소리갈(音聲論)·기난갈(씨갈:品詞論)·짚듬갈(월갈:構文論) 등 3가지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그런데 이 '국어문법'의 주시경 선생의 육필 원본이 바로 한글학회 소장의 '국어문법'원고이다.
 - 이 책은 그동안 한글학회에서 보관하여 오던 것인데, 한글학회 회장이었던 고 허응 선생께서 생전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 오다가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한글학회 금고에 보관하던 원고본이다. 머리말 끝에 '융희 3년(1909) 7월 주시경 서'라고 적고, 본문을 직접 행을 맞추어 인쇄하도록 편집하여 적은 친필 원고로서, 내부경무국 검열을 받은 흔적과, 붉은 점으로 표시를 하거나, '母音'을 '웃듬소리'로 수정하는 등 교정한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 또 책은 국어 품사를 9개로 갈랐다. 곧, 임(名詞), 옛(形容詞), 움(動詞), 꺾(助詞), 잇(接續詞), 언(冠形詞), 억(副詞), 놀(感歎詞), 꺾(終止詞)으로 나누었는데 문법용어를 순 한글로 표기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책은 1911년 12월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조선어문법>으로 이름을 바꾼다.
 - 세로줄이 쳐진 원고 종이를 접고 끈으로 묶어서 양장본으로 만든 이 책은, 1910년 박문서관에서 간행되었고, 머리말에 1909년 7월이라고 적혀 있다.

원고본의 머리말 부분과 인쇄된 책의 머리말 부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친필 원고본>

宇宙自然의 理로 地球가 成하며 其面이 水陸으로 分하고 陸面은 江海山岳沙漠으로 各區域을 界하고 人種도 此를 隨하여 區區不同하며 그 言語도 各異하니 此는 天이 其域을 各設하여 一境의 地에 一境의 人을 產하고 一境의 人에 一境의 言을 發하게 함이라 是以 天이 命한 性을 從하여 其域에 其種이 居하기 宜하며 其種이 其言을 言하기 適하여 天然의 社會로 國家를 成하여 獨立이 各定하니 其域은 獨立의 基요 其種은 獨立의 體요 其言은 獨立의 性이라 此性이 無하면 體가 有하여 도 基가 安이요 基가 有하여 도 種이 安이니 其國家의 盛衰도 言語의 盛衰에 在하고 國家의 存否도 言語의 存否에 在한지라 是以 古今天下 列國이 各各自國의 言語를 尊崇하며 其言을 記하여 其文을 各制함이라 此를 爲함이라 我國은 亞洲東方 溫帶에 在하여 北으로 靈明한 長白山이 特秀하고 東西南으로 溫和한 三면海가 圍繞한 半島니 古時에는 長白山이 中央이요 北은 滿野를 盡하고 其餘 三면은 東西南南해라 天이 此域을 界하고 我人種을 祖產하고 其音을 命하며 此域에서 此人種이 此音을 發하여 言語를 作하고 其言語로 思想을 相達하여 長白四疆에 繁衍하니 此는 天然特性의 我國語라 本朝 世宗朝 께서 芳繼의 大聖으로 國語에 相當한 文字가 無함을 憂慮하시 國文二十

國語文法 序

<인쇄본>

(14) 의의

우리나라의 위대한 국어학자였던 주시경 선생이 남긴 육필원고로 한글 문화재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명 칭 : 국어문법 원고
- 소유자 : 한글학회
- 수 량 : 1책
- 규 격 : 15.7×23.5cm
- 재 질 : 한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원고본
- 조성연대 : 1909년
- 현 상

- 1910년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국어문법」은 국판 118면으로, 1911년과 1913년에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이라 표제를 바꾸어 재판되기도 하였다. 이 원고본은 「국어문법」의 저자였던 주시경이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며, 책이 출간되기 한 해 전인 융희 3년(1909년) 7월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세로 줄이 쳐진 원고 종이를 접고 끈으로 묶어서 양장본 형태를 갖추었다. 내지에 내부 경무국의 검열과 출판허가를 받은 흔적이 있다. 본문을 직접 행을 맞추어 인쇄하도록 편집하여 적었으며, 군데군데 교열을 보고 문구를 수정한 흔적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 원고의 내용은 인쇄 발행된 『국어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순수한 우리 말을 사용하기 위해 교정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모음(母音)’이라고 적었으나 대각선으로 줄을 긋고 이를 ‘웃뜸소리’로 고쳤다. 또한 ‘자음(子音)’도 ‘붙임소리’로 고쳐 쓴 흔적이 남아 있다.
 - 이 원고에서 주시경은 임[名詞]·엇[形容詞]·움[動詞]·것[助詞]·잇[接續詞]·연[冠形詞]·억[副詞]·놀[感歎詞]·끗[終止詞] 등 아홉 품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문법용어를 순 한글로 표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원고는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기 직전인 1909년 (융희 3)에 주시경이 지은 문법서 「국어문법」의 친필 원고로서 대한제국 시기 국어학 연구를 집대성하고 있다. 그 내용상 현대문법의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기본이론을 확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어의 품사를 아홉 개로 나눈 것 또한 국어학 연구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법 용어를 우리말로 만들어 사용하고자 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경북대학교 교수(국어학)>

- 명 칭 : 「국어문법」(주시경 친필 원고본)
- 소 유 자 : 한글학회
- 소 재 지 : 한글학회(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4)
- 수 량 : 1권
- 규 격 : 책 크기 15.7×23.5cm(12.6×19.3cm)
- 재 질 : 12행의 세로 인쇄 원고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필사본
- 형 식 : 전통적 한지 표기에 5침의 장정
- 조성연대 : 1909년
- 현 상:
 - 이 책의 장정은 한장본(韓裝本)이며 한지로 표지를 만들었는데 표지 서명은 없다. 오침(다섯 구멍)의 선장(線裝)이며 붉은 색의 끈으로 책을 묶었다. 본문은 인쇄된 원고지에 씌어 있는데 ‘京城北內印行’이라는 인쇄 공장이 표기되어 있다. 원고지는 한 면에 12행이고, 앞뒤에 붙은 백지 3장을 제외하면 모두 76장으로 되어 있다.
 - 본문은 국한 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자어가 매우 많다. 이런 문체는 당시 지식인이 일반적으로 쓰던 방식이었다. 글씨체는 매우 반듯한 정자체이다. 이런 정자체는 식자공의 오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본문 속에는 개칠을 하여 고치거나 줄을 주욱 내려가 수정한 곳이 적지 않다. 본문 끝장인 73장 뒷면에 주시경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다. 바로 이어져 나오는 판권지 내용도 손으로 쓴 것이다. 간행 연도가 융희 3년 10월로 예정되어 있고, 저작자 겸 발행자는 주시경이다. 인쇄소는 동문관, 발행소는 박문서관으로 씌어 있다.
 - 본문 속에는 활자 크기를 지정한 숫자(二, 四, 五)가 표시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책은 검열을 마친 후 조판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경이 손질을 가한 조판용 원고본이라 할 만하다.(고영근 1995 참고).
- 내용 및 특징

- 주시경의 「국어문법」은 1910년에 처음 발간되었다. 1911년과 1923년에 두 번에 걸쳐 중판이 나왔고 그 후에도 간행된 국어문법 연구의 명고전이다. 조사 대상이 된 주시경의 친필 원고본 「국어문법」은 그 후 간행된 책의 모본이다. 이 친필 원고본은 간행 직전에 검열을 받은 것이다. 이 책의 내지에 ‘出版許可’, ‘檢閱濟’라는 직사각형 인장이 찍혀 있고, ‘內部警務局印’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큼직하게 찍혀 있다. 그 다음 장에 ‘序’라는 제목으로 3면에 걸쳐 국한 혼용의 서문이 씌어 있다. 서문 말미에 ‘隆熙三年 七月 日 周時經書’가 있고 그 아래 한자로 된 그의 인장이 찍혀 있다. 융희 3년은 1909년이므로 이 원고본은 1909년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 이 원고본을 모본으로 1910년에 간행된 활판본은 그 내용과 용어 사용 등에 다수의 수정이 이루어져 원고본과 활판 간행본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고영근(1995)를 참고할 수 있다.
- 문헌자료
 - 고영근(1995), 주시경 『국어문법』의 형성에 얽힌 문제-검열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Vol. 30.
 - 高永根, 李賢熙(1986), 『校註(周時經) 國語文法』, 塔出版社.
 - 고영근, 이용, 최형용(2011), 「현대어로 풀어 쓴 주시경의 국어문법」, 박이정.
 - 김민수(1977), 「周時經 研究」, 塔出版社.
 - 최규수(2005), 「주시경 문법론과 그 뒤의 연구들」, 박이정.
 - 박종갑(1994), 주시경의 「國語文法」 연구(1), 「영남어문학」 25집, 嶺南語文學會.
 - 최낙복(2003), 「주시경 문법의 연구」. 역락.
 - 김민수(1977), 주시경 저 : 『대한국어문법』 해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Vol.20, No.1.
- 기 타
 - 현재 한글학회에서 이 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주시경 선생이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였고, 이에 따라 이 검열 원고본이 한글학회에 보존되어 내려온 것이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주시경은 1876(고종 13)에 태어나 1914년에 급서한 국어학자이다.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서양 학문을 공부하였고, 국어 연구와 국어 운동을 통해 민족 정기를 세우는 데 몸을 바쳤다.
 -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에게 발탁되어 독립신문 교보원 역할을 하며 신문 제작에 참여하였다. 신학문을 공부하여 흥화학교(興化學校) 양지과(量地科)를 마치고, 정리사(精理舍)에서 수물학을 공부하였다. 주시경은 서양 학문의 이론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어 문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필사본 『국문문법』(1905년), 유인본 『대한국어문법』(1906년), 『국어문전음학』(1908년)과 같은 책을 만들어 학문적 수련을 심화시켰다.
 - 주시경이 1909년에 쓰고 1910년에 활판 간행한 『국어문법』은 수년간 이루어진 그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주시경의 친필본 『국어문법』은 간행 직전의 모습을 보여 주는 책이며, 국어 연구에 바친 그의 열정과 학문적 온축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자료이다.
 - 주시경의 「국어문법」은 국내 학자에 의해 국어 문법 연구가 이루어진 효시라 할 수 있다. 외국 선교사에 의한 한국어 문법 기술은 산발적으로 있었지만 국내학자에 의한 본격적 국어 문법 연구는 주시경의 이 책이 나오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런 점에서 「국어문법」 주시경 원고본은 국어 역사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고, 문화재 등록의 가치가 충분하다.

- 종합의견 : 「국어문법」(주시경 친필 원고본)은 국내 학자에 의해 국어 문법 연구가 이루어진 효시이다. 국내학자에 의한 본격적 국어 문법 연구는 주시경의 이 책이 나오므로써 시작되었다. 「국어문법」(주시경 친필 원고본)은 국어 역사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고, 문화재 등록의 가치가 충분하다.

바. 국문연구안

- 1) 명 칭 : 국문연구안(國文研究安)
- 2)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 3)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도서관
- 4) 수 량 : 7권
- 5) 규격 및 수량

구분	규 격(cm)	수량(장)	비고
권1	15.0×21.0	49	
권2	16.5×22.6	147	
권3	16.5×22.2	74	
권4	16.6×24.6	26	
권5	17.4×24.4	39	
권6	17.2×24.2	63	
권7	17.0×25.2	37	

- 6) 발행주체 : 국문연구소
- 7) 재 질 : 종이(양지)
- 8) 조성연대 : 1907~1909년
- 9) 조사자 의견

<전 연세대학교 ○○○ 교수(국어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국문연구안
-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도서관 육당문고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도서관
- 수 량 : 7권
- 규 격
 - 권1 : 15.0×21.0cm (49장)
 - 권2 : 16.5×22.6cm (147장)
 - 권3 : 16.5×22.2cm (74장)
 - 권4 : 16.6×24.6cm (26장)
 - 권5 : 17.4×24.4cm (39장)
 - 권6 : 17.2×24.2cm (63장)
 - 권7 : 17.0×25.2cm (37장)
- 재 질 : 양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등사본
- 형 식 : 5침장정의 동장본(東裝本)
- 조성연대 : 1907년-1909년

○ 현 상

- 모두 7권의 한적(漢籍)으로 되어 있다. 7권 모두 표지제목은 ‘國文研究案’이고 각권에 따라 ‘卷一, 卷二, 卷三, 卷四, 卷五, 卷六, 卷七’로 되어 있다. 권1, 2, 3과 권7은 작은 글씨로, 그리고 권4, 5, 6은 큰 글씨로 씌여 있다. 그리고 그 글씨도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특히 ‘文’이라는 글자의 서체가 전혀 다르다. 이 책이 卷七로 한 질을 이름은 ‘卷七’에 ‘終’이라 되어 있음을 보고 알 수 있다.
- 책의 크기는 권마다 각각 달라서 이 책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씩 만들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 내지(內紙)에는 ‘六堂文庫’라는 고무인이 찍혀 있고 첫장의 제목 오른쪽 위와 아래에는 각각 ‘亞細亞問題研究所藏書印’과 ‘國文研究所印’이라는 印記가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이 국문연구소를 거쳐 육당문고를 거쳐 다시 아세아문제연구소로 이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第1卷에는 國文研究所規則, 訓民正音, 第一回國文研究案 등이 있는데, 第一回國文研究案에는
 - ① 國文의 淵源 (어윤적, 이능화, 현은, 권보상, 이억, 송기용, 윤돈구)
 - ② 國文淵源參互研究案 (어윤적, 이능화, 권보상, 이억, 윤돈구)
 - ③ 淵源評證案이 있다. (괄호안의 이름은 이 案을 제안한 학자의 이름이다)

第2卷에는

- ① 國文字體及發音의 沿革(이능화, 주시경)
이 있고

第3卷에는

- ① 國文字體及發音의 沿革(第2回) (현은, 권보상, 이억, 송기용, 윤돈구)
이 있다.

第4卷에는

- ① 國文研究所規則
- ② 國文研究 第12回問題 國文淵源字體發音의 沿革 研究議案으로 ‘淵源評證案’
이 있다.

第5卷에는

- ① ㄱ ㄷ ㅂ ㅅ ㅈ 五字 重音의 書定一法 (이능화, 주시경, 지식영, 어윤적, 권보상, 윤돈구, 송기용)
- ② ㄱ ㄷ ㅂ ㅅ ㅈ 五字 重音의 書法一定議案 (이능화, 지식영, 주시경, 어윤적)
- ③ ㅎ ㅎ △ ◇ 四字의 復用當否(이능화, 주시경, 지식영, 어윤적, 권보상, 윤돈구, 송기용)
- ④ ㅎ ㅎ △ ◇ 復用當否(주시경, 지식영, 어윤적, 권보상, 송기용, 윤돈구)
- ⑤ ㅎ ㅎ △ ◇ ㅎ ㅎ △ ◇ ㅎ ㅎ △ ◇ 九字의 復用當否(이능화, 지식영, 주시경)
이 있다

第6卷에는

- ① 中聲에 二字 創製 · 字 廢止 當否 (이능화, 주시경, 지식영, 어윤적, 송기용, 윤돈구, 권보상)
- ② 中聲 二字 創製 · 字 廢止 當否議案 (이능화, 어윤적, 송기용, 권보상)
- ③ 終聲 ㄷ ㅅ 二字의 用法 (이능화, 주시경, 지식영, 어윤적, 송기용, 권보상, 윤돈구)
- ④ 終聲 ㅈ ㅊ ㅋ ㅌ ㄲ ㅎ의 初終聲通用當否 (이능화, 주시경, 지식영, 어윤적, 권보상, 송기용, 윤돈구)
- ⑤ 終聲 ㄷ ㅅ 二字用法 ㅈ ㅊ ㅋ ㅌ ㄲ ㅎ 初終聲에 通用當否議案 (어윤적, 이능화)
가 있다.

第7卷에는

- ① 七音과 淸濁의 如何 (이능화, 어윤적, 송기용, 권보상, 주시경, 윤돈구)
- ② 10回 研究案 (四聲票의 用法, 國語音의 高低法, 字母音讀一定, 字順行順의 序, 綴字法) (어윤적, 권보상, 송기용, 이능화)
이 있다.

초기에 참여하였던 위원 중 어윤적과 현은은 뒤에 참석을 하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이 國文研究案에 들어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당시에 국문과 연관된 문제에 대하여 각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토의를 한 뒤에 한 두 위원이 그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지기술

- (1) 책명: 국문연구안(國文研究案)
- (2) 저자 : 주시경, 이능화, 지식영, 어윤적, 송기용, 권보상, 윤돈구, 어윤적, 현은, 이익 등
- (3) 발행소 : 국문연구소
- (4) 발행연도 : 1907년부터 1909년 사이
- (5) 판종 : 등사본
- (6) 지질 : 양지
- (7) 소장자 : 고려대학교 도서관 육당문고
- (8) 책광 :
 - 권1 : 15.0×21.0cm (49장)
 - 권2 : 16.5×22.6cm (147장)
 - 권3 : 16.5×22.2cm (74장)
 - 권4 : 16.6×24.6cm (26장)
 - 권5 : 17.4×24.4cm (39장)
 - 권6 : 17.2×24.2cm (63장)
 - 권7 : 17.0×25.2cm (37장)
- (8) 보존상태 : 매우 양호한 편
- (9) 내용
 - 1907년 학부 안에 설치한 한글연구기관인 국문연구소에서 제출한 보고서이다.
 - 국문연구소는 학부대신 이재곤(李載崐)의 청의로 각의를 거쳐 1907년 7월

8일에 설치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정음청(正音廳) 설치 이후 한글을 연구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 설립동기는 19세기 말엽부터 문자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별적인 노력은 있었으나, 공동연구에 의한 통일된 문자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있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동기로서는 1905년 7월 지식영(池錫永)이 소청한 <신정국문 新訂國文>을 정부가 재가하여 공포한 결과, 그 내용에 담긴 결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1906년 5월에 이능화(李能和)가 <국문일정의견 國文一定意見>을 학부에 제출하여 우리나라 문자체계의 통일을 역설한 것을 들 수가 있다.

- <국문연구소규칙> 제1조에 “본소에서는 국문의 원리 및 연혁과 현재의 행용(行用) 및 장래발전 등의 방법을 연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직은 개설 당시 위원장에는 학부 학무국장 윤치오(尹致昨), 위원으로 학부 편집국장 장헌식(張憲植), 한성법어학교(漢城法語學校) 교장 이능화, 내부서기관 권보상(權輔相), 그리고 현은·주시경 및 학부 사무관이었던 일본인 우에무라(上村正己)가 임명되었다. 한달 뒤인 8월 19일 학부 편집국장이 경질되면서 장헌식이 해임되고, 어윤적(魚允迪)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 그해 9월 16일에 첫 회의를 열어 <국문연구소규칙>의 작성과 위원의 보선을 논의하여 9월 23일자로 이종일(李鍾一)·이억(李億)·윤돈구(尹敦求)·송기용(宋綺用)·유필근(柳苾根) 등 5명이 새로 임명되었다.
- 1908년 1월에는 지식영이, 6월에는 이민응(李敏應)이 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고, 8월과 10월에는 이억·현은·이종일·유필근이 해임되었다. 활동은 1907년 9월 16일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23회의 회의를 열었는데, 그 최종 회의는 1909년 12월 27일에 있었다. 그동안 위원장은 10회에 걸쳐 모두 14개항의 문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쳐 1909년 12월 28일자로 최종적인 보고서를 학부대신에게 제출하였다.
- 보고서는 <국문연구의정안 國文研究議定案>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8위원의 연구안으로 꾸며졌는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문연구의정안>은 세상에 공포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문연구의정안>은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협동적 노력의 결정으로서, 개화기에 있어서의 국문연구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국문연구의정안>은 앞서 토의에 붙였던 14개항의 문제를 10개항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 ① 국문의 연원과 자체(字體) 및 발음의 연혁,
 - ② 초성 중 ㄱ, △, ◇, ㅁ, ㅂ, ㅅ, ㅈ, ㅊ 여덟 자의 부용(復用) 당부(當否).
 - ③ 초성의 ㄱ, ㄴ, ㅁ, ㅂ, ㅅ, ㅈ 여섯 자 병서(並書)의 서법일정(書法一定),
 - ④ 중성 중 ‘·’자 폐지와 ‘=’자 창제의 당부,
 - ⑤ 중성의 ㄷ, ㅌ 두 자의 용법 및 ㅈ, ㅊ, ㅋ, ㅌ, ㅍ, ㅎ 여섯 자도 중성에 통용 당부.
 - ⑥ 자모(字母)의 7음과 청탁(淸濁)의 구별 여하,
 - ⑦ 사성표(四聲票)의 용부(用否) 및 국어음의 고저법,
 - ⑧ 자모의 음독일정(音讀一定),
 - ⑨ 자순(字順)과 행순(行順)의 일정,
 - ⑩ 철자법 등이었다.
- 국문연구의정안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한 문자체계와 표기법의

통일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를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이 의정안은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의 문자체계와 맞춤법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이 최종보고서의 모든 서류는 일본 동경대학 중앙도서관의 오구라문고(小倉文庫)에 보관되어 있다. 이 서류는 모두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이의 등사본이라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0) 의의

우리나라 문자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로 오늘날의 한글맞춤법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한글 문화재이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명 칭 : 국문연구안
-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도서관
- 수 량 : 7책
- 규 격
 - 권1 : 15.0×21.0cm (49장)
 - 권2 : 16.5×22.6cm (147장)
 - 권3 : 16.5×22.2cm (74장)
 - 권4 : 16.6×24.6cm (26장)
 - 권5 : 17.4×24.4cm (39장)
 - 권6 : 17.2×24.2cm (63장)
 - 권7 : 17.0×25.2cm (37장)
- 재 질 : 종이
- 판 종(서지의 경우) : 유인본
- 조성연대 : 1909년
- 현 상
 - 총 7권으로 된 책으로 각 책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이 책은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9월에 학부 안에 설치된 국문연구소에서 23회의 회의를 거쳐 1909년 12월 28일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해당한다. 권 1에는 국문연구소 직인이 찍혀 있으며, 국문연구소 규칙이 실려 있다.
 - 지금까지 ‘국문연구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리었으나 표지에 실려 있는 ‘국문연구안’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내용 및 특징
 - 국문연구소는 1907년 7월 8일 학부대신 이재곤이 황제의 재가를 얻어 설치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훈민정음 창제시 설치된 정음청(正音廳) 이후 최초로 한글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위원장에는 학부 학무국장 윤치오, 위원에는 학부 편집국장 장헌식, 한성범어학교 교장 이능화, 내부 서기관 권보상, 일본인 학부 사무관 우에무라 [上村正己], 주시경 등이 임명되었다. 이후 어윤적·이종일·지석영·이민응 등이 발탁되었다. 1907년 9월 제1차 회의가 열린 뒤 1909년 12월까지 23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14개항의 문제를 제출하여 1909년 12월 28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학부대신에게 제출하였다.
 - 그 주요내용은 국문의 연원과 자체(字體) 및 발음의 연혁, 초성 ㅇ · ㅎ · △ ·

◇ ·몽 ·병 ·풍 ·병 8자의 사용 여부, 초성 중 ㄱ ·ㄷ ·ㄴ ·ㄷ ·ㅈ ·ㅎ 6자의 병서법의 일정화, 중성 2자의 창제와 ‘·’자의 폐지 여부, 중성 ㄷ ·ㅈ 2자의 용법과 ㅈ ·ㅊ ·ㅋ ·ㅌ ·교 ·ㅎ 6자의 중성 채용 여부, 자모 7음과 청탁(淸濁)과의 구별, 사성표(四聲標)의 사용 여부와 조선어 음의 고저(高低), 자모 음독 일정(音讀一定), 자순과 행순의 일정, 철자법 등이다.

- 국문연구소의 서류는 일본 동경대학 중앙도서관의 오구라문고에도 보관되어 있다. 오구라문고본은 고려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육당문고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국문연구안은 1907년 7월 8일 설치한 국가공식기관인 국문연구소의 최종결과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제국 시기 국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10회에 걸친 토론과 의결을 걸친 최종결과보고서가 여러 이유로 인해 실행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체계와 맞춤법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이에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경북대학교 교수(국어학)>

- 명 칭 : 국문연구안(國文研究案)
- 소 유 자 : 고려대 도서관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 고려대학교 도서관
- 수 량 : 7권
- 규 격 : 책 크기는 권차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권1 : 21.0x15.0 cm (49장)
 - 권2 : 22.6x16.5 cm (147장)
 - 권3 : 22.2x16.5 cm (74장)
 - 권4 : 24.6x16.6 cm (26장)
 - 권5 : 24.4x17.4 cm (39장)
 - 권6 : 24.2x17.2 cm (63장)
 - 권7 : 25.2x17.0 cm (37장)
- 재 질 : 양지(화선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유인본(油印本)(필사한 것을 유인한 것)
- 형 식 : 표지는 능화문이 새겨진 한지(韓紙)로 만든 한장본(韓裝本=東裝本)이며 오침의 선장. 장차 순서는 전통적 고서와 같은 우에서 좌로 넘기는 방식. 우철(右綴)
- 조성연대 : 1907~1909년
- 현 상
 - 고려대 도서관 육당문고에 권1에서 권7까지 도합 7권이 소장되어 있다. 국문연구소에서 「국문연구의정안」을 만들기 위해 가진 회의와 토론 자료를 모아 합철한 책이다.
 - 이 책의 표지에는 ‘國文研究案 卷一’과 같은 방식으로 붓으로 쓴 서명과 권차가 매겨져 있다. 권1, 권2, 권3의 표지서명은 동일인 필체이고, 권4, 권5, 권6은 또 다른 사람의 필체로 표지서명이 씌어 있다. 권7 표지서명은 제3자의 필체로 보인다.본문은 손으로 쓴 필사 원고를 유인한 것이다. 권1의 앞표지

안쪽면에는 ‘六堂文庫’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고, 내지에는 ‘國文研究所印’과 ‘亞細亞問題研究所藏書印’이 붉은 사각형 인장으로 찍혀 있다.

○ 내용 및 특징:

- 「국문연구안」 7책은 국문연구소에서 위원들에게 배포된 유인물을 차례대로 묶은 책이다. 따라서, 이 문헌은 국문연구소의 활동을 보여 주는 기록이며, 마지막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서가 수집되어 이 속에 들어갔다.(김민수 1980)
- 권1에는 국문연구소 규칙, 훈민정음, 제1회 국문연구안 국문 연원 등이 들어가 있고, 주제별로 위원 개인의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다. 권2에는 국문자체 및 발음의 연혁에 대해 이능화가 70면, 주시경이 77면에 걸쳐 논설을 펴려하였다. 권3에는 권2와 동일한 주제로 권상보, 이억 등 5인의 견해가 펴려되어 있는데 개인별 분량이 이능화와 주시경에 비해 훨씬 적다. 권4에는 국문연구규칙과 제1,2회 문제에 대한 평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능화, 지식영, 주시경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권5에는 지식영이 새로 만든 문자를 포함하여 ◯◡△◇ 4자를 다시 쓰는 문제, ㅎㅁㅂㅅㅈ을 다시 쓰는 문제, ㄱㄷㅂㅅㅈ의 중음 연구안 등에 대한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권6, 권7의 내용은 생략함)
- 이 문헌의 특징은 국문연구소가 활동하던 도중에 연구원들 간에 논의된 문제에 대한 논설과 의견서를 집대성하여 모두 모았다는 데 있다. 「국문연구안」 7책은 이기문의 『개화기의 국문연구』(1970)에서 『국문연구의정안』과 함께 소개되었다. 「국문연구안」 7책은 김민수(1980)이 간단한 해제와 함께 원문의 영인을 『아세아연구』 63집과 64집에 나누어 게재하였다.
-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의견서와 토론을 거친 최종 보고서가 『국문연구의정안』이다. 『국문연구의정안』은 1909년(융희 3년)에 학무국장인 국문연구소 위원장 윤치오(尹致昨)가 학부대신 이용직(李容植)에게 보고한 최종 보고서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최종 보고서 『국문연구의정안』은 소창진평이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다. 동경대학 오구라 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국문연구의정안』을 이기문 교수가 국내에 소개하였다. 동경대 소장의 『국문연구의정안』의 원문 이미지는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6책(박이정출판사)에 수록되어 있다.

○ 문헌자료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 김민수(1977), 『주시경 연구』, 탐출판사.
- 김민수, 하동호, 고영근(1985),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5책, 油印 『國文研究安』 國文研究所』, 탐출판사
- 김민수, 고영근(2008),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6책, 筆寫 『國文研究議定案』 國文研究所, 박이정출판사.
- 김민수(1980). 국문연구소, 유인 「국문연구안」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63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17-348. 영인본도 붙어 있음.
- 김민수(1980). 국문연구소 (유인) 「국문연구안」, 『아세아연구』 64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55-239. 영인본도 붙어 있음.

○ 기 타

- 김민수(1980)에 따르면 이 7책은 국문연구소의 위원이었던 주시경의 수택본(手澤本)이었으며 그의 장서가 최남선에게 이관되면서 육당문고로 들어간 것이라 보았다. 그 내용에는 각 주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분석 이론도 포함되어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김민수(1980)에 따르면, 「국문연구안」 7책은 국문연구소에서 위원들에게 배포된 유인물을 차례대로 묶은 책이다. 따라서, 이 문헌은 국문연구소의 활동을 보여 주는 기록이며, 마지막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서가 수집되어 이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따라서 이 문헌은 당시 국문연구소의 활동을 보여 주는 산 기록이다. 국어정책론사의 기본 자료이며, 개화기 국어학사 자료로 귀중한 것이다.(김민수 1980:3)
 - 김민수(1980)에 따르면, 「국문연구안」 7책은 국문연구소에서 위원들에게 배포된 유인물을 차례대로 묶은 책이다. 따라서, 이 문헌은 국문연구소의 활동을 보여 주는 기록필자(보고서 집필자)가 보기에 「국문연구안」 7책은 최종 보고서 『國文研究議定案』(일본 동경대 소장)의 바탕이 된 만큼 그 가치가 크다. 특히 이 두 문건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국어 문자 정책에 관여한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자료들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이다. 1446년 이후 국가는 한글을 방치해 놓았다. 그러다가 개화기 이후 민족 의식의 계발과 공공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교과서 편찬이 요구되었다. 이 요구에 부응해 국문자의 정비가 긴요한 국가적 사업이 되었고, 이 사업이 「국문연구안」과 『국문연구의정안』으로 결실된 것이다.
 -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국문연구안」의 가치는 큰 것이다. 「국문연구안」보다 더 가치 있는 자료는 국문연구소의 최종 보고서인 『국문연구의정안』(동경대 소장)이다. 이 자료가 국내가 아닌 일본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문화재 반환 운동에 동경대 소장인 『국문연구의정안』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 종합의견 : 국문연구안(國文研究案)은 1907년에 설립된 국문연구소에서 「국문연구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출된 토의 및 회의자료를 모아서 철한 것이다. 이 책은 훈민정음 창제이후 국가가 한글정책을 추진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사. 국문정리

- 1) 명 칭 : 국문정리(국문정리, 國文正理)
- 2) 소유자 및 소재지

연번	소유자	소재지	보관처	비 고
1	서강대학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2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학술정보관	

- 3) 수 량 : 1책
- 4) 규 격 : 17.0×24.5cm
- 5) 발행주체 : 국문국(國文局)
- 6) 재 질 : 종이(한지)
- 7) 조성연대 : 1897년
- 8) 조사자 의견

<전 연세대학교 ○○○ 교수(국어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국문정리
- 소 유 자 : 서강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수 량 : 1책
- 규 격 : 17.0×24.5cm
- 재 질 : 저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목판본
- 형 식 : 5침 장정
- 조성연대 : 1897년
- 현 상
 - 오침장정의 전형적인 한국 고도서의 모습을 보이는 책으로서 제첨(題簽)이 붙어 있는데, 제첨의 책제목은 ‘국문정리’이다. 한글로 쓴 ‘국문정리’ 각 음절의 아래에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 ‘國 文 正 理’가 쓰여 있다.
 - 판심어미는 상하이엽화문어미(上下二葉花紋魚尾)이고 판심에는 상판에 ‘국문정리’로 되어 있다. 장차는 ‘일, 이 ’등으로 한글로 쓰여 있는데 마지막이 ‘십이’이다. 앞에 저자 ‘리봉운’이 쓴 ‘서문’이 있고 이어서 ‘목록’이 있다. 그리고 본문이 시작된다.
 - 뒷부분에 ‘대조선 건양 이년 일월 일 경성 묘동 리봉운 저작 겸 발행’이라 되어 있어서 이 책이 1897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리봉운이 직접 발행인이 되었음도 알 수 있다.
 - 그리고 ‘열람’이라고 하여 학부대신 민종목, 협판 민영찬, 비서 홍우관, 편집 리경직, 고준 흥정후 신정우 등의 이름이 보인다. 판권지에는 판권에 대한 설명까지 있다. 즉 ‘관허 관권 소유라 혼 뜻슨 늬이 모든 칙을 혹 스의로 인살 호야 미각호면 그 지조를 배이 는 도적으로 드스리는 법률이 잇시니 이거시기명헌 나라에서 선비로 호야곰 서적을 저작호는 권리를 주는 거시라’라는 기록이 있다.
 - 마지막에 이 책의 값이 ‘두량뎡돈 ’이라고 표시하여 놓아서 한적으로서 현대 문헌의 모습을 처음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본문은 모두 순한글로 되어 있다. 각 어절별로 오른쪽 하단에 권점을 쳐서 오늘날의 띄어쓰기와 같은 효과를 보이도록 하였다.
- 서지기술
 - (1) 책명: 국문정리(國文正理)
 - (2) 저자 : 이봉운
 - (3) 발행소 : 국문국
 - (4) 발행연도: 1897년
 - (5) 판종 : 목판본
 - (6) 지질 : 한지
 - (7) 소장자 : 서강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 (8) 책광 : 17.0×24.5cm
 - (9) 판광 :
 - (10) 판식 : 四周雙邊
 - (11) 장수 : 14장
 - (12) 보존상태 : 양호한 편
 - (13) 내용
 - 이봉운(李鳳雲)이 국문에 관한 주장을 종합한 연구서로서 1897년(건양 2)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연구서이다. 서 1장, 목록 1장, 본문 12장으로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다. 제첨은 ‘국國문文정正리理’이고 판심제는 ‘국문정리’이다. 본문은 순한글로만 되어 있으며 권점으로 띄

어쓰기를 표시하였고 오른쪽에 흘줄을 쳐서 인명을 표시하고, 쌍줄을 쳐서 지명을 표시하고 있다. 국문의 내력과 자모분음, 장음반절, 단음반절, 문법론, 탁음, 어토명목(語吐名目), 새언문이 차례로 기술되어 있다.

- 서문에서는 남의 나라 글은 존중하고 본국글에 대해서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국문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우리 글에 장단표시가 없음을 큰 수치로 생각하며, 언문옥편(국어사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본문에서는 국문의 내력을 약술하고, 없어진 ㅎ, ㅁ, ㅂ 세 글자를 각각 ‘이’의 단음, ‘으’의 단음, ‘스’의 단음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어서 쓴 자모분음(字母分音)의 규칙은 종래의 자모도를 수정한 것이다. 아래아(·)는 단음 ‘아’, 된소리는 제몸받침(병서)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의 반절(反切)을 장음반절규식(長音反切規式)이라고 하고, 새로 단음반절규식 176자를 만들어 가(邊)와 (可), 사(四)와 (私), 찬(讚)과 (冷) 등과 같이 장단음을 구별하려고 하였다.
- 문법론은 아래아(·)의 구별에 관한 것이며, 탁음규식은 일본어의 탁음을 표기하자는 것이다. 어토명목은 의미상으로 구분한 21종의 항목이다. 새 언문규법(諺文規法)은 그가 창안한 새로운 글자로 적었지만 요지는 문자 학습에 힘써 개화함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민생을 튼튼하게 하자는 논설이다.

(14) 의의

갑오경장을 계기로 갑자기 언문이 국문으로 격상되었으나, 전문가도 적절한 문헌도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로서는 올바른 연구,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만한 주장을 한 것도 대단한 언어학적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한글 문화재로서 등록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명 칭 : 국문정리(國文正理)
- 소 유 자 :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책
- 규 격 : 17.0×24.5cm
- 재 질 : 한지
- 판 중(서지의 경우) : 목판본
- 조성연대 : 1897년
- 현 상
 - 1897년(건양 2년) 간행된 이봉운(李鳳雲)의 국문에 관한 주장을 종합한 연구서이다. 서문 1장, 목록 1장, 본문 12장(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순국문(純國文)을 권점으로 띄어쓰기를 나타내고, 성경과 같이 조선, 일본 등의 국명이나 지명의 오른쪽에 쌍줄의 세로선을 표시하였고, 인명의 경우에는 흘줄의 세로선으로 표시한 점이 특이하다.
 - 또, 판권란에서 판권소유의 뜻을 “남이 만든 책을 혹 사의로 인쇄하여 매각하면 그 재주를 뺏는 도적으로 다스리는 법률이 있으니, 이것이 개명한 나라에서 선배로 하여금 서책을 저작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 내용 및 특징
 - 이 책의 내용은 문자 ·음성 ·음운 ·문법 ·국어정책 등 거의 국어학 전반에 걸

쳐 있다. 서문 다음에 본문을 아홉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문자에 관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 문법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 서문에서는 국문존중을 극구 강조하고, 장단표시가 없음을 최초로 큰 수치로 통감하며, 국어사전(언문옥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문·목차에 이어 국문의 내력과 자모분음·장음반절·단음반절·문법론·탁음·어토명목(語吐名目)·새언문규법이 차례로 서술되었다.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는 어토명목은 실상 전통적 역관문법의 소산으로서 의미상으로 구분한 21종의 항목이다. 새언문규법(諺文規法)은 그가 개조한 글자로 적어서 읽기 어려우나, 그 요지는 문자학습에 힘써 개화함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민생을 튼튼하게 하자는 논설이다.
- 이러한 그의 주장은 개화기의 국어국문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으나, 개화기에 국문개혁에 관한 제안이 많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그리 특이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장단표시가 없음을 큰 수치라고 한 그의 주장은 일본어 역관의 경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일본어의 규범을 그대로 따르고자 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국문정리는 1897년 이봉운(李鳳雲)이 지은 한국 최초의 근대문법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갑오개혁 이후의 첫 국어 연구서인 만큼 국어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적지 않다. 비록 그가 내세우고 있는 문법론은 이두(吏讀)의 토[口訣]에 해당하는 분류에 지나지 않아 학문적 가치는 높지 않으나,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권점을 활용하여 띄어쓰기를 표시하는 등 여러 면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 서강대학교 소장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의 보관 상태가 모두 양호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국어사)>

○ 현 황

- (1) 책명: 국문정리(國文正理)
- (2) 저자 : 이봉운
- (3) 발행소 : 국문국
- (4) 발행연도: 1897년
- (5) 판종 : 목판본
- (6) 지질 : 한지
- (7) 소장자 : 서강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서강대학교 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8) 책광 : 17.0×24.5 cm
- (9) 판광 :
- (10) 판식 : 四周雙邊
- (11) 장수 : 14장
- (12) 보존상태 : 양호한 편
- (13) 서지사항 및 내용

국문정리는 이봉운(李鳳雲)이 1897년(건양 2)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국문에 관한 주장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연구서이다. 서문 1장, 목록 1장, 본문 12장 등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점은 '국國문文정正리理'이고 판심제도

‘국문정리’이다. 판심어미는 상하이엽화문어미(上下二葉花紋魚尾)이다. 장차 표시는 ‘일, 이’ 등 한글로 쓰이어 있는데 마지막이 ‘십이’이다. 앞에 저자 ‘리봉운’이 쓴 ‘서문’이 있고 이어서 ‘목록’이 있다. 본문 뒷부분에 ‘대조선 건양 이년 일월 일 경성 묘동 리봉운 저작 검 발행’이라 되어 있어서 이 책이 1897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은 순한글로만 작성되어 있다. 권점으로 띄어쓰기를 표시하면서 오른쪽에 흘줄을 쳐서 인명을 표시하고, 쌍줄을 쳐서 지명을 표시하고 있다. 국문의 내력과 자모분음, 장음반절, 단음반절, 문법론, 탁음, 어토명목(語吐名目), 새언문 등이 차례로 기술되어 있다. 서문에는 남의 나라 글은 존중하고 본국글에 대해서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국문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언문옥편(국어사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문의 내력을 약술하고, 없어진 ㅎ, ㅅ, ㅌ 세 글자를 각각 ‘이’의 단음, ‘으’의 단음, ‘스’의 단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서 쓴 자모분음(字母分音)의 규칙은 종래의 자모도를 수정한 것이다. 아래아(·)는 단음 ‘아’, 된소리는 제몸받침(병서)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문법론은 아래아(·)의 구별에 관한 것이다. 어토명목은 의미상으로 구분한 21종의 항목이다.

(14) 의의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갑자기 언문이 국문으로 격상되었으나, 전문가도 적절한 문헌도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로서는 국문에 대한 올바른 연구,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에 대한 문법연구서가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아. 조선어 사전

- 1) 명 칭 : 조선어 사전(朝鮮語 辭典)
- 2) 소 유 자 : 박형익
- 3)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8안길
- 4) 수 량 : 1권
- 5) 규 격 : 15.6×22.8cm, 두께 6.3cm
- 6) 저 자 : 문세영
- 7) 재 질 : 종이(양지)
- 8) 조성연대 : 1938년
- 9) 조사자 의견

<전 연세대학교 ○○○ 교수(국어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 소 유 자 : 박형익(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 수 량 : 1책
- 규 격 : 15.6×22.8cm 두께 6.2cm
- 재 질 : 양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연활자본
- 형 식 : 양장
- 조성연대 : 1938년
- 현 상

- 『조선어사전』은 양피지로 제본되어 있는 책으로 표지 제목은 없고 책등에

는 ‘朝鮮語辭典 靑嵐 文世榮 著’라고 되어 있다. 속표지에는 세로 글씨로 오른쪽에 ‘靑嵐 文世榮 著’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줄에 큰 글씨로 ‘朝鮮語辭典’이라는 책제목이 쓰이어 있다. 그 다음 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退耕 權相老 簽’이라는 글씨와 함께 그 아래에 권상로의 호인 ‘退耕’이라는 주방형 인장과 확인 미상의 인장이 찍혀 있다. 맨 왼쪽의 중간부터 ‘朝鮮語辭典刊行會 發行’이라는 글이 있다. 그 다음 왼쪽 페이지에는 문세영 선생의 초상이 있는데 그 초상 아래에 ‘著者 靑嵐 文世榮 肖像’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 그 다음의 왼쪽 페이지에는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 ‘내 이를 위하여 어여뻐 여겨 새로 스물 여덟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수이 익혀 날로 씬에 편하게 하고저 할따름이니라 - 훈민정음에서-’란 글이 있고 역시 그 다음 왼쪽 페이지에는 ‘지은이 말씀’이라는 글이 세 페이지에 걸쳐 등장한다. 그리고 ‘일러두기’가 모두 7페이지에 걸쳐 나온다. 이어서 ‘이 책에 쓴 부호’가 한 페이지에 쓰이어 있고 그 뒤를 이어 본문이 나오는데, 맨 앞에 ‘조선어사전’이라는 책의 제목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 그리고 본문은 표제어 ‘ㄱ’부터 실려 있다.
- 책의 본문은 세로쓰기로 4단으로 되어 있다. 표제항은 입력된 텍스트 자료로 보면 모두 98,251개이다. 그러니 약 10만개 정도의 국어 어휘가 등재되어 있는 셈이다.
- 본문이 1,634페이지인데 그 끝부분에는 ‘조선어사전’이라는 표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쓰이어 있다. 그 뒤를 이어서 ‘한문 글자 음찾기(漢字音索引)’가 28페이지에 걸쳐 있으며 이어서 ‘이두찾기(吏讀索引)’이 22페이지가 있다.
- 책의 끝에 판권지가 있는데, 간행연도는 ‘昭和十三年 七月五日 印刷, 昭和十三年 七月十日 發行’이라는 발행기가 있어서, 이 책이 초판인 셈이다. 재판은 ‘昭和十三年七月十日 初版 發行 昭和十三年 十二月十日 再版 印刷 昭和十三年 十二月十五日 再版 發行’으로 되어 있어서 초판과 구별된다.
- 저자겸 발행자는 ‘文世榮’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소는 ‘京城府 樓上町一五番地九號’로 되어 있다. 인쇄자는 ‘金顯道’, 인쇄소는 ‘大東印刷所’發行所는 ‘朝鮮語辭典刊行會’이며 발매소는 ‘博文書館’으로 되어 있다.
- 판권지의 뒤에는 ‘ㄱ ㄴ ㄷ 찾기’라고 하여 ㄱ 에서부터 ㅎ 까지 시작되는 각 페이지에서부터 끝나는 페이지수를 적어 놓았다.

○ 서지기술

- (1) 책명: 조선어사전
- (2) 저자 : 문세영(1895-1956)
- (3) 발행소 : 박문서관
- (4) 발행연도 : 1938년
- (5) 판종 : 연활자본
- (6) 지질 : 양지
- (7) 소장자 : 박형익(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8) 책광 : 15.6×22.8cm
- (9) 판광 :
- (10) 판식 :
- (11) 장수 : 지은이 말씀(‘씀’이 아님) 3쪽, 일러두기 5쪽, 부호 1쪽, 본문 1634쪽, 한문 글자 음 찾기 26쪽, 이두 찾기 21쪽
- (12) 보존상태 : 양호하지 않은 편
- (13) 내용

-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은 문세영(文世榮)이 편찬한 것으로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1938년 7월 10일에 발행한 초판이다.
- 이 사전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최초의 국어 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문세영은 1929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1932년경부터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약 5년 만인 1938년 7월 10일에 『조선어사전』을 펴냈다.

표제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등재시켰다.

- ① 조선어
 - ② 이두
 - ③ 한자어
 - ④ 고어
 - ⑤ 외래어
 - ⑥ 방언
 - ⑦ 학술 용어
 - ⑧ 속담
 - ⑨ 관용구 등
- 지명과 인명 등은 표제항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성(姓)만 표제항으로 선정하였다.
 - 표제항은 ㄱ-ㄴ의 차례로 배열하였으며, 된소리 표제항은 평음 표제항 바로 뒤에 배열하였다(예: 가, 까, 가, 까, 거, 꺼...).
 - 접두 파생어는 하위 표제항으로 배열하였다.
 - 장음은 표제항의 해당 음절 글자의 왼쪽에 두 점을 붙여 표시했다.
 - 품사 정보는 명사, 대명사, 동사(자동사·타동사), 지정사, 접속사, 부사, 형용사, 감탄사, 조사로 나누어 표시했고, 이두, 접두어, 접미어, 성귀도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변칙 활용은 ㄷ변칙, ㄹ변칙, ㅂ변칙, ㅅ변칙, ㅎ변칙, ㄹ변칙, ㄹ변칙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 이 사전 편찬에 대하여 그 당시의 신문보도를 하나만 예를 들어보이도록 한다.(동아일보 1938년 7월 12일자)

典辭語鮮朝의初最
年餘有十苦萬辛千
 餘百七千頁數頁典辭五集蒐集語萬十
舉壯의氏榮世文者學篤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은 문세영(文世榮)이 편찬한 것으로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1938년 7월 10일에 발행한 초판이다. 이 사전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최초의 국어 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문세영은 1929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1932년경부터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약 5년 만인 1938년 7월 10일에 『조선어사전』을 펴냈다.

표제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등재시켰다.

- ① 조선어
- ② 이두
- ③ 한자어
- ④ 고어
- ⑤ 외래어
- ⑥ 방언
- ⑦ 학술 용어
- ⑧ 속담
- ⑨ 관용구 등

지명과 인명 등은 표제항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성(姓)만 표제항으로 선정하였다. 표제항은 ㄱ-ㄴ의 차례로 배열하였으며, 된소리 표제항은 평음 표제항 바로 뒤에 배열하였다(예: 가, 까, 가, 까, 거, 꺼...).

접두 파생어는 하위 표제항으로 배열하였다. 장음은 표제항의 해당 음절 글자의 왼쪽에 두 점을 붙여 표시했다. 품사 정보는 명사, 대명사, 동사(자동사·타동사), 지정사, 접속사, 부사, 형용사, 감탄사, 조사로 나누어 표시했고, 이두, 접두어, 접미어, 성귀도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변칙 활용은 ㄷ변칙, ㄹ변칙, ㅂ변칙, ㅅ변칙, ㅎ변칙, ㄹ변칙, ㄹ변칙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이 사전 편찬에 대하여 그 당시의 신문보도를 하나만 예를 들어보이도록 한다.(동아일보 1938년 7월 12일자)

- 1938년 7월에 발행한 초판 1,000권은 매진되었으며, 같은 출판사에서 약 5개월 후에 재판 2,000권을 펴냈다. 그리고 1940년 12월에는 1만 개 이상의 표제항을 새롭게 추가한 수정 증보판이 나왔다. 이 수정 증보판은 종이의 질이 나빠 책의 두께가 약 10cm로 초판 두께의 거의 배가 되어 사용하기에 불편했다. 그래서 1951년 9월에는 『우리말사전(축소판)』을 삼문사에서 발행하였다. 문세영 『조선어사전』은 판을 거듭하였는데, 이 사전 외에도 고유어만을 표제항으로 선정한 것, 표준어만을 표제항으로 선정한 것, 중사전 또는 소사전 등 여러 종류로 출판되었다.
- 문세영은 1895년 12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173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문창룡이요, 어머니는 김아지(金阿只)이다. 아버지는 대한제국시대 궁궐 도목수였고, 문세영은 1남 1녀 가운데 외아들이었다. 배재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1917년에 동양대학 윤리교육과에 입학하여 1921년에 졸업하였다.
- 1922년에 배재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취임하였다. 1926년에 배재고보를 사직하고 근화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배재고보와 근화학교 근무시절부터 어휘 모음을 계속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조선어사전의 편찬을 시작한 것은 1929년부터였다. 1929년부터 우리말 어휘를 정리 주해하기 시작하여 10년간 정리와 교정 작업을 하였다.
- 1938년 7월에 조선어사전이 간행된 뒤에도 각 지방의 학생들이 보내온 숨겨진 말과 책에 누락된 어휘를 제공해 주어서 그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1만 어휘를 추가하여 1940년 12월 10일에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을 영창서관에서 발행하였다. 이 사전의 출판에는 고경상이 비용을 담당하였다. 1942년 5월 20일에 재판이 나왔다. 본문 1854쪽, 한자음찾기 26쪽, 이두찾기 22쪽으로 모두 1902쪽으로 되어 있다.
- 이 사전은 이름을 바꾸어 『우리말사전』(삼문사, 1950), 『최신판 표준국어사전』(장문사, 1954) 등과 책 부피를 줄여서 『중등조선어사전』(삼문사, 1947), 『국어사전』(대문사, 1949), 『표준가나다사전』(삼문사, 1953), 『순전한 우리말사전』(문연사, 1951) 등 그밖에 비슷한 사전들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다.
- 이 사전은 1960년대에 이희승 선생의 국어대사전이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이었다. 학교 졸업식 때 개근상이나 정근상 또는 우등상의 상품은 거의 모두 이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의 축소판 등이었다.
- 마찬가지로 이 사전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도 출판이 되었는데, 이 사전의 앞쪽에는 ‘이 사전은 남조선에서 출간된 것이니 사용에 주의하라’는 경고문까지 인쇄되어 첨부되어 있었지만 그 사전의 중요성으로 그대로 출간되어 이용되어 왔다.
-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7월경에 그의 큰아들 문경준에게 ‘학자는 앉아서 굶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서울에 남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당분간 친척집에 가 있어라. 난리가 평정되면 아버지가 데리러 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가족과 헤어졌는데, 1953년 가을 큰아들 문경준이 서울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도 없고 형들도 없었다고 한다. 그 당시 문경준은 18세였었다. 1981년에 실종된 아버지와 형들(큰형 경록, 둘째형 경승, 남동생 경환)을 1952년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이 평가를 쓰는 필자는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장으로 북한 학자들과

자주 접촉하였다. 회의를 진행할 때 쉬는 시간에 북한의 유명한 사전학자에게 문세영 선생을 아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는 문세영 선생의 사전편찬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문세영 선생이 북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본 이극로 선생이 문세영 선생을 데려다가 이극로의 아래에서 사전 편찬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1956년에 폐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사망일자도 모르고 있었고, 역시 남북인지 자진 월북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자진 월북이었으면 분명히 자진월북이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아 납북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고(遺稿)나 유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초판본은 1,000부가 간행되었지만, 남아 있는 책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재판본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또 소장되어 있지만, 초판본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다.

(13) 의의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편찬된 단일어사전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초의 국어 - 한자어 대역사전은 ‘국한회어’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국어 학습사전은 심의린이 편찬한 ‘조선어사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단일어 사전, 특히 현대적인 의미의 국어사전은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전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초간본은 매우 드물어서 희귀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명 칭 : 조선어사전
- 소 유 자 : 박형익
-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 수 량 : 1책
- 규 격 : 156×228mm
- 재 질 : 양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연활자본
- 조성연대 : 1938년
- 현 상
 - 1938년 7월 10일 조선어사전간행회(朝鮮語辭典刊行會)에서 간행된 문세영의 국어사전은 A5판. 총 1,690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두에 ‘지은이말씀’ 3면, ‘일러두기’ 5면, 본문 1,634면, 권말에 ‘한문글자 음찾기’ 26면, ‘이두(吏讀) 찾기’ 22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4단으로 세로로 짜여 있다.
 - 현재 박형익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초판본은 1619쪽부터 1634쪽까지, 그리고 권말부록인 한문 글자 음찾기와 이두 찾기가 결락되어 있으며, 판권지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 이 사전은 순수국어·한자어·외래어·옛말·이두·방언, 그리고 속담·성구(成句) 등 10여 만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배열방식이나 주석의 내용도 세련되어 있어서 현대적인 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표기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준수하였는데 일반 열람자를 위하여 새로 제정된 맞춤법과 대조

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글맞춤법의 보급에도 기여한 바 크다. 어휘 수집과 주석은 10여 년의 노력 끝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주석·체재·인쇄·교정 과정에서는 편자와 교분이 있었던 이윤재·한징 등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938년 7월 10일 조선어사전간행회(朝鮮語辭典刊行會)에서 간행된 문세영의 국어사전은 조선어학회의 표준말사정위원 및 수정위원을 지냈던 청람 문세영이 십여 년의 노력을 기울여 만든 국어사전이다. 당시 『동아일보』에서 “이제야 조선말로 주석한 조선말의 사전을 조선사람의 손으로 처음 만들어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서 그 의의가 잘 집약되어 있다. 이후 이 사전은 1940년 12월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발간하였고, 해방 후에 문세영이 월북한 후에는 이름을 바꾸어 간행되면서 가장 널리 사용된 국어사전으로 이름이 높다.
- 이 사전은 해방 전에 발간된 사전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초간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박형익 소장본 역시 초간본이기는 하지만 1619쪽부터 권말부록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서 문화재로 등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추후에 완전한 형태의 초간본이 발견된 이후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국어사)>

○ 현 황

- (1) 책명: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 (2) 저자 : 문세영(1895~1956년)
- (3) 발행소 : 박문서관
- (4) 발행연도 : 1938년
- (5) 판종 : 연활자본
- (6) 지질 : 양지
- (7) 소장자 : 박형익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 (8) 책광 : 15.6×22.8cm
- (9) 판광 :
- (10) 판식 :
- (11) 장수 : 지은이 말씀(‘씀’이 아님) 3쪽, 일러두기 5쪽, 부호 1쪽, 본문 1634쪽, 한문 글자 음 찾기 26쪽, 이두 찾기 21쪽
- (12) 보존상태 : 양호하지 않은 편
- (13) 내용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은 문세영(文世榮)이 편찬한 당시로서는 방대한 어휘를 담은 국어 사전이다. 바로 이 책이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1938년 7월 10일에 발행한 초판이다. 초판 『조선어사전』은 양피지로 제본되어 있는 책이다. 표지 제목은 없고 책등에 ‘朝鮮語辭典 靑嵐 文世榮 著’라고 되어 있다. 속표지에 세로 글씨로 오른쪽에 ‘靑嵐 文世榮 著’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줄에 큰 글씨로 ‘朝鮮語辭典’이라는 책제목이 쓰여 있다. 그 다음 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退耕 權相老 簽’이라는 글씨와 함께 그 아래에 권상로의 호인 ‘退耕’이라는 주방형 인장이 찍혀 있다. 책의 본문은 세로쓰기로 4단으로 되어 있다. 표제항은

입력된 텍스트 자료로 보면 모두 98,251개이다. 본문이 1,634페이지인데 그 끝부분에는 ‘조선어사전’이라는 표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쓰여 있다. 그 뒤를 이어서 ‘한문 글자 음찾기(漢字音索引)’가 28페이지에 걸쳐 있으며 이어서 ‘이두찾기(吏讀索引)’가 22페이지가 있다. 책의 끝에 판권지가 있는데, 간행연도는 ‘昭和十三年 七月五日 印刷, 昭和十三年 七月十日 發行’이라는 발행기가 있어서, 이 책이 초판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전의 표제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등재시키고 있다.

- ① 조선어 ② 이두 ③ 한자어 ④ 고어 ⑤ 외래어 ⑥ 방언 ⑦ 학술 용어 ⑧ 속담 ⑨ 관용구 등

표제항은 ㄱ~ㅈ의 차례로 배열하였으며, 된소리 표제항은 평음 표제항 바로 뒤에 배열하였다(예: 가, 까, 가, 까, 거, 꺼...). 접두 파생어는 하위 표제항으로 배열하였다. 장음은 표제항의 해당 음절 글자의 왼쪽에 두 점을 붙여 표시했다. 품사 정보는 명사, 대명사, 동사(자동사·타동사), 지정사, 접속사, 부사, 형용사, 감탄사, 조사로 나누어 표시했고, 이두, 접두어, 접미어, 성귀도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변칙 활용은 ㄷ변칙, ㄹ변칙, ㅂ변칙, ㅅ변칙, ㅎ변칙, ㄴ변칙, ㄹ변칙, ㄷ변칙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문세영은 1895년 12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173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문창룡이요, 어머니는 김아지(金阿只)이다. 아버지는 대한제국시대 궁궐도목수였고, 문세영은 1남 1녀 가운데 외아들이었다. 배재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1917년에 동양대학 윤리교육과에 입학하여 1921년에 졸업하였다. 1922년에 배재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취임하였다. 1926년에 배재고보를 사직하고 근화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배재고보와 근화학교 근무시절부터 어휘 수집을 계속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조선어사전의 편찬을 시작한 것은 1929년부터였다. 1929년부터 우리말 어휘를 정리 주해하기 시작하여 10년간 정리와 교정 작업을 하였다. 1938년 7월에 조선어사전이 간행된 뒤에도 각 지방의 학생들이 보내온 숨겨진 말과 책에 누락된 어휘를 제공해 주어서 그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1만 어휘를 추가하여 1940년 12월 10일에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을 영창서관에서 발행하였다. 이 사전의 출판에는 고경상이 비용을 담당하였다. 1942년 5월 20일에 재판이 나왔다. 본문 1854쪽, 한자음찾기 26쪽, 이두찾기 22쪽으로 모두 1902쪽으로 되어 있다. 1938년 7월에 발행한 초판 1,000권은 매진되었으며, 같은 출판사에서 약 5개월 후에 재판 2,000권을 펴냈다. 그리고 1940년 12월에는 1만 개 이상의 표제항을 새롭게 추가한 수정 증보판이 간행된 바 있다.

(14) 의의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초의 국어 : 한자어 대역사전은 『국한회어』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국어 학습사전은 심의린이 편찬한 『조선어사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단일어 사전, 특히 현대적인 의미의 국어사전은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전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전이다.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초판본은 1,000부가 간행되었지만, 남아 있는 책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재판본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또 소장되어 있지만, 초간본은 매우 드물어서 희귀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자. 전보장정

- 1) 명 칭 : 전보장정(電報章程)
- 2) 소유자 및 소재지

연번	소유자	소재지	보관처	비 고
1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2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장서각	

- 3) 수 량 : 1권
- 4) 규 격 : 16.7×26.7cm
- 5) 발행주체 : 전보국
- 6) 재 질 : 종이(양지)
- 7) 조성연대 : 1888년
- 8) 조사자 의견

<전 연세대학교 ○○○ 교수(국어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전보장정(電報章程)
- 소 유 자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책
- 규 격 : 16.7×26.7cm
- 재 질 : 양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연활자본
- 형 식 : 5침 장정
- 조성연대 : 1888년
- 현 상
 - 전보장정은 1888년에 11장의 연활자본으로 출판된 문헌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최초의 전신규정이 실려 있는 문헌이다. 모두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한글을 표기할 때에는 한글 자모를 쓰고 있다.
 - 책의 크기는 26.7 x 16.7 cm이고 10행 25자이다. 앞에 ‘電報章程序’가 있는데 ‘開國四百九十七年仲夏資憲大夫總辦電報局事務洪澈周서 ’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 문헌이 1888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서지기술

- (1) 책명: 전보장정(電報章程)
- (2) 저자 : 電報局
- (3) 발행소 : 電報局
- (4) 발행연도 : 1888년
- (5) 판종 : 연활자본
- (6) 지질 : 양지
- (7)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8) 책광 : 16.7×26.7cm
- (9) 판광 :
- (10) 판식 : 四周單邊

(11) 장수 : 11장

(12) 보존상태 : 양호한 편

(13) 내용

- 『전보장정』(電報章程)은 1888년(고종 25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규정(電信規定)의 이름이며 동시에 그것을 써 놓은 문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곳곳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전보장정은 32항의 조문과 전신부호 및 요금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국명양문첩법(局名洋文捷法)
- ② 국문자모 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
- ③ 영문자모 호마타법(英文字母號碼打法)
- ④ 양문수목 호마타법(洋文數目號碼打法)
- ⑤ 양문구두점 호마타법(洋文句讀點號碼打法)
- ⑥ 전국조관 호마타법(電局照關號碼打法)
- ⑦ 남선 각국 수비표(南線各局收費表)
- ⑧ 서선 각국 수비표(西線各局收費表)

- 이 장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국문 전신부호의 최초인 ‘국문자모 호마타법’이다.
- 이 ‘국문 자모 호마타법’의 제정으로 우리 국문(한글) 전보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신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 기계화의 최초의 자료이어서 한글의 역사에서도 매우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안타까운 일은 이 국문 자모 호마타법을 만든 사람은 알려져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제정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國 文 字 母 號 碼 打 法	
ㅏ	—
ㅑ	— —
ㅓ	— — —
ㅕ	— — — —
ㅗ	— — — — —
ㅛ	— — — — — —
ㅜ	— — — — — — —
ㅠ	— — — — — — — —
ㅡ	— — — — — — — — —
ㅣ	— — — — — — — — — —
가	— — — — — — — — — — —
나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라	— — — — — — — — — — — — — —
마	— — — — — — — — — — — — — — —
바	— — — — — — — — — — — — — — — —
파	— — — — — — — — — — — — — — — — —
하	— — — — — — — — — — — — — — — — — —
차	— — — — — — — — — — — — — — — — — — —
카	— — — — — — — — — — — — — — — — — — — —
카	— —
다	— —
다	— —
하	— —
하	— —

<국문 자모 호마타법>

이 ‘국문 자모 호마타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오늘날의 한글 전신부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오늘날에는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와 ‘내’의 두 글자가 추가된 것뿐이다.

이 전보장정에는 ‘국명 양문첩법’이라고 하여 우리 지명의 영문식 표기와 그 약호도 보이고 있다.

法 捷 文 洋 名 局		
Seoul	Sl	京城
Kongchu	Shh	公州
Chunghu	Chh	全大
Tehku	Tkh	州邱
Fusan	Fhs	山釜
Chemulpo	Chm	仁川
Pingyang	Pgh	平壤
Echow	Eh	義州

<국명 양문첩법>

- 한글을 ‘국문’이라고 했고, 영문 알파벳을 ‘양문’(洋文)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로마자 표기법의 시초도 볼 수 있다. ‘서울’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Seoul이고 ‘공주’는 Kongchu, ‘전주’는 Chunghu, 대구는 Tehku, 부산은 Fusan, 인천은 ‘인천’이 아니고 ‘제물포’로서 Chemulpo, ‘평양’은 Pingyang, ‘의주’는 Echow로 되어 있다. 부산의 ‘h’은 f로, 평양의 ‘g’은 p로, 그리고 대구의 ‘c’은 t로, 공주의 ‘g’은 k로 썼고, ‘z’은 ch로 썼다. 모음 글자 중 ‘u’는 u로, ‘i’는 e, ‘y’는 i로 표기하여 아직은 정밀하지 못한 로마자 표기법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최초의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당시의 로마자 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의 중요한 자료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인 ‘전보존안’(電報存案, 규19145-v.1-16)과 ‘전보’(電報, 규20038)의 두 책을 보면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法 打 碼 號 母 字 文 洋		
英	a	—
德	ä	—
法	ü	—
英	b	—
英	o	—
英	ch	—
英	u	—
英	c	—
法	è	—
英	f	—
英	g	—
英	h	—
英	i	—
英	j	—
英	k	—
英	l	—
英	m	—
英	n	—
英	o	—
德	ö	—
英	p	—

<양문 자모 호마타법>

英	q	—
英	r	—
英	s	—
英	t	—
英	u	—
德	ü	—
英	v	—
英	w	—
英	x	—
英	y	—
英	z	—
法 打 碼 號 目 數 文 洋		
一	1	—
二	2	—
三	3	—
四	4	—
五	5	—
六	6	—
七	7	—
八	8	—
九	9	—
十	0	—

<양문 수목 호마타법>

洋文句讀點號碼打法	
讀	() -----
讀小	() -----
讀句	() -----
點終	() -----
點重	() -----
標問	() -----
標之	() -----
符感	() -----
符略	() -----
章新	() -----
弧括	() -----
線積	() -----
線下	() -----
線除	() -----
法字	符及除線連附
字一	字二
字二	4
字三	445
字二	Horse-house
字二	New-york
字二	Don't

<양문구두점 호마타법>

- 이 전보장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법규로 1896년 7월에 발표된 칙령 제 33호 ‘국내전보규칙(國內電報規則)’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지만, 한글이나 영문자의 모스부호 규정은 아직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글을 모스부호로 만들어 표준화시킨 것은 1888년이 최초임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한글 모스 부호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사람은 김학우(金鶴羽, 1862-1894)였다. 함경북도 경흥 출신인데 어렸을 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크에서 성장하였고, 그의 나이 18세 때 1876년에 일본에 건너가 약 1년 반 동안 동경에서 우치무라(內村直義)의 무급 어학교사 자격으로 있었으며, 만주의 길림과 중국 북경에도 드나든 적이 있어서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하였다.
- 1884년부터 1886년까지 서울에서 기기국위원(機器局委員)과 전환국위원(典圖局委員) 등을 지냈다. 이때에 정부가 추진하였던 각종 개화사업에 종사하였는데, 특히 청나라로부터 선박과 무기의 수입, 전선 가설, 전선 기술자 양성, 그리고 모스 부호의 도입 등의 일에 참여하였다.
- 1884년 가을에 일본에서 부산과 일본의 나가사키 사이에 해저전선을 개통시킨 것을 보고 고종에게 우리나라도 전신을 가설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고종의 명령으로 김학우는 전신기술을 배우러 일본에 간다. 김학우는 도쿄로 가서 매일같이 전신본국을 찾아가 연구하여 전신 부호를 개발하였다. 이 당시에 한글 전신부호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독창적인 전신부호였다. 이때 김학우가 만든 한글 전신부호는 1888년 조선전보총국이 설립되면서 ‘전보장정’에서 한글 전신부호의 모체로 채택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활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그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ㄱ’와 ‘ㄴ’만 더 첨가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김학우는 1894년 갑오개혁 때에는 김홍집(金弘集) 내각에 들어가 내무부참의를 거쳐 국군기무처회의원 겸 법무아문협판·법무아문대신서리 등을 지내면서 개혁을 주도하였지만, 반일세력의 반발로 인해, 1894년 10월 31일 흥선대원군이 보낸 자객 전동석(田東錫)과 그 하수인 최형식(崔亨植) 등에

게 암살당하였다. 그의 나이 만 32살 때였다. 1910년(순종 4)에 규장각 제학에 추증되었다.

(14) 의의

-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최초로 한글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결과가 한글을 전신화해서 모스부호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한글 전신 부호는 짧은 점과 긴 점의 두 가지 기호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어서 2진법의 구성으로 된 것이다. 이 2진법의 한글 전신 부호는 오늘날 한글 코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 한글 전신 부호의 도입은 한글의 역사에서 귀중한 한 발자취를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명 칭 : 전보장정
- 소 유 자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책
- 규 격 : 16.7×26.7cm
- 재 질 : 한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연활자본
- 조성연대 : 1888년
- 현 상
 - 1888년(고종 25년) 5월에 제정된 우리 나라 최초의 전신 법규를 담은 문헌이다. 크기는 167×267mm이며 총 11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광은 195 × 148mm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일산문고 도장이 찍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의 경우 1972년 3월 장정을 개보수한 흔적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 「전보장정」은 32항의 조문과 전신부호 및 요금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한문혼용이 국가공식표기로 제정되기 이전이어서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 「전보장정」안 32항의조문과 전신부호 및 요금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문 전신부호를 제정한 것이다. 이를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이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명양문첩법(局名洋文捷法)이라 하여 우리 지명의 영문식 표기와 그 약호를 제정하였고, 이어 양문자모호마타법(洋文字母號碼打法) 등에서는 「전보신편」 및 「만국전보장정」을 본떠 국제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한문 전신부호는 「기보장정(奇報章程)」에 실린 전편(電編)을 준용하였다.
 - 그리고 전보는 관보(官報)·국보(局報)·사보(私報)로 나누어 국문·한문·영문의 전보를 수발하였고, 긴급·조교(照校)·수신·추미(追尾) 등의 특수전보도 취급하였다. 관보는 면비(免費)에다 절대 우선으로 취급하였고, 암호전보와 전보검열제도도 있었다. 이 밖에 수신인의 주소·성명에 대한 요금 부과, 한문 전보 기탁시의 해마부담 및 업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도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우리나라에서 전신업무가 처음 시작된 것은 1885년 9월 28일 서울·인천 사이에 최초의 전신이 가설되고 한성전보총국이 설치되면서이다. 이후 인천·서울·의주에 이르는 서로전신선으로 확장되었고, 이어 서울·공주·전주·대구·부산을 잇는 남로전신선의 개통되면서 조선전보총국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1891

년에는 서울에서 원산에 이르는 북로전신선이 개통되면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신망이 완성되기에 이른다.

- 그런데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 건설되었던 서로전신선과는 달리 남로전신선은 우리 정부의 주관으로 가설, 운영되었던 만큼 업무상에서도 독자적인 규정이 필요하게 되자 조선전보총국 개국에 앞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법규인 ‘전보장정’이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 『전보장정』은 훗날 국내 전보규칙의 전신이 되었고, 국문 전신부호의 제정으로 우리 한글 전보가 시작되어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이 모스부호는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보장정』은 우리나라 통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글기계화와 관련된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국문전신부호는 1884년 일본에 파견된 김학우(金學羽)가 고안한 것으로, ‘ㄱ’에서 ‘ㅎ’까지 자음 14자와 ‘ㅏ’에서 ‘ㅣ’까지 모음 10자의 모스 부호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전보장정』을 모두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국어사)>

○ 현 황

- (1) 책명: 전보장정(電報章程)
- (2) 저자 : 電報局
- (3) 발행소 : 電報局
- (4) 발행연도 : 1888년
- (5) 판종 : 연활자본
- (6) 지질 : 양지
- (7)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8) 책광 : 16.7×26.7cm
- (9) 판광 :
- (10) 판식 : 四周單邊
- (11) 장수 : 11장
- (12) 보존상태 : 양호
- (13) 내용 및 특징

『전보장정』(電報章程)은 1888년(고종 25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국내 최초의 전신규정(電信規定)의 이름이며, 동시에 그것이 실려 있는 문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몇몇 곳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 11장으로 연활자본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최초의 전신규정이 실려 있는 문헌이다. 모두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한글을 표기할 때에는 한글 자모를 쓰고 있다. 책의 크기는 26.7 x 16.7cm이고 10행 25자이다. 앞에 ‘電報章程序’가 있는데 ‘開國四百九十七年仲夏資憲大夫總辦電報局事務洪澈周서’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 문헌이 1888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보장정은 32항의 조문과 전신부호 및 요금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국명양문첩법(局名洋文捷法)
- ② 국문자모 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
- ③ 영문자모 호마타법(英文字母號碼打法)
- ④ 양문수목 호마타법(洋文數目號碼打法)
- ⑤ 양문구두점 호마타법(洋文句讀點號碼打法)
- ⑥ 전국조관 호마타법(電局照關號碼打法)
- ⑦ 남선 각국 수비표(南線各局收費表)
- ⑧ 서선 각국 수비표(西線各局收費表)

이 장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국문 전신부호의 최초인 ‘국문자모 호마타법’이다. 이 ‘국문 자모 호마타법’의 제정으로 우리 국문(한글) 전보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신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 기계화의 최초의 자료이어서 한글의 역사에서도 귀중한 의미를 가진다.

이 ‘국문 자모 호마타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오늘날의 한글 전신부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오늘날에는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ㄱ’과 ‘ㅋ’의 두 글자가 추가된 것뿐이다. 이 전보장정에는 ‘국명 양문첩법’이라고 하여 우리 지명의 영문식 표기와 그 약호도 보이고 있다. 한글을 ‘국문’이라고 했고, 영문 알파벳을 ‘양문’(洋文)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로마자 표기법의 시초도 볼 수 있다. 이 당시의 로마자 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의 중요한 자료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인 ‘전보존안’(電報存案, 규19145-v.1-16)과 ‘전보’(電報, 규20038) 등의 책들을 보면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다.

(14) 의의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최초로 한글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결과가 한글을 전신화해서 모스부호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한글 전신 부호는 짧은 점과 긴 점의 두 가지 기호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어서 2진법의 구성으로 된 것이다. 한글 기계화의 초기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차. 조선말독본 첫책

- 1) 명 칭 : 조선말독본 첫책
- 2) 소 유 자 : 독립기념관
-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 4) 수 량 : 2권(동일본)
- 5) 규 격 : 13.0×18.8cm
- 6) 발행주체 :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
- 7) 재 질 : 종이(양지)
- 8) 조성연대 : 1927년
- 9) 조사자 의견

<전 연세대학교 ○○○ 교수(국어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조선말독본(첫책)
- 소 유 자 : 독립기념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량 : 2책(동일한 책이 2책임)
- 규격 : 13.0×18.8cm
- 재질 : 양지
- 판종(서지의 경우) : 석인본
- 형식 : 5침 장정
- 조성연대 : 1927년
- 현상

- 이 책은 1927년에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에서 간행한 책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도록 만든 독본이다.
- 표지는 위에 가로쓰기로 '도선말독본'을 풀어쓴 '디코사키니로타르 디고기비고니'이라 쓰여 있고 그 아래에 '첫책'을 풀어쓴 '치키사 치기'이란 글씨가 있다. 그 아래에 '도선말 독본 첫책'이라 쓰여 있는데 왼쪽 첫줄에 '도선말', 둘째 줄에 '독본' 셋째 줄에 '첫책'이라 쓰여 있다. 그 아래에는 동그라미 속에 소년소녀가 책가방을 가지고 나란히 걸어가는 그림을 그려 놓았다.
- 내지에는 표지와 마찬가지로 가로쓰기로 '도선말독본'을 풀어쓴 '디코사키니로타르 디고기비고니'이라 쓰여 있고 그 아래에 '첫책'을 풀어쓴 '치키사 치기'이란 글씨가 있다. 그 아래에는 세로로 '도선말 독본 첫책'이란 글씨가 있다.
- 이 책의 목차는 모두 38개인데 그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에 가자! 학교에 가자!
2. 어떤이의 말슴
3. 선생님의 말슴
4. 차둑이(차도리)와 얄전이
5. 열인 동무 한 무리
6. 운동 잘하는 누구, 누구
7. 운동 마당에 누가 웃듬인야?
8. 바둑이의 권고
9. 올이덜의 봉변
10. 수둑이(수뜨리)와 얼력이
11. 솟둑이와 얼력이
12. 아이덜과 다람쥐
13. 아이덜과 다람쥐
14. 알 싸는 닭
15. 괴앙이의 볍을어운 일
16. 새 둥울이와 새알
17. 음전이의 괴앙이
18. 오썩이
19. 각시
20. 소썩질
21. 군대놀음
22. 별구경, 달구경
23. 달아, 달아, 밝은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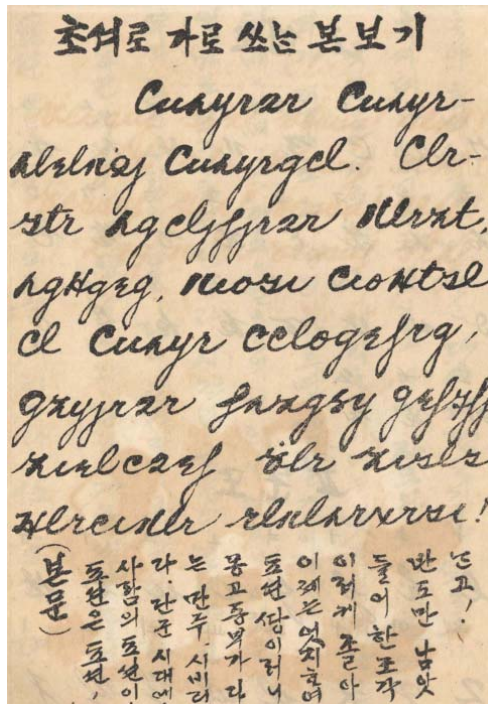
24. 잘어가자, 잘어가자!
25. 자장, 자장, 자장, 자장!
26. 바둑이, 감정이, 북실이
27. 바둑이, 감정이, 북실이
28. 만복이의 삽살이
29. 숨기내기
30. 그털은 다 나의 것이오
31. 닭의 뺨이 왜 붉은 것
32. 숨이 있는 가막이
33. 작은 저팔계
34. 구 선생의 딸
35. 괴앙이의 생일 잔치
36. 발발이의 자동차
37. 수수떡이
38. 책 말이, 책시세

- 이 책은 세로 쓴 책이지만 세로 쓴 책은 보통 각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 있는데 이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 있어서 매우 특이한 배열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서지기술

- (1) 책명: 도선말독본
- (2) 저자 :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
- (3) 발행소 :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
- (4) 발행연도: 1927년
- (5) 판종 : 석인본
- (6) 지질 : 양지
- (7) 소장자 : 독립기념관
- (8) 책광 : 13.0×18.8cm
- (9) 판광 :
- (10) 판식 :
- (11) 장수 : 84쪽
- (12) 보존상태 : 매우 양호한 편
- (13) 내용

- 이 책에서는 한글 자모를 ‘도선 국문 자모’라 하고 이를 교정하여 새로운 표기체계를 세우려 하였다.
- 모음 글자 중에서 ‘ㅏ’ 자를 만들어 ‘ㅣ’와 ‘ㅡ’를 합친 발음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 자를 ‘ㅏ’로 읽는 폐단을 구하고자 하였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ㅑ, ㅓ, ㅕ, ㅗ, ㅛ, ㅜ, ㅠ’등도 쓰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한문음을 표기하려 한 것이다.
- 자음에서는 다음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설명도 역시 영문음이나 독일어음이나 한문 북경음 등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 책의 말미에는 판권지가 붙어 있는데 인지를 붙이는 난에는 ‘출판권을 독립단에서 보류함’이라 하였고, 四千二百六十年(一九二七) 丁卯 五월 一일 발행이라 되어 있다. 편집(‘편집’)은 ‘대도선 독립단 학무부’, 인쇄는 ‘대도선 독립단 실업부’, 발행은 ‘대도선 독립단 총단장’으로 되어 있다.
- 통신처는 ‘북경 우함 33, 호노쑤쑤 〇구 1514’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발행소는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로 되어 있다.
- 뒷표지에는 ‘박용만’이라는 사람의 매우 의미심장한 글이 실려 있는데, 조선족이 쓰는 우리말이 100분의 85는 한족의 말이고, 방위를 표시하는 말이나 성명이나 모두 조선 사람의 성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족의 독립 문화가 서지 못한 까닭이라는 한탄의 글이 실려 있다. 박용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독립단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 이 책은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선조들이 해외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편찬한 조선어 교과서로 새로운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의의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만들어 놓은 매우 희귀한 조선어 교과서로서 독립운동사에서나 한글 변화사에서나 교과서 편찬사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있음

<〇〇〇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명 칭 : 조선말독본(첫책)
- 소 유 자 : 독립기념관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 량 :

- 규 격 : 18.6 x 12.9 cm
- 재 질 : 양지
- 조성연대 : 1920년대
- 현 상
 - 이 책은 1927년에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에서 간행한 우리말 독본이다.
 - 보관 상태는 매우 양호함
 - 동일한 책 2권이 보관되어 있음
 - 책의 말미에 있는 판권지 난에 ‘출판권을 독립단에서 보류’이라 하였고, 4267년(1927) 정묘 5월 1일 발행이라 표기되어 있다. 편집은 ‘대도선 독립단 학무부’, 인쇄는 ‘대도선 독립단 실업부’, 발행은 ‘대도선 독립단 총단장’으로 되어 있다.
 - 발행소는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로 되어 있다.
 - 통신처는 ‘북경 우함 33, 호노 1514’로 되어 있다.
 - 『도선말 교과서』와 동일한 체재로 되어 있어서 『도선말 교과서』와 한 질로 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 내용 및 특징 :
 - 이 책이 책에서는 기존의 한글 자모를 수정하여 새로운 표기체계를 세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모음 글자 중에서 ‘·’ 자를 ‘ㅏ’로 읽는 폐단을 고치기 위하여 ‘ㅏ’ 자를 만들어 ‘ㅣ’와 ‘ㅡ’를 합친 발음을 만들었고, 중국 한문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시교, 쵸, 채그, 시구’등도 쓰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문음이나 독일어음이나 한문 북경음 등을 표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음을 만들기도 하였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선말독본」은 조선독립단에서 편집하고 발행한 우리말 교과서이다. 판권지에 따르면 북경 독립단 지부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아 두 지역에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책의 뒷표지에는 미국에서 독립단을 만들어 활동했던 박용만이 우리말의 100분의 85는 중국어에서 온 말이고, 방위를 표시하는 말이나 성명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는 조선족의 독립 문화가 서지 못한 까닭이라는 한탄의 글이 실려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조선독립단에서는 우리말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편찬한 책이 바로 「조선말독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조선말독본」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지사들이 자신들이 활동하던 지역의 언어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말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여서 독립운동사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이 현지의 언어와 접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경북대학교 교수(국어학)>

- 명 칭 : 조선말 독본(첫책)
- 소 유 자 : 독립기념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 량 : 2권 (동일한 책이 두 권임)
- 규 격 : 13×18.8cm

- 재 질 : 양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손으로 쓴 필사본을 등사한 유인본
- 형 식 : 컬러 인쇄의 양장본
- 조성연대 : 1927년
- 현 상
 - 「조선말 독본」(첫책)은 독립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는 독립운동사 자료 중의 하나이다. 중국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단 총부와 호노롤루에 있던 독립단 지부 이름으로 발행 한 것이다.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똑 같은 첫책 두 권이다.
 - 독립기념관에는 「조선말 독본」(첫책)이 두 권 보관되어 있다. 이 두 권은 완전히 같다. 이 책의 표지에는 상단에 태극 표지가 있고 그 아래 풀어쓰기와 모아쓰기 두 가지 방식으로 쓴 서명(書名)이 있다. 풀어쓰기 서명은 ‘도선말 독본 첫책’이다. 모아쓰기 서명은 좌에서 우로 세로쓰기 방식으로 ‘도선말 독본 첫책’이 3행으로 나뉘어져 써 있다. 내지에도 두 가지 방식의 서명이 있으며, 서명을 둘러싼 서양풍의 세부 그림 장식이 돋보인다. 목차 해당 면에는 ‘공과 목록’이라 하여 제1과(학교에 가자! 학교에 가자!), 제2과(어머니의 말ㅅ·ㅁ), 3과(선생님의 말ㅅ·ㅁ) 등으로 시작하여, 제29과(숨기내기)에서 마치고 있다. 본문만 전체 80면이다.
 - 권말의 판권지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선말 독본 첫책
 - 四千二百六十年(一九二七) 丁卯 五月一日 발행
 - 대도선 독립단 학무부 편습
 - 대도선 독립단 실업부 인쇄
 - 대도선 독립단 총단장 발행
 - 발행소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
 -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 통신처 호노롤루 우함 一五一四
 - 북경 우함 三三
 - 책의 말미에 “출판될 서적의 밀히 통지”라는 제목 아래 “도선말 독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책”이 소개되어 있다. 이 다섯 책이 모두 간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독립기념관에 보존된 책은 「도선말 독본」 다섯 책 중 첫책에 해당한다.
- 내용 및 특징
 - 「조선말 독본」(첫책)은 표지와 내지 뒤에 오는 책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도선말 독본 첫책 공과 목록
 - 공과 一 학교에 가자! 학교에 가자!
 - 공과 二 어머니의 말ㅅ·ㅁ
 - 공과 三 선생님의 말ㅅ·ㅁ
 - (중략)
 - 공과 二十 소시ㅅㅁ 질
 - 공과 二十一 군대 놀음
 - 공과 二十二 별구경, 달구경
 - (중략)
 - 공과 三十六 발발이의 자동차

공과 三十七 수수지니서이

공과 三十八 책만이, 책 시세

- 공과 제목이 끝난 다음 장에 “셔로 교정ㅎ·ㄴ 도션 국문 자모”라 하여, “운모 혹은 모음” 아래 “ㅏㅑㅓㅕㅗ ㅛㅜㅝㅟㅣㅚ”를 두었다. 이 중에 마지막 모음자 ‘ㅚ’은 아래아(·)의 음가를 가리킨 것인데, 원래 아래아는 ㅣ와 ㅡ의 합음자이므로 이 두 글자를 합쳐 ㅚ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 글자를 만든 취지는 근래 ·를 ㅏ로 읽는 폐단을 없애고자 함을 밝혀 놓았다.
- “성모 혹은 자음” 아래,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ㅎㄱㅅ(이하 9자 자형이 없어서 입력하지 못함) 등의 자모를 설정하고 새로운 모양의 자음 글자를 만든 취지를 설명해 놓았다. 기본적인 취지는 “외국음을 번역ㅎ·ㄴ·ㄹ데쓰고져 ㅎ·ㅁ이라”라고 밝혀 놓았다. 외국어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글의 글자꼴을 바꾼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 자모 글자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도션 국문을 가로 쓸 계획과 ㅅㅇ 초서 테”라 하여 가로쓰기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가로쓰기를 해야 시간과 금전과 경제적 이익이 천배 만배나 된다고 하였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이 책은 세로쓰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서와 달리 좌에서 우 방향으로 본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서양서의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가로쓰기를 할 때는 초서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음자와 모음자에 각각의 초서체 글자꼴을 제시하였다.(15쪽) 이 글자꼴들은 영문자 필기체와 비슷하여 최현배 선생이 『글자의 혁명』(1940년)에서 제안했던 내용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16쪽에는 “초서로 가로 쓰ㄴ·ㄹ 본보기”라 하여 한글 문장을 제안한 초서체로 가로쓰기한 한 예를 제시해 놓았다.
- 이런 내용이 모두 끝난 뒤 제1과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 본문 속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작은 글씨로 써 넣은 곳이 더러 있다. 본문 내용은 각종 동물과 어린이들을 등장시켜 이들의 대화와 놀이로 전개되어 있다. 각 면에는 재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흥미를 돋우게 하였다.
- 판권지 뒤에는 붉은 글씨로 조선어 속에 한자말이 너무 많고 우리말이 빈곤함을 지적하여 그 원인을 나름대로 설파한 글이 붙어 있다. 이 글의 지은이는 박용만이다. 박용만은 이 책의 저자로 판단된다. 박용만은 미국에서 독립단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 이승만 과와 대립을 이루었던 사람이다.

○ 기 타

- 기증자의 기증을 받다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이 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선말 독본」(첫책)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단체에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책은 미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박용만의 저술로 판단된다. 조선어의 자모를 외국어음 번역에 알맞게 변형한 것이라든가 풀어쓰기를 주장하며 초서체 글자를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이런 국어사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책은 “성모 혹은 자음”이라는 제목 하에,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ㅎㄱㅅ 등 한글 자모를 변형하여 외국어음을 표기하는 발음 기호로 사용하려 한 시도가 주목된다. 한글을 세계 언어음을 표기하는 음성부호로 만들기 위해 한글의 글자꼴을 바꾼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 책의 말미에 “출판될 서적의 밀히 통지”라는 내용에 “도선말 독본 둘재, 셋재, 넷재, 다섯재 책”이 소개되어 있다. 「조선말 독본」 다섯 책이 모두 간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독립기념관에 보존된 책은 「도선말 독본」 다섯

책 중 첫 책에 해당한다. 다섯 책이 모두 전해지지 않지만 이 책이 제1책인 만큼 이 책이 갖는 가치가 높다고 본다.

※ 참고 자료

박용만(朴容萬, 1881년 7월 2일[1] ~ 1928년 10월 16일)은 대한제국의 계몽 운동가이자 언론인, 한국의 독립운동가, 군인, 언론인이다. 1927년 4월에 박용만은 호놀룰루 팔라마에 국어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 이름을 우성학교라 하였고 이때 직접 편찬한 초등국어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의 저서에는 '국민개병설'(1911년), '군인수지'(1912년), 《미국 혁명사》가 있다.

- 종합의견 : 「조선말 독본」(첫책)은 1927년에 활동하던 미국 호놀룰루의 독립 단총부와 중국 북경의 독립단 지부의 이름으로 출판한 국어 학습서이다. 독립 운동을 하고 있던 단체에서 그 지역의 어린이에게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국어 교과서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카. 조선말 교과서 둘째책

- 1) 명 칭 : 조선말 교과서 둘째책
- 2) 소 유 자 : 독립기념관
-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 4) 수 량 : 3권(동일권)
- 5) 규 격 : 12.9×18.6cm
- 6) 발행주체 :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
- 7) 재 질 : 종이(양지)
- 8) 조성연대 : 1927년
- 9) 조사자 의견

<전 연세대학교 ○○○ 교수(국어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조선말 교과서(둘째 책)
- 소 유 자 : 독립기념관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 량 : 1책 (동일한 책이 3부 있음)
- 규 격 : 12.9×18.6 cm
- 재 질 : 양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석인본
- 형 식 : 양장본
- 조성연대 : 1927년
- 현 상
 - 이 책은 1927년에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에서 간행한 우리말을 배우는 독본이다.
 - 표지는 도선말 독본(첫 책)과 마찬가지로 위에 가로쓰기로 '도선말교과서'를 풀어쓴 'ㄷㅇㅅㅋㄴㅇㅂㄹ ㄱㅇㄱㅇㅅㅋ'라 쓰이어 있고 그 아래에 '둘째책'을 풀어쓴 'ㄷㅌㄹㅈㅈ ㅈㅈㄱ'이란 글씨가 있다. 그 아래에 '도선말 교과서 둘째책'이라 쓰이어 있는데 왼쪽 첫줄에 '도선말', 둘째 줄에 '교과서' 셋째 줄에 '둘째책'이라 쓰이어 있다. 그 아래에는 모자를 쓴 소년이 오른 손에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달리는 그림을 그려 놓았다.
 - 내지에는 표지와 마찬가지로 가로쓰기로 '도선말교과서'를 풀어쓴 'ㄷㅇㅅㅋㄴㅇㅂㄹ ㄱㅇㄱㅇㅅㅋ'라 쓰이어 있고 그 아래에 '둘째책'을 풀어쓴 'ㄷㅌㄹㅈ

내 차례가'이란 글씨가 있다. 그 아래에는 세로로 '도선말 교과서 둘째책'이란 글씨가 있다.

- 모두 '도선말 독본'과 동일한 체재로 되어 있어서 이 책이 '도선말 독본'과 한 질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조선말 교과서'가 '도선말 독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도선말 교과서'의 내지 앞 부분에 '도선말독본'에서 제시한 '새로 교정한 도선 국문 자모' 부분의 문장을 조금씩 수정하여 '도선 국문의 자모'라고 하여 전재해 놓았다는 점과 첫째 책에서 제시한 '도선 국문을 가로 쓸 계획과 또 초서 테'를 '도선 국문을 가로 쓰기 위하여 새로 채용하는 초서 테'로 이름을 바꾸어 전재하여 놓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첫째 책인 '도선말 독본'을 먼저 공부하고 이어서 '도선말 교과서'를 공부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선말 교과서'에는 목차가 없이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의 앞에 '도선말 교과서 둘째 책'이라 해 놓고 '얼인 아이 둘이 학교에 간다'로 시작되는 본문이 이어진다. 본문 속에는 곳곳에 삽화가 그려져 있다. 매 쪽마다 글자의 색깔을 달리하여서 1쪽에는 붉은 색을, 2쪽에는 푸른 색을 사용하여 인쇄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였다.
- 본문은 87쪽으로 끝나고 그 뒤에 '교사덜과 학부형덜에게'란 글과 '출판될 서적의 밀히 통지'란 글이 있고 이어서 판권지가 나온다. 그 뒤에 영어로 된 속표지가 있고 마지막 뒷표지에 독립운동가 박용만의 글이 있다. '교사덜과 학부형덜에게'에서는

이 책은 온전히 유치원 학도를 위하여 쓴 것이라 이 책으로 글을 가룻한다 난 것보다 말을 가룻하기를 주장함이니 청컨대 집에서나 학교에서 아이덜에게 글임을 보여 주고 말로 해석하여 더의덜로 하여금 그 말을 다시 ○고ㅁ이게 하기를 시험하시오. 첫째 첫 머리에 '교사덜에 두어마저'라 하고 쓴 것이 대단히 긴요하니 그것을 항상 보시오 박용만

이라고 하여 이 책이 유치원생들에게 읽히기 위한 것이고 글자보다는 말을 먼저 익히게 하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교과서가 이국 땅에서 우리말을 잊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말을 익히게 하기 위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이 일련의 책들은 일정한 계획 아래에 편찬되었음을 '출판될 서적의 밀히 통지'라는 글에서 알 수 있다.

도선말 독본 다섯 책 : 첫 책은 이미 출판 나머지는 이제 인쇄중
도선말 음모음 한 책 : 글자마다 발음 음으로 몰아 쇼학 사년급까지 쓰게 할 것
도선의 간략한 역사 : 조선 력대의 흥망과 도선족의 발현

그래서 이 책은 모두 8책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말 독본 5책
조선말 교과서 1책
조선말 음모음 1책
조선의 간략한 역사 1책

이 그것이다.

이 책이 다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책이 2종밖에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뒤의 판권지는 ‘도선말 독본’과 동일하다. 단지 책 제목만 다를 뿐이다.

이 책은 ‘도선말 독본’과 마찬가지로 세로 쓴 책이지만 세로 쓴 책은 보통 각 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 있는데 이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 있어서 매우 특이한 배열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서지기술

- (1) 책명: 도선말 교과서
- (2) 저자 :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
- (3) 발행소 :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
- (4) 발행연도: 1927년
- (5) 판종 : 석인본
- (6) 지질 : 양지
- (7) 소장자 : 독립기념관
- (8) 책광 : 12.9x18.6cm
- (9) 판광 :
- (10) 판식 :
- (11) 장수 : 모두 98쪽
- (12) 보존상태 : 매우 양호한 편
- (13) 내용







○ 이 책에서는 ‘도선말 독본’에서 제시한 ‘도선 국문 자모’를 그대로 적용하여 쓰고 있다. 이 자모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자모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이 책을 통해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임을 감안하여 창안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이 어린이들이 접하는 언어는 영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불어 등의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외국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한글 자모를 변형하여 표기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 그 대표적인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모음 글자

글자	표기 대상
	국어의 ‘ㅏ’

2. 자음 글자

글자	표기 대상
	영문의 g, 일문의 가
	법문의 ñ
	영문의 d, 일문의 닷
	한문의 日, 人, 瑞,
	영문의 v, 러시아글자의 ъ
	영어의 z, 일문의 자
	한문의 作, 座, 일문의 ツ

区	
区	한문의 錯 덕문의 z
区	덕문의 y 아문의 x와 근사
区	영문의 th
区	영문의 f 아문의 ϕ
区	영문의 sh, 덕문의 sy
区	한문의 十, 祥

- 책의 말미에는 판권지가 붙어 있는데 인지를 붙이는 난에는 ‘출판권을 독립단에서 보류함’이라 하였고, 四千二百六十年(一九二七) 5월 1일 발행이라 되어 있다. 편집(‘편집’)은 ‘대도선 독립단 학무부’, 인쇄는 ‘대도선 독립단 실업부’, 발행은 ‘대도선 독립단 총단장’으로 되어 있다.
- 통신처는 ‘북경 우함 33, 호노쑤쑤 〇구 1514’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발행소는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로 되어 있다.
- 이 책은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선조들이 해외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편찬한 조선어 교과서로 새로운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의의

-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만들어 놓은 매우 희귀한 조선어 교과서이다. 따라서 독립운동사, 한글 변화사, 교과서 편찬사 등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〇〇〇 문화재전문위원(근대소설)>

- 명 칭 : 조선말 교과서(둘재책)
- 소유자 : 독립기념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 량 : 1책
- 규 격 : 13.0×18.8 cm
- 재 질 : 양지
- 조성연대 : 1920년대
- 현 상
 - 동일한 책 2권이 보관되어 있음
 - 보관 상태는 매우 양호함
 - 표지는 가로쓰기로 ‘도선말교과서’(도선말교과서)라고 풀어 써 있고, 그 아래에 ‘둘재책’이란 글씨가 있다. 그 아래 첫줄에 ‘도선말’, 둘째 줄에 ‘교과서’ 셋째 줄에 ‘둘재책’이라 써 있다. 내지도 표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 「도선말독본」과 동일한 판권지와 동일한 체재로 되어 있어서 「도선말독

본」과 한 질로 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 내용 및 특징

- 이 책은 「조선말 독본」과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 내지 앞 부분에 「조선말독본」에서 제시한 「새로 교정한 조선 국문 자모」의 문장을 조금 수정하여 「조선 국문의 자모」라고 전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첫째 책인 「조선말 독본」을 먼저 공부하고 이어서 「조선말 교과서」를 공부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 본문에는 삽화가 그려져 있으며, 쪽마다 글자의 색깔을 달리하여서 1쪽에는 붉은 색을, 2쪽에는 푸른 색을 사용하여 인쇄하고 있다. 마지막 뒷표지에는 「조선말 독본」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 박용만의 글이 실려 있다.
- 그리고 「출판될 서적의 밀히 통지」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말 독본」은 다섯 책으로 출간된 예정이었으나 실제 출간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조선말 음모음』이나 『조선의 간략한 력사』도 마찬가지로이다.
- 이 책은 『조선말 독본』과 마찬가지로 세로쓰기로 되어 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것도 특이하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선말 교과서」는 조선독립단에서 편집하고 발행한 우리말 교과서이다. 판권지에 따르면 북경 독립단 지부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아 두 지역에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책에 실려 있는 「교사덜과 학부형덜에게」에서는 “이 책은 온전히 유치원 학도를 위하여 쓴 것이라 이 책으로 글을 가룻한다난 것보다 말을 가룻히기를 주장홈이니 청컨대 집에서나 학교에서 아이덜에게 글임을 보여 주고 말로 해석호야 더의덜로 호여금 그 말을 다시 ○ㄴㅁ이게 호기를 시험호시오”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타국 땅에서 우리말을 잊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글보다 말을 먼저 익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실제로 이 책과 「조선말 독본」에서 기존의 한글 자모를 수정하여 새로운 표기체계를 세우려 한 것은 이러한 언어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문음이나 독일어음이나 한문 북경음 등을 표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음이나 모음을 만드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 이처럼 「조선말 교과서」는 『조선말 독본』과 함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지사들이 자신들이 활동하던 지역의 언어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말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어서 독립운동사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이 현지의 언어와 접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경북대학교 교수(국어학)>

- 명 칭 : 조선말 교과서(둘재책)
- 소유자 : 독립기념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상방로 95 독립기념관
- 수 량 : 3권 (동일한 책이 두 권임)
- 규 격 : 책 크기는 12.9×18.6cm
- 재 질 : 양지
- 판 종(서지의 경우) : 손으로 쓴 필사본을 등사한 유인본
- 형 식 : 컬러 인쇄의 양장본
- 조성연대 : 1927년
- 현 상

- 조선말 교과서(둘재 책)은 독립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는 독립운동사 자료 중의 하나이다. 중국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단 총부와 호노롤루에 있던 독립단 지부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이다.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똑 같은 둘째 책 세 권이다.
- 독립기념관에는 「조선말 교과서」(둘재책)이 세 권 보관되어 있다. 이 세 권은 완전히 동일한 책이다. 이 책의 표지 상단에 가로 풀어쓰기 방식의 서명과 세로 모아쓰기 방식의 서명(書名)이 있다. 풀어쓰기 서명은 ‘ㄷㅇㅅㅋㄴㅇ ㅏㄹ ㄱㅇㄱㅇㅏㅅㅋ’이다. 모아쓰기 서명은 좌에서 우로 세로쓰기 방식으로 ‘조선말 독본 교과서 둘재책’이 3행으로 나뉘어져 써있다. 표지 그림은 군인 모자를 쓴 어린이가 말 위에서 칼을 높이 들고 달리는 장면이다. 표지는 컬러 인쇄이다.

권말의 판권지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말 교과서 둘재 책
 四千二百六十年(一九二七) 年 六월 一일 발행
 대도선 독립단 학무부 편습
 대도선 독립단 실업부 인쇄
 대도선 독립단 총단장 발행
 발행소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
 통신처 호노ㄷㅇㅅㅋ 우함 一五一四
 북경 우함 三三

- 판권지 뒤에 이 책의 영문 서명과 간행 주체 등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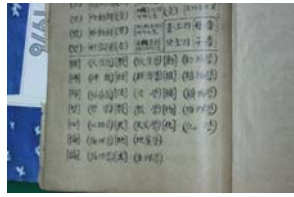
- 「조선말 교과서」(둘재책)는 표지 다음 장에 “조선 국문 자모”라 하여 모음과 자음자를 설명해 놓았다. 그 방식은 「조선말 독본」(첫책)과 같이 외국어 번역 시 외국어 어음을 표기하기 위해 글자꼴을 변형시킨 예시가 나와 있다. 이것이 끝난 뒤 내지에 해당하는 지면에 책 이름이 풀어쓰기와 모아쓰기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온다.
- 목차 면은 따로 없고, 본문에서도 단원 표기 번호가 없이 본문만 전체 87면이 이어져 있다. 본문 내용은 각종 동물과 어린이들을 등장시켜 이들의 대화와 놀이로 전개되어 있다. 각 면에는 재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흥미를 돋우게 하였다.
- 본문이 끝난 뒤에 “교사덜과 학부형덜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책은 온전히 유치원 학도를 위함·야 쓴 것이다.”라고 하면서 글보다 말을 가르치라는 당부를 하였다. 그리고 첫책 머리에 “교사덜에 두어 마디”라는 제목의 글이 중요한 내용이니 항상 보라고 하였다. 이 글을 쓴 이는 박용만으로 되어 있다.
- 이어서 “출판될 서적의 밀히 통지”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조선말 독본 다섯 책 첫책은 이미 출판. 나머지는 이제 인쇄 중
 조선말 음몰음 한 책 글자마다 음으로 본와 쇼학 사년급ㅏㅏ지 쓰게 할 것
 조선의 간략한 력사 조선 력대의 흥망과 조선 족의 발던
- 위의 책들이 모두 간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독립기념관에 보존된 책은 조선말 교과서(둘재 책)이다.
- 뒷표지 안쪽 면에 박용만이 쓴 당부의 글이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집안의 아들과 딸에게 모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은 값없는 보배를 남겨 주는 것과 같고, 일평생 얻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

라는 당부의 말이다.

- 이 글의 지은이는 박용만이다. 박용만은 이 책의 저자로 판단된다. 박용만은 미국에서 독립단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 이승만 파와 대립을 이루었던 사람이다.
- 기 타
 - 기증자의 기증을 받다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이 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선말 교과서」(둘재책)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단체에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조선어의 자모를 외국어음 번역에 알맞게 변형한 것이라든가 풀어쓰기를 주장하며 초서체 글자를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이런 국어사적으로 주목에 값할 만하다.
 - 이 책의 저자와 발행자는 독립운동가 박용만일 것으로 판단된다. 박용만은 미국에서 독립단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 이승만 파와 대립을 이루었던 사람이다.
 - 책의 말미에 “출판될 서적의 밀히 통지”라는 내용에 「도선말 독본」 다섯 책, 『도선말 음뭇음』 한 책, 『도선의 간략한 력사』라는 책이 소개 되어 있다. 이 책들이 모두 간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독립기념관에 보존된 책은 ‘도선말 교과서’에 해당한다. 현전하는 책이 간행된 책들의 일부이긴 하지만 해외의 독립단이 모국어를 어린이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교과서를 편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 종합의견 : 「조선말 교과서」(둘재책)은 1927년에 활동하던 미국 호놀룰루의 독립단총부와 중국 북경의 독립단 지부의 이름으로 출판한 국어 학습서이다. 독립 운동을 하고 있던 단체에서 그 지역의 어린이에게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교과서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7. 유물사진

가. 말모이 원고



나. 국어사전 원고



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



라. 국한회어



마. 국어문법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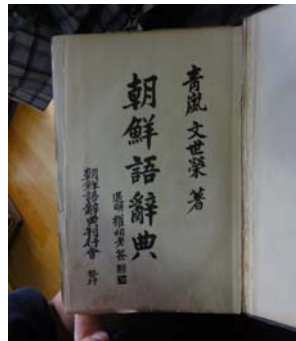
바. 국문연구안



사. 국문정리



아. 조선어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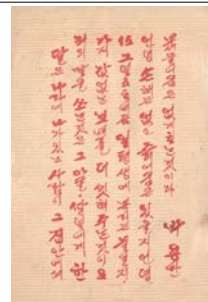
자. 전보장정



차. 조선말 독본 첫책



카. 조선말 교과서 둘째책



9.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소재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12.03.29)된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06.18)를 실시하고, 활용계획서를 제출('12.9.)받아 문화재 등록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인건(서울 성북구 성북동 ○○)
- (2) 대상문화재
 - 명 칭 :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방학동 430번지 외 1
 - 소유자 : 전성우
 - 수 량 : 본채/ 69.36㎡, 협문2개, 굴뚝, 담장
 - 건립시기 : 1900년
 - 건축구조 : 목조 와가
 - 건축양식 : 정면5칸·측면3칸, ㄱ자형, 단층, 홑처마 팔작지붕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추진경과

- '12.03.29. 문화재 등록 신청
- '12.06.18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2.08.02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 전형필선생 관련 유적 추가 조사 및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재검토
- '12.09.17 활용계획서 제출(전형필선생 관련 유적은 간송미술관 외 없음)

마. 활용계획(안)

- 간송기념관 : 간송 전형필 선생 관련 전시기획
 - 일제강점기에 문화재를 수집하게 된 역사적 이야기
 - 보존된 민족문화유산의 오늘날의 의미와 가치
- 전통 교육관 : 전통한옥에서의 한옥 체험교육장 및 전통공예체험
- 전통 다실 : 한국 고유 전통 차 및 다도실 설명 교육

바.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06.18)>

- 문화재위원 ○○○(건축사)
 - 일제 강점기 수탈되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 수집하고,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등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였던 간송의 자취가 남아 있는 장소로서 문화,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100여년이 된 전통한옥으로서 건축적 가치도 있음
 - 건물 하나만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 보다는 건물과 묘지 일곽을 포함하여 지방문화재(기념물) 지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간송 전형필 선생의 대한민국 문화재 보존 및 수집 등에 미친 인물사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관련유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간송 미술관이 1938년 건축되어 최초의 사립미술관이고, 실질적으로 간송 전형필 선생의 대한민국 문화재 보존 및 수집 등과 관련된 유적임을 고려한다면 간송 전형필 선생 관련 대표유적으로서 간송미술관을 등록하는 것이 더 의미있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축물은 간송 전형필 관련 유적으로 문화재 등록의 의미는 있으나, 시기적으로 유사한 시기에 건축된 전주 한옥마을 및 서울 북촌 개별 가옥과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등록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근대건축)
 - 주변에 간송 전형필 선생의 묘도 있고, 운현궁 노안당을 닮은 건축적 형식과 격, 회색 전돌을 활용한 담장과 높이 솟은 굴뚝 등이 조형적으로도 아름다워 간송의 인물사적 의미와 더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 단지 가옥만이 아니라 전명기, 간송 전형필의 묘역을 함께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한국근대인물로서의 간송이 그동안

행한 업적을 생전의 보화각과 생후의 묘역으로 나누어 그려낼 수 있기 때문임

<근대문화재과 의견>

- 자체적으로 간송 전형필선생 기념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해당지자체 (도봉구)에서는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문화탐방코스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일제 강점기 당시 수탈되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 수집하고,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등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였던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자취를 찾아 볼 수 있는 장소로 등록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사. 검토결과 : 원안 가결

-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문화재 등록 예고
- 출석 10명, 찬성 10명

붙임 :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등록조사보고서('12.06.18) 1부.

<붙임>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조사보고서('12.6.18)

1. 명 칭 : (현)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구)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2. 용 도 : (현) 가옥 (원) 가옥
3.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430번지의외 1
4. 소유자 : (현) 전성우 (원) 전형필
 - 현소유자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기와지붕
 - 준공일 : 1900년
 - 대지면적 : 605㎡
 - 건축면적 : 본채/69.36㎡, 협문2개, 굴뚝, 담장
 - 연면적 :
 - 층수(높이) : 단층
6. 구조 및 양식
 - 가. 건축양식
 - 정면5칸·측면3칸, ㄱ자형
 - 단층, 홑처마 팔작지붕, 7량가
 - 나. 주요특징
 - 건축 당시 인근에 있었던 대규모 농장 및 경기북구/황해도에서 오는 소출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적 근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거주할 집으로 만들어짐
 - 1919년 전명기 사망 이후 본 한옥 부근에 양부의 묘소를 꾸미고 이후부터 간송이 사용하였음
 - 간송 역시 서울 북부의 거점으로서 양주군 전가농장을 방문할 때 거처로 사용하였으며, 양부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도 자주 방문했다고 함
 - 원래는 본 한옥 인근은 모두 간송 집안 소유의 전답이었으며 부근에 다수의 농가들과 농지관리인의 집이 따로 있었다고 함
 -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필요한 제구를 보관하고 일기가 좋지 않으면 본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제사를 지내는 등 재실로도 사용됨
7. 연혁 및 수리기록
 - 1900년 건립
 - 1919년 개축(본채 북쪽에 전형필선생 부친묘지조성)

-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대문과 담 일부 소실
- 1962년 개보수(종로4가 본가의 부재를 활용-재실로 사용)
- 1970년 중반 부엌개조(수도 및 LPG가스 배관 설치), 연탄 보일러실 및 창고 설치, 전기 설비 설치(묘지관리인 사용)

8. 문화재보존여건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나, 현재 사용이 되지 않아 지붕의 기와가 파손이 심하고 방수에 문제가 있음. 1970년대부터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LPG 가스배관 및 수도를 설치하였다. 우측에는 연탄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왼쪽 온돌방과 오른쪽 작은 방에 전기설비를 하였고 리놀륨 장판을 설치하였다. 또 왼쪽 아궁이가 있던 자리에는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소형 창고 등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변형은 구조적으로 큰 변형을 가져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고친 것으로 보수를 통해 원래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주변에 연산군묘와 방학동 성당이 있어서 이들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주변이 주로 주택가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특히 간송 전형필 선생의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그의 묘역이 같이 조성되어 있어서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함. 간송이 갖고 있는 근대역사 인물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

- 소유자 측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에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9. 조사자 의견('12.6.18)

<문화재위원 ○○○(건축사)>

1) 전형필 가옥 개요

- 본 건물은 문화재 수집, 보존 연구가이며, 교육자이신 간송 전형필 선생 집안에서 오랫동안 서울북부의 거점으로 사용해오던 전통한옥으로 1942년 간송의 양부 전명기공 사망 이후에는 재실의 용도로, 1962년 간송 선생 사망이후에는 전명기공과 간송의 묘소를 돌보는 묘지기의 거쳐 및 재실의 용도로 사용해왔던 건물이다.
- 성북동 북단장(北壇莊, 현 한국민족미술연구소) 한옥건물의 소실과 종로 본가건물의 재개발로 모두 사라진 후 간송선생의 자취가 남아있는 유일한 한옥 건물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정면 5칸 측면 3칸의 ㄱ자 한옥으로 부엌개조 및 창고 증축 등 일부 변형 외에는 주요 구조와 형태는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1900년에 초창하였고 1919년 간송의 부친묘를 조성하면서 개축하였으며, 한국전쟁 중 대문과 담 일부가 소실되었다. 1962년 간송 사망 후 종로 4가 본가의 부재를 일부 활용하여 개보수하고 재실로 사용하여왔으며, 1970년대 중반 부엌을 개조하였다.
- 장대석 2벌대 기단 위에 사다리꼴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사각기둥을 놓았는데 가구는 2고주 7량가의 소로수장 민도리집이다. 오른편 돌출부는 루마루 형식이며, 처마는 흘처마이고 사방에 함석 차양을 달았다. 창호는 전면에 유리문 미닫이를 방에는 창호지 바른 창호를 달았다.

3) 문화재 보존여건

- 본 건물은 건물 뒤편의 간송과 간송 양부의 묘와 함께 관리되고 있다. 소유주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리하고(일부 사유지와 개인소유 포함) 한옥의 수리보존을 거쳐 문화체험 및 교육·전시 기능의 공원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어 보존여건은 좋음. 다만 신청대상 한옥은 기와 및 일부부재의 노후화와 오랫동안의 미사용으로 수리가 시급한 상태임

4) 등록가치의견

- 일제 강점기 수탈되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 수집하고,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등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였던 간송의 자취가 남아있는 장소로서 문화,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100여년이 된 전통한옥으로서 건축적 가치도 있음
- 건물 하나만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 보다는 건물과 묘지 일곽을 포함하여 지방문화재(기념물) 지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 등록 시 “서울 전형필 묘막” 또는 “서울 전형필 옛 가옥”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1) 전형필 가옥 개요

-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서울 전형필 가옥은 도봉구 방학동 시루봉 아래 위치
- 간송의 양부 전명기 때 지어진 전통가옥으로 추정(1890~1900년대)하고 있으며, 건축당시 건축 당시 인근에 있었던 대규모 농장 및 경기북구/황해도에서 오는 소출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적 근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거주할 집으로 만들어짐
- 1919년 전명기 사망 이후 본 한옥 부근에 양부의 묘소를 꾸미고 이후부터 간송 역시 서울 북부의 거점으로서 양주군 전가농장을 방문할 때 거처로 사용하였으며, 양부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도 자주 방문했다고 함
- 원형은 대문과 담장, 본채, 후원, 굴뚝 등이 갖추어진 건물이었으나, 한국전쟁당시 폭격으로 대문과 담이 소실됨. 1962년 간송 사망이후 종로4가 본가를 매각하

고 본가를 철거하면서 나온 자재를 활용하여 1962~3년 본 한옥을 부분적으로 수리함

- 1962년 간송 사망이후에는 양부 전명기 공 및 간송 묘소의 재실 용도로 주로 사용함. 1970년대 이후 2004년까지 묘지관리인이 거주하였으며, 수도 및 가스배관, 연탄보일러 설치, 방의 전시설치 등 개조가 일어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정면4칸·측면3칸, ㄱ자형, 단층, 홑처마 팔작지붕
- 평면은 장방형으로 우측 누마루와 가운데 마루, 그리고 좌측의 온돌방 2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측 온돌방 전후면으로 퇴칸이 마루로 구성되어 있음
- 2단의 장대석 기단위에 정연하게 다듬은 초석, 그리고 사각방주를 세우고 전면으로 유리 덧문을 달아 전반적으로 시대적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도 고급스럽게 건축된 가옥임. 온돌방의 뿔마루측 창호도 내부 창호지 미서기문과 함께 접이식 덧문을 달아 기능적이면서 의장적인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음
- 주변 담장 및 후원의 굴뚝 등 보존상태 및 의장적인 특성이 양호함

3) 문화재 보존여건

-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서울 전형필 가옥은 후손들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 묘지관리인이 되거 후 매년 점검 및 관리방문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음.
- 건축물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지붕의 일부가 퇴락한 점, 벽체의 일부가 탈락한 점, 창호가 전체적으로 파손되거나 손·망실된 점, 그리고 1970년대 시대적 필요에 의해 보일러 설치, 누마루 싱크대 설치로 인한 누마루 파손 및 창고 증축부 등 전체적인 수리보수를 통한 원형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4) 등록가치 의견

- 간송 전형필 선생의 대한민국 문화재 보존 및 수집 등에 미친 인물사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관련유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간송미술관이 1938년 건축되어 최초의 사립미술관이고, 실질적으로 간송 전형필 선생의 대한민국 문화재 보존 및 수집 등과 관련된 유적임을 고려한다면 간송 전형필 선생 관련 대표유적으로서 간송미술관을 등록하는 것이 더 의미있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건축물은 간송 전형필 관련 유적으로 문화재 등록의 의미는 있으나, 시기적으로 유사한 시기에 건축된 전주 한옥마을 및 서울 북촌 개별 가옥과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등록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현재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전반적인 수리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 등록 신청되는 건조물의 경우 소유자가 수리보수를 위한 예산지원 측면에서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두되고 있는 바 소유자가 시기적 건축형식 등을 고려하여 수리복원 후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5)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간송 전형필 선생이 1년에 몇차례 거주하긴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주로 종로에 거주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 전형필 가옥” 명칭은 주로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문화재 수집 등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간송 전형필 관련 가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문화재전문위원 ○○○(근대건축)>

1) 전형필 가옥 개요

- 이 가옥은 간송 전형필의 양부인 전명기(1870~1900)에 의해 1900년 대 경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된다. 1919년 간송의 양부인 전명기 사망 후 이 가옥 부근에 묘소를 꾸미고 양부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회색의 전돌을 활용한 담장이 매우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고 정교하게 다듬은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가옥은 전체적으로 운현궁의 노안당 형식과 유사하다.
- 1970년대 이후 일상생활을 위해 부분적으로 LPG 등 전시 및 수도 시설을 하였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양부의 전명기의 제사를 위한 제실로 사용하거나 잠시 들러 쉬거나 집안 일을 챙겼던 공간으로 생각한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행랑채와 사랑채 그리고 안채로 구성된 일반적인 살림집으로서 보다는 독립된 사랑채를 옮겨놓은 듯하다. 담장 안에 단지 이 가옥만을 집어넣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인근주변이 모두 간송 소유의 전답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음식 등은 농지관리인 혹은 묘지 관리인에 의해 제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담장 기반부가 3단으로 비교적 높고 기둥과 보 그리고 도리 등 부재의 다듬기 정도가 매우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운현궁의 노안당과 상당히 유사하다.
- 내부 구성은 ‘ㄱ’ 형의 평면으로 왼쪽의 온돌방은 섬처럼 양쪽에서 마루로 둘러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서까래가 흔히 보이는 장연과 단연의 구성이 아니고 가운데 한번 더 서까래가 놓여 장연, 중연, 단연 형식으로 서까래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의 지붕 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ㄱ자의 두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온돌방이 설치되어 있다. 이 가옥은 제실로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인 제실의 형식과는 전혀 다르다.
- 이는 간송 전형필 선생이 제사를 위한 형식적인 제실을 갖추기 보다는 가끔씩 찾아와서 휴식 및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생각에서 이러한 형식을 유지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양부인 전명기의 묘소가 만들어 진 후 이 가옥이 지

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어진 이 가옥을 활용하여 제사를 지낼 때 제실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간송의 사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3) 문화재 보존여건

- 현재 이 가옥은 이용이 되지 않아 다소 심하게 쇠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리가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면 문화재로서의 보존 여건이 매우 좋고 이와 더불어 주변에서의 활용 여건도 좋다고 생각한다.

4) 등록가치 의견

- 주변에 간송 전형필 선생의 묘도 있고, 운현궁 노안당을 닮은 건축적 형식과 격, 회색 전돌을 활용한 담장과 높이 솟은 굴뚝 등이 조형적으로도 아름다워 간송의 인물사적 의미와 더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지 가옥만이 아니라 전명기, 간송 전형필의 묘역을 함께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근대인물로서의 간송이 그동안 행한 업적을 생전의 보화각과 생후의 묘역으로 나누어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5)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문화재 명칭 : 간송 전형필 방학동 가옥

10.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12.07.13)된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12.08.2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 (2) 대상문화재
 - 명칭 :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 수량 : 1동/ 건축면적: 103.9㎡
 - 건립시기 : 1970년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기와지붕
 - 건축양식 : 정면3칸, 측면2칸, 다포, 겹처마 팔작지붕, 5량가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08.29)>

- 문화재위원 ○○○(건축사)
 - 목조건축양식을 콘크리트 구조로 직설적으로 재현하는데 대한 한계와 건축미학적 논란이 있기도 하였지만 대표적 건물인 광화문이 철거된 현재 남아있는 전통목조양식을 모조한 콘크리트 건물로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건물로 사료됨. 따라서 본 건물은 근대 건축재료와 구조로 전통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60-70년대 당시의 기술을 대표하는 사료로서, 기술사적인

측면에서 문화재 등록·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등록기준인 5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의 시급성, 유사한 성격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 등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봉선사 큰법당은 한국 사찰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법당(김동현 전문문화재위원 증언)으로서, 1960년대 건축된 일련의 철근콘크리트 한옥 중 사찰법당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중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에 한정되지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기준에 적합한 사례인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요구됨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불교건축사)
 - 1960~70년대 유행했던 의목조 콘크리트 건축이 사찰 법당에 사용된 중요한 사례이며, 의목조 콘크리트 건축 유행을 선도했던 군사정권의 실세 중 한 사람인 이후락씨가 관여하고, 현대 불교계의 큰 스님인 운허 스님이 발원한 건물로서 근대건축사적 불교사적 정치사적 중요성이 지대한 사례임
 - 건축물의 상태보다는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을 중시할 경우, 문화재 등록도 가능하다고 봄

<근대문화재과 의견>

- 봉선사는 1919년 3월 29일 김성숙 등 봉선사 승려들이 부평리 3·1운동 만세 시위를 계획했던 곳이며, 큰법당은 1915년 흥동학교를 세우고 1918년에는 배달학교를 세워 후진양성에 힘쓰는 한편, 1919년 독립군정기관지인 《한족신보》를 발행하고 1920년에는 광한당을 조직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한 운허 스님에 의해 건립된 역사적인 장소임
- 한국전쟁 당시 법당건물이 전소된 후 그 자리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전통목조양식을 모조하여 건립한 최초의 콘크리트 법당 건물로 추정됨
- 등록문화재 기준인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물이지만 사찰 내부에서 법당 건물을 목조로 복원하자는 의견이 있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항일 독립운동 유공자 관련 유적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 검토결과 : 원안 가결

-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문화재 등록 예고
 - 건축사적인 부분 보완, 한글 화엄경 동판은 추후 등록 검토
- 출석 10명, 찬성 10명

붙임 :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등록조사보고서('12.08.29) 1부.

<붙임>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조사보고서('12.08.29)

1. 명 칭 : (현)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구)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2. 용 도 : (현) 법당 (원) 법당
3.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4. 소유자 : (현)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원)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 현소유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 준공일 : 1970년
- 대지면적 : 10,085m²
- 건축면적 : 103.9m²
- 연면적 : 103.9m²
- 층수(높이) : 단층

6. 구조 및 양식

가. 건축양식

- 정면3칸, 측면2칸, 다포, 겹처마 팔작지붕, 5량가

나. 주요특징

- 목조건축기법을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재현
- 1970년 운허스님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석가여래를 모신 전각을 '대웅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불교대중화에 노력하신 운허 스님의 뜻에 따라 '큰법당'이라 이름하였으며, 현판은 운봉 김인석선생이 썼다.
- 내부에는 금동석가여래좌상과 문수·보현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석가모니후불탱, 신중탱, 반자를 봉안하였다.
- 3면 벽에는 한글 화엄경 동판 125매, 한문 법화경 동판 227매를 부착해 놓아 교학의 산실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7. 연혁 및 수리기록

- 1469년 : 봉선사 초창
- 1592년(임진왜란), 1636년(병자호란) : 소실
- 1637년 : 복구
- 1950년 : 16동 150칸 전소
- 1970년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큰법당 건립
- 1985년 : 외부 벽화
- 2010년 : 큰법당 번와보수

8. 문화재보존여건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철근콘크리트 법당으로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다만, 축대상부 시멘트 모르타

르 바닥에 일부 균열이 있음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찰 봉선사의 큰 법당으로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 환경은 우수한 것으로 사료됨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의 완충지역내에 위치하여 보존여건 및 주변환경 양호함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

- 소유자 측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에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9. 조사자 의견('12.8.29)

<문화재위원 ○○○(건축사)>

- 1) 봉선사 큰법당 개요
 - 1970년 한국전쟁 때 소실된 자리에 건축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철근콘크리트조 다포양식의 팔작지붕 건물로 '대웅전'이라 하지 않고 '큰법당'으로 이름하는 등 불교대중화에 앞장선 운허스님의 뜻이 잘 드러난 건물임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조선시대 다포양식을 표현한 것으로 전통목조 공포기법을 정교하게 모조하였음
- 3) 문화재 보존여건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 숲의 완충지역내에 위치하여 보존여건 및 주변환경 양호함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광릉의 원찰로서 원형보존 여건은 양호함
- 4) 등록가치의견
 - 목조건축양식을 콘크리트 구조로 직설적으로 재현하는데 대한 한계와 건축미학적 논란이 있기도 하였지만 대표적 건물인 광화문이 철거된 현재 아마도 남아있는 전통목조양식을 모조한 콘크리트 건물로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건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건물은 근대 건축재료와 구조로 전통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60-70년대 당시의 기술을 대표하는 사료로서, 기술사적인 측면에서 문화재 등록·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등록기준인 5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의 시급성, 유사한 성격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 등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5)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봉선사 큰법당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1) 봉선사 큰법당 개요
 -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찰로서, 6·25 사변때 건물이 전소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1970년대 운허스님에 의해 정면3칸, 측면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건립됨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정면으로 계단형 기단을 두고, 상부에 큰법당을 건축
 -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한 다포식 팔작지붕의 법당
 - 콘크리트로 만든 초석 및 벽체 등의 공법은 투박하여 목조건축물에 비해 세련됨이 떨어짐
- 3) 문화재 보존여건

-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찰 봉선사의 큰 법당으로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 환경은 우수한 것으로 사료됨

4) 등록가치의견

- 봉선사 큰법당은 한국 사찰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법당(김동현 전 문화재위원 증언)으로서, 1960년대 건축된 일련의 철근콘크리트 한옥 중 사찰법당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중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에 한정되지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기준에 적합한 사례인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요구됨
- 최고 1960년대 건축물의 등록에 대한 논의가 자주 거론되는 바 1845년 이후 1960년대의 1, 2세대 건축가의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향후 문화재로 등록가능한 건조물에 대한 목록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됨

5)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특이의견 없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불교건축)>

1) 봉선사 큰법당 개요

- 봉선사는 세조 광릉의 능침사찰로서, 조선시대에 전국 교종 총본산으로서 봉은사와 함께 중요한 행정적 기능을 담당했고, 한때 전국의 5대 규정소 중 하나로서 불교계의 중심 사찰이었으나, 6.25 전쟁 때 전소되어 폐허화되었다가 1970년대에 현재의 큰법당을 필두로 중창하기 시작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현 큰법당은 철근콘크리트조로 전통 목구조 법당의 양식을 재현한 것으로, 원래의 법당이 정면 5칸 규모였으나 현재는 정면 3칸으로 축소 재현하였음.
- 구조적으로 RC조의 논리에 맞게 건축되었고, 목조 다포 건물의 세부를 충실히 묘사하려 노력한 흔적이 돋보임
- 그러나 지붕 처마의 곡이나, 귀퉁음기법 등 목조건물의 고급기법들을 묘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비례나 곡선미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또한 당시 콘크리트 성형과 양생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듯, 표면이 거칠게 마감된 부분도 노출됨

3) 문화재 보존여건

- RC조 특성상 원형의 변형이나 훼손은 거의 없음
- 최근 단청불사를 시행하여 내외부의 마감 상태도 양호함
- 특히 조선시대 조성한 기단이나 계단과 소맷돌, 뒤편의 화계 등은 매우 우수한 솜씨로서, 현존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함

4) 등록가치의견

- 1960~70년대 유행했던 의목조 콘크리트 건축이 사찰 법당에 사용된 중요한 사례이며, 의목조 콘크리트 건축 유행을 선도했던 군사정권의 실세 중 한 사람인 이후락씨가 관여하고, 현대 불교계의 큰 스님인 운허 스님이 발원한 건물로서 근대건축사적 불교사적 정치사적 중요성이 지대한 사례임
- 건축물의 상태보다는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을 중시할 경우, 문화재 등록도 가능하다고 봄

5)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 (근대문화재)로 가함
- 봉선사의 경우, 조선전기에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석축과 계단, 기단과 화계 등 석조 구조물들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고, 또 그들의 상태와 기법들이 매우 우수하므로 사적이나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임

11. 「담양 고재옥 가옥」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남 담양군 창평면 소재 「담양 고재옥 가옥」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11.10.24)된 「담양 고재옥 가옥」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08.22)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영진
- (2) 대상문화재
 - 명칭 : 담양 고재옥 가옥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435
 - 소유자 : 고영진 외4명
 - 수량 : 4동(건축면적/ 364.66㎡)
 - 건립시기 : 1929년
 - 건축구조 : 목조/기와지붕
 - 건축양식
 - 본채(안채) : 정면8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
 - 사랑채 : 정면3칸, 측면 2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삼칸채 : 정면3칸, 측면 3칸, 홑처마, 맞배지붕
 - 곳간채 : 정면6칸, 측면 1칸, 홑처마, 우진각지붕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08.22)>

- 문화재위원 ○○○(건축사)

- 현재 전통문화 생활의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건축적 보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인도 한국의 문화와 한국학에 관심이 많은 독일인 부부(아내는 한국인)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담양 고재옥 가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한국 전통가옥의 보존 및 활용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건축사)
 - 퇴락된 건물은 제외하고 안채를 중심으로 한 사랑채와 곳간채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1900년대 이 지방 민가를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본채(안채), 사랑채와 삼간채의 경우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천하며, 곳간채(행랑채)의 경우 활용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나 등록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함

<근대문화재과 의견>

- 고재옥 가옥은 1929년에 건립된 근대한옥으로 삼간채의 지붕기와 탈락과 일부 부재의 부식 그리고 곳간채 외벽의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등을 제외하면 구조와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으므로 4동 모두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함

사. 검토결과 : 원안 가결

- 「담양 고재옥 가옥」 문화재 등록 예고
- 출석 10명, 찬성 10명

붙임 : 「담양 고재옥 가옥」 등록조사보고서('12.08.22) 1부.

<붙임>

담양 고재욱 가옥 조사보고서('12.08.22)

1. 명 칭 : (현) 담양 고재욱 가옥
2. 용 도 : (현) 주거용 (원) 주거용
3. 소재지 :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425-1외
4. 소유자 : (현) 고영진의 4명 (원) 고광준
 - 현소유자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19-304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구조/ 기와지붕
 - 준공일 : 1929년
 - 대지면적 : 3,740㎡
 - 건축면적 : 364.66㎡
 - 연면적 : 364.66㎡
 - 층수(높이) : 단층
 - 주요 건축물 : 본채(안채)/ 곳간채(행랑채)/ 사랑채/ 삼칸채
6. 구조 및 양식
 - 가. 건축양식
 - 남북방향의 직사각형 대지에 한가운데에 안채를 두고 안채 뒤편에 삼칸채가 위치해 있다. 안채 우측면으로 사랑채를 두고 안채 맞은편으로 정원으로 조성하고 그 뒤에 곳간채를 건립하였다.
 - 안채는 정면 8칸, 측면 3칸으로 중앙에 대청을 두고 전후퇴를 두었으며, 안채 좌측 2칸은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를 중심으로 세 귀둥이에 적벽돌의 굴뚝을 세웠다.
 - 곳간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좌측 4칸으로 출입문이 있으며, 좌측 제일 마지막칸은 현재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다.
 -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으로 좌측은 가설 덧집을 덧대어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 삼칸채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반우진각 지붕으로 좌측 지붕면이 안채 부엌과 연결되어 맞배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면과 좌측면에 마루를 두고 우측 2칸에 방을 두었다.
 - 나. 주요특징
 - 1929년 건립된 가옥으로 일본풍의 정원 양식을 가미하였다. 적벽돌로 건립된 3개의 굴뚝은 높이가 약 10여m에 이르며, 안채 맞은편에 조성된 정원은 영산홍으로 가득차 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출입구는 반기자로 꺾어 들어가게 만들어졌으며 조경석으로 괴석 등이 놓여있다.
7. 연혁 및 수리기록
 - 1929년 건립(건립자 고광준)하여 고광준-고재욱(고광준 子)-고승석(고광준 孫)-고영진(고광준 曾孫)이 거주2006년~2010년까지 독일인 베르너 샷세 교수,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인 빈도림이 임대하여 거주하면서 <빈도림 생활공방>을 운영
 - 2000년대 초 안채와 삼칸채의 기와 일부 보수

- 2006년 곡간채 화장실(수세식) 보수(곡간채가 언제 변형된 것인지 알 수 없음)

8. 문화재보존여건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29년 건립 이후 주택의 기본 구조에 대한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랑채의 좌측을 넓혀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곡간채의 좌측 마지막칸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 안채 뒤편에 있는 삼칸채의 경우 3~4년 전부터 거주인이 없어 일부 처마가 짝어 내려앉아있는 상황이다.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고재욱 가옥이 소재한 창평 삼지천 마을은 지난 2010년 슬로시티 마을로 지정되어 전통한옥, 전통음식(쌀엿, 된장, 고추장 등 발효음식) 등을 특화하여 마을 공동체 문화를 지켜나가는 전통마을이다.
- 삼지천 마을 내에는 약 3,600m에 달하는 등록문화재 제265호 창평 삼지천마을 옛담장(06. 6. 19 등록)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5호 고재선가옥(86. 2. 7 지정),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37호 고재환가옥(01. 9. 27 지정),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42호 창평 춘강 고정주 고택(08. 4. 11 지정)과 함께 담양군 향토 유형문화유산 제3호 창평 남극루(03. 6. 30 지정) 등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이 거주하는 전통한옥이 10여 가구가 있다.
- 담양 창평 슬로시티위원회(위원장 황거부)는 매달 2, 4째주 토요일을 <슬로시티 방문의 날>로 지정하여 고택음악회, 개미시장, 천연염색, 자연밥상 상차림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고재욱 가옥에 거주하는 빈도림씨는 직접 밀랍초 제작체험 및 꽃차 시음회를 하고 있으며, 올해 7. 21과 8. 18 2회에 걸쳐 고택음악회(전남도립국악단 협조)가 열렸다.
- 창평 슬로시티위원회와 함께 해마다 <한여름밤의 촛불음악회>, <고택 음악회> 등 특색있는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소유자는 고재욱 가옥이 슬로시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심지로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전통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

- 소유자 측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에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9. 조사자 의견(2012.8.22)

<문화재위원 ○○○(건축사)>

1) 고재욱 가옥 개요

- 담양고재욱가옥은 그의 조부인 고정주가 담양군 창평면에 1929년에 세운 가옥으로 이 마을의 장흥 고씨들의 집성촌으로 임란 의병장 고경명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다.
- 고정주는 고경명의 12대손으로 한말 규장각 직각 및 비서감승 등을 역임하였으며 낙향하여 영학숙과 창흥의숙을 세웠고 호남학회를 설립하는 등 호남의 계몽운동 및 근대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가옥은 모두 와가로 남북방향의 직사각형 대지 한가운데에 안채가 있고, 그 뒤편에 삼칸채가 안채의 부엌 뒤로 위치하고 있다. 안채의 우측면에는 사랑

채가 위치하고 안채 맞은편으로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뒤에 곳간채가 배치되어 있다.

- 안채는 정면 8칸, 측면 3칸, 민도리형식의 팔작지붕으로 중앙에 대청과 방이 있고 전후퇴가 있으며 서쪽에 부엌이 있다. 안채에는 유리로 된 창이 여럿 설치되어 있으나 원형으로 생각된다.
-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우진각지붕이며 반침이 2단으로 북측에 설치되어 있다. 받치는 형태가 독특하다. 또한 반침 밑으로 본래 구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자리에 시멘트 메움이 되어 있다. 남측 방은 현대식 다용도실로 변형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의 용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삼칸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기와지붕으로 정면우측은 우진각 형태이고 안채 부엌과 연결된 쪽은 맞배지붕이다. 맞배지붕 밑의 가구 구조를 보면 층량 위로 왕지도리가 있어 반대편 지붕이 우진각 지붕형태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붕 수리 당시 우진각지붕이었던 것을 한쪽만 맞배지붕 형태로 변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곳간채(행랑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 우진각지붕 형태로 동쪽 마지막 칸의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수리하여 욕실 및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서쪽에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고 남측면은 벽을 시멘트로 마감하였다.

3) 문화재 보존여건

- 안채와 사랑채는 비교적 원형유지 및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반면 삼칸채는 지붕기와의 탈락으로 인해 부재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곳간채는 내부에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철문을 설치하였으며 남측면의 외벽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는 등의 변형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현존하는 건물은 구조와 형태가 잘 보존되어졌다고 판단된다.

4) 등록가치의견

- 신청서에 첨부된 배치도 및 각 채 도면 중 안채와 사랑채 및 삼칸채의 도면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안채의 대청마루에 벽과 문, 기둥이 그려져 있는 것과 사랑채 중앙 틈칸 문의 누락, 정면 좌측 반침의 오폭기 및 삼칸채 우측의 가설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 안채는 원형유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고 사랑채는 구들과 다용도실의 변형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편이다. 또한 거주자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삼칸채의 파손 수리 및 사랑채 배면의 수리와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며 삼칸채의 지붕형태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랑채 및 곳간채의 원형 복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전통문화 생활의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건축적 보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인도 한국의 문화와 한국학에 관심이 많은 독일인 부부(아내는 한국인)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담양고재육가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면 한국 전통가옥의 보존 및 활용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특이의견 없음

<문화재위원 ○○○(건축사)>

1) 고재육 가옥 개요

- 고재욱 가옥이 위치한 담양 창평면 삼천리는 장흥고씨의 집성촌으로 임진왜란 전후로 터를 잡았고, 고재욱 가옥은 1929년에 고광준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보임.
- 현재 마을의 돌담길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있으며, 고재욱 가옥 주변의 고재선, 고광표, 고정주 가옥이 전남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음.
- 고재욱가옥이 위치한 삼지내 마을은 백제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 삼지내 마을 동편에는 월봉산, 남편에는 국수봉과 까치봉이 위치하여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월봉산에서 시작된 월봉천(月峰川)과 운암천(雲岩川) 그리고 유천(柳川), 세 갈래의 하천이 모인다고 하여 삼지내라는 마을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 장흥고씨들이 삼지내마을에 터를 잡아 집성촌을 형성한 것은 임진왜란 전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을 한 고인후(1561~1592)가 왜병과 싸우다 전사한 후 시신을 창평에 세거하고 있던 처가(함풍이씨)에 묻히게 되었고, 고인후와 함풍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부림, 부천, 부즙, 부량 네 아들이 창평에 터를 잡고 살면서 장흥고씨 집성촌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재욱가옥은 사랑채 1채, 안채 1채, 곳간채 1채, 3칸채 1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위에 담장이 둘러져 영역이 구분되고 있다. 안채는 남서향으로 배치되었고, 안채 북서편으로는 안채와 떨어져 ‘ㄴ’자형태로 배치된 3칸채가 배치되어있다.
- 지붕의 연결상태로 보았을 때 이 3칸채는 근래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안채와 삼칸채 북측담장이 어우러져 뒷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안채의 정면으로는 사랑채와 곳간채가 배치되어 앞마당을 이루고 있으며, 앞마당에는 근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화단과 조경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다.
- 안채는 정면 8칸, 측면 4칸 규모로 전후칸과 좌우칸은 퇴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정면 8칸 중 동편 2칸은 누마루, 서편2칸은 부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앙 4칸 중 2칸은 대청마루, 2칸은 실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구구조는 2고주 5량 형태로 종보와 대들보, 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현재 ‘심강제’ 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로 전면에 뒷마루를 두고 있다. 민도리 형식의 간결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진각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면 6칸 측면 1칸의 규모 좌우측 담장과 연결되어 가옥일원을 구획하고 있다. 6칸 중 동편 4칸은 담장 내부영역과 연결되고 서편 2칸은 외부공간과 연결되어 용도에 따라 출입형태를 구분한 점이 특이하다.

3) 문화재 보존여건

- 고재욱 가옥은 1929년에 건립되어 고재욱의 부친인 고광준이 생활하였고, 이후 고재욱, 고승석, 고영식 순으로 4대째 이어져 내려오면서 가옥이 관리되고 있다.
- 삼지내 마을은 2007년, 국내최초의 ‘슬로시티’로 국제연맹인정을 받아 숙박체험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재욱 가옥도 현재 ‘빈도림생활공방’ 이라는 명칭으로 한옥문화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등록가치의견

- 고재욱 가옥은 1929년 건립된 것으로 현재 안채, 사랑채, 곳간채로 구성되

어있고 안채 뒤쪽으로 3칸 규모의 건물이 있으나 많이 퇴락되어 있다. 등록 문화재로 등록한다면 퇴락이 심한 건물은 제외하고 안채를 중심으로 한 사랑채와 곽간채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1900년대 이 지방 민가를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5)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특이의견 없음

<문화재전문위원 ○○○(근대건축)>

1) 고재욱 가옥 개요

- 창평 고재욱가옥(高在旭家屋:心崗齋)은 1929년 지어진 전통 한옥이다. 현재 고재욱가옥이 위치하고 있는 창평 삼지내마을은 장흥 고씨의 집성촌으로 현재의 경관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걸친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마을에 있는 한옥들은 근대기 전통 가옥의 변화상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고재욱 가옥은 본채(안채), 사랑채, 곽간채(행랑채), 삼칸채로 구성되어 있다.
- 고정주가 건립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고재욱 가옥은 이후 그의 아들인 고광준이 살았으며 이어 손자인 고재욱과 부인인 김숙배, 그리고 그 뒤에는 증손자인 고승석, 그 이후에는 고손자인 고영진이 대를 이어 보존, 관리하고 있다. 1929년 건립 이후부터 계속 거주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왔으며, 2000년 초 본채와 삼칸채의 기와를 교체하는 등 전면적인 수리를 한 이후에도 부분 보수를 해왔다. 특히 2006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산 베르너 샷세 교수는 곽간채(행랑채)의 옛 화장실은 그대로 두고 설비만 현대식 세면장으로 바꾸는 등 고재욱 가옥의 원형을 간직하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보수를 하였다. 현재 고재욱 가옥은 예술가와 학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가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슬로시티의 창평의 명소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초 수리를 했던 뒤채(삼칸채)가 지난 여름의 태풍과 폭우로 지붕의 일부가 파손되어 빠른 시일 안에 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남북방향의 직사각형 대지에 중앙에 본채(안채)를 두고 안채의 부엌과 연결한 뒤편에 삼칸채가 위치하고 있다. 마당에는 근대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우측면으로 사랑채, 정원 전면에는 곽간채가 자리하고 있다.
- 1929년 건립된 고재욱 가옥의 주출입구는 반ㄱ자로 꺾여 진입하게 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조경석과 괴석 등이 놓여있으며 근대식 정원을 갖고 있다. 안채를 중심으로 세 귀둥이에는 높이 10여m의 적벽돌 굴뚝 3개가 자리하고 있다.
- 본채(안채)는 정면 8칸, 측면 3칸으로 중앙에 대청을 두고 전후퇴를 두었다. 안채 좌측 2칸은 부엌으로 뒤편 출입문을 통해 삼칸채로 연결된다.
- 곽간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좌측 4칸으로 출입문이 있으며, 좌측 마지막칸은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다.
-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으로 좌측은 가설덧집을 대어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 삼칸채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반우진각 지붕으로 좌측 지붕면이 안채 부엌과 연결되어 맞배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면과 좌측면에 마루를 두고 우측 2칸에 방을 두었다.

3) 문화재 보존여건

가. 건축물의 수리연혁

- 1929년 건립(건립자 고평준)하여 고평준-고재욱(고광준 子)-고승석(고광준 孫)-고영진(고광준 曾孫)이 거주하고 2006년 ~2010년까지 독일인 베르너 샷세 교수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인 빈도림이 임대하여 거주하면서 일부 건축물을 보수하였다.
- 2000년대 초 안채와 삼칸채의 기와 일부 보수
- 2006년 곡간채 옛 화장실은 유지하고 개량식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
- 2011년 삼칸채의 지붕일부 파손

나.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29년 건립 이후 주택의 기본 구조에 대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출입부분에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초 본채와 삼칸채의 기와를 교체하는 등 수리 이후 현재까지 부분적인 보수를 계속해왔다.
- 본채의 경우 일부 마감재의 변경 변화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 사랑채는 현재 좌측을 넓혀 다용도실로 사용하면서 일부 마감재의 변경 등은 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뒤채(삼칸채)는 3~4년 전부터 거주인이 없어 여름의 태풍과 폭우로 지붕의 일부가 파손되어 빠른 시일 안에 수리가 요구되거나 가옥의 구조와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곡간채의 좌측 마지막 칸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곡간채의 구조는 목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벽체 마감과 디테일은 변형이 심한 상태이다.

4) 등록가치의견

가.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 환경

- 고재욱 가옥이 소재한 삼지천마을은 지난 2010년 슬로시티 마을로 지정되어 전통한옥, 전통음식(쌀엿, 된장, 고추장 등 발효음식) 등을 특화하여 마을 공동체 문화를 지켜나가는 전통마을로, 매달 2, 4째주 토요일을 <슬로시티 방문의 날>로 지정하여 고택음악회, 개미시장, 천연염색, 자연밥상상차림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현재 고재욱 가옥에는 독일인으로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빈도림씨가 2011년부터 거주하면서 <빈도림 생활공방>을 운영하며 직접 밀랍초 제작체험 및 꽃차 시음회를 하고 있으며, 올해 7. 21과 8. 18일 2회에 걸쳐 고택음악회(전남도립국악단 협조)와 <한 여름밤의 촛불음악회>가 열린 바 있다.
- 한편 소유자는 고재욱 가옥이 슬로시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심지로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전통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 등록가치 여부

- 역사적 가치 : 1929년 건립된 고재욱 가옥이 위치하고 있는 창평 삼지내마을은 장흥 고씨의 집성촌으로 19세기 후반 - 20세기 전반 근대기의 집성촌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본채(안채), 사랑채, 곡간채(행랑채), 삼칸채로 구성되어 있는 고재욱 가옥은 마을의 한옥들과 함께 근대기 전통 가옥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건축적 가치

- 남북방의 직사각형 대지에 마당을 중심으로 본채(안채)를 두고 뒤편에는 삼칸채, 우측면으로 사랑채, 정원 전면에는 곡간채가 자리하고 있다. 본채(안채), 사랑채 삼칸채의 경우 일부 마감 등에 변화는 있으나 구조, 형태 및 공간구성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근대기 한옥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다만, 삼칸채의 경우 지붕 일부가 파손되어 있으며 곡간채(행랑채)의 경우 내외부의 변형이 심한 상태로 건축적 가치가 두 건물에 비해 다소 떨어진 다. 또한 출입구의 조경석과 마당의 정원, 굴뚝 등 조형물의 경우 근대기 한옥과 더불어 원형이 잘 남아 있다.
 - 등록문화재 등록 의견
 - 현재 고재옥 가옥이 위치하고 있는 삼지천마을은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마을의 많은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본 가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활용적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 된다.
 - 고재옥 가옥을 구성하고 있는 본채(안채), 사랑채의 경우 역사적, 건축적, 활용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삼칸채의 경우 지붕의 복원 수리가 이루어진다면 본채와 같이 등록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곡간채(행랑채)의 경우 타 건물에 비해 변형정도가 심해 건축적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근대가옥의 공간적 구성 측면과 향후 활용적 측면에서 등록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조사위원회는 본채(안채), 사랑채와 삼칸채의 경우 등록문화재 등록을 적극 추천하며, 곡간채(행랑채)의 경우 활용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나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하는 바이다.
- 5)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의견없음

12. 「연천 조선왕가」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경기 연천군 연천읍 소재 「연천 조선왕가」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11.04.29)된 「연천 조선왕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09.21)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남권희
- (2) 대상문화재
 - 명칭 : 연천 조선왕가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20-1
 - 소유자 : 남권희
 - 수량 : 3동(건축면적: 1,072㎡)
 - 건립시기 : 1935년(2010년 종로구 명륜동에서 현위치로 이전)
 - 건축구조 : 목조/기와지붕
 - 건축양식
 - 옹근당 : ㄷ자 평면, 겹처마 팔작지붕, 5량가
 - 문간채 : 一자 평면, 홑처마 맞배지붕, 3량가
 - 자은정 : ㄴ자 평면, 겹처마 팔작지붕, 5량가
- (3) 검토사항 : 등록문화재 등록예고 여부 검토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09.21)>

- 문화재위원 ○○○(건축사)
 - 상량문이 온전히 보존된 왕가규모의 건물이나, 1935년에 중수되었던 것

을 다시 이기한 것인 만큼, 초창의 시기와 형태, 규모를 확인할 수 없고, 중수 전후의 자료와 기록이 부족하므로 사료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문화재로 등록하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발견된 상량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추가조사를 통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이건과정에서 건축물의 공간구성이 변형되어 명륜동 한옥의 채 위치와도 상이(소유자 구술)하며, 또한 전반적으로 명륜동 한옥의 고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등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건물의 용도를 활용에 맞춘 나머지 본채를 객실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점, 지하 1층에 콘크리트조 객실층을 별도로 건설하고 그 위에 이기한 점 등이 문화재 본연의 원형을 훼손하고 있어서 그 역사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음
- 문화재로 등록되려면 원래의 소유주, 토지대장의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한 이해, 일제강점기 창건주 이근의 인물과 활약상, 친일과 정만조와의 관계에 대한 구명이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근대문화재과 의견>

- 조선왕가는 명륜동에 있던 한옥을 이전하여 현재 한옥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중수전후의 기록이 부족하며 일부 부재(기단석, 대들보 일부)만을 재사용하는 등 대부분 신재로 교체되었으므로 등록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결과 : 부결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10명, 찬성 10명

붙임 : 「연천 조선왕가」 등록조사보고서('12.09.21) 1부

<붙임>

연천 조선왕가 조사보고서('12.09.21)

1. 명 칭 : (현) 연천 조선왕가 (구) 서울 이근 고택
2. 용 도 : (현) 숙박시설 (원) 가옥
3. 소재지 : (현)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20-1
(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1번지
4. 소유자 : (현) 남권희 (원) 이근
 - 현소유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20-1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기와지붕
 - 준공일 : 1935년
 - 대지면적 : 2,705m²
 - 건축면적 : 1,072m²
 - 연면적 : 1,938.19m²
 - 층수(높이) : 단층(염근당은 지하공간이 있음)
6. 구조 및 양식
 - 가. 건축양식
 - 염근당 : ㄷ자 평면, 겹처마 팔작지붕, 5량가
 - 문간채 : 一자 평면, 홑처마 맞배지붕, 3량가
 - 자은정 : ㄷ자 평면, 겹처마 팔작지붕, 5량가
 - 나. 주요특징
 - 이전 복원 시 원 건물의 배치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건물내부에 편의시설인 욕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였음
 - 건물 해체 시 상량문 발견-상량문에 의하면 1935년 4월 중수하였고 집주인은 고종의 영손인 이근으로 선침의 낭관 벼슬을 지냈음. 상량문은 경학원 대제학 무정 정만조 선생이 시문을 짓고 농천 이병희 선생이 썼음
7. 연혁 및 수리기록
 - 1935년 : 건립
 - 2008년 : 해체
 - 2009년 : 이건 공사 시작
 - 2010년 : 이전 완료
8. 문화재보존여건
 -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근 이전한 건물로 이건 시 기단하부에 지하공간을 삽입하는 등 원형이 변경되었음
 - 1935년에 중수된 염근당의 일부 부재(기단석, 대들보 일부)를 재사용하였으나 대부분 신재로 건축되었음
 -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조선왕가호텔로 활용되고 있음.
 - 인근에 군부대 등이 있으나, 전체적인 보존 및 활용여건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교외의 여유 있는 대지에 자리 잡아 보존여건은 양호하며, 갤러리, 카페, 약선식

당 등의 부대시설이 있어 세미나, 전통한옥문화 체험, 훈육 테라피 등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

- 소유자 측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에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9. 조사자 의견('12.9.21)

<문화재위원 ○○○(건축사)>

1) 개요

- '연천 조선 왕가'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있던 고종황제의 영손 이근의 저택인 염근당을 이기한 것으로 이건 시 기단 아래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체력단련장)의 지하공간을 삽입하고, 주변에 부대시설을 추가한 일종의 한옥문화체험관이다. 해체 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1800년대에 창건된 후 1935년에 99칸으로 중수(重修)되었으며, 조선조 역대 왕의 종묘제례(宗廟祭禮)를 관장했던 곳으로 짐작이 되는 곳이나, 초창의 건축연대와 영손 이근에 대한 기록이 부족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ㄷ자 본채와 一자 행랑채 및 후원의 자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 양반주거(왕가의 규모) 건축으로 겹처마 기와팔작지붕에 5량가(樑架)의 굴도리 소로수장집

3) 문화재 보존여건

- 보존여건 양호함

4) 등록가치의견

- 상량문이 온전히 보존된 왕가규모의 건물이나, 1935년에 중수되었던 것을 다시 이기한 것인 만큼, 초창의 시기와 형태, 규모를 확인할 수 없고, 중수 전후의 자료와 기록이 부족하므로 사료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
- 원형대로 충실히 복원되었다고 하나 원 건물의 정밀실측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건하면서 기단하부에 지하공간(체력단련장)이 삽입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발견된 상량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추가조사를 통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서울 이근 고택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1) 개요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1번지에 있던 한옥을 2008년 6월 현재의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20-1 로 이건하여 건축한 한옥임
- 이건(移建)이라고 하나 연천군의 건축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한옥구조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후 내부 변경을 통하여 한옥호텔로 사용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지하는 콘크리트로 체력단련장(현재 호텔로 전용), 창고 및 보일러 및 피트(PIT) 층을 두고, 그 상부에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최초 건축되었으나 현재에는 한옥호텔로 사용되고 있음
-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지상층은 한옥으로 건축하였으며, 현대적 활용을

위해 내부는 화장실(샤워실) 및 부대시설, 그리고 천정에 냉방용 EHP 설치 등 현대화화된 설비를 갖춘 숙박시설로 건축됨

3) 문화재 보존여건

- 인근에 군부대 등이 있으나, 현재 조선왕가호텔로 활용되고 있어 전체적인 보존 및 활용여건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임

4) 등록가치의견

- 명륜동이 소재한 한옥 이건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1935년 중수)을 통해 고종황제의 영손(令孫) 이근(李芹)이 소유하였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건축물은 콘크리트 지하 구조물 상부에 한옥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됨
- 이건과정에서 건축물의 공간구성이 변형되어 명륜동 한옥의 채 위치와도 상이(소유자 구술)하며, 또한 전반적으로 명륜동 한옥의 고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등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5)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특이의견 없음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1) 개요

- 1935년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 부근에 세워져 있던 한옥을, 2008년 현 소유주가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매입하여, 현 소재지인 연천읍 고문리로 이건하였다. 이건 공사중 출토된 견본 상량문(현 소유주가 보관중)의 내용에 따르면 황족인 이근(李芹)이 건축주였던 듯하나, 토지대장에 첨부된 일제강점기의 등기부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는 昭和 10년 3월 28일까지는 洪宅柱, 3월 29일부터는 金治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근과 이들 토지소유주와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량문을 지은 정만조(鄭萬朝/1858~1936년)는 조선사편수회 활동 등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성균관의 후신으로 친일 유림의 근거지가 된 經學院의 책임자였던 만큼, 추후에 건축주 이근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일반 사대부가의 채 구성을 따르지 않고, ‘ㄷ’ 자 형 대규모 사랑채와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 소유주의 증언에 따르면 명륜동 원래 부지에 아직도 행랑채가 남겨져 있다고 한다. 원래 규모와 격식을 갖춘 웅장한 한옥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이건되면서 원래의 구성을 다 갖추지 못한 점, 이건 이전의 전체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성격과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 주택으로 보기에선 규모와 형식이 독특한 점이 있어서, 1935년에 왜 성균관 부근에 그러한 건물(중심 건물의 명칭은 상량문에 따르면 ‘염근당’이었음)을 황족의 한 사람이 지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문화재 보존여건

- 연천군내 현재의 자리는 소유주가 좋은 터를 골라 이건하였기 때문에 향후 건물을 보존하거나, 문화적인 장소로 재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4) 등록가치의견

- 건물의 용도를 활용에 맞춘 나머지 본채를 객실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점, 지하 1층에 콘크리트조 객실층을 별도로 건설하고 그 위에 이건한 점 등이

문화재 본연의 원형을 훼손하고 있어서 그 역사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 현 소유주는 ‘조선왕가’라는 명칭을 이미 개인 기업의 상표로 등록(홈페이지 참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된 한옥을 ‘한옥호텔’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건된 건물 중 본채의 이름이 ‘염근당’이라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만일 염근당이라는 명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 소유주가 여러 곳에 스스로 작명한 명칭을 현판으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어서 진정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받으려면 적어도 원래의 소유주, 토지대장의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한 이해, 일제강점기 창건주 이근의 인물과 활약상, 친일파 정만조와의 관계에 대한 구명이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특이의견 없음

13. 등록 제353호 「충청북도지사 관사」 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등록 제353호 「충청북도지사 관사」의 용도가 도지사 관사에서 문화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존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어 「충청북도지사 관사」라는 명칭으로 문화재로 등록되었으나, 그 용도가 충북 문화관으로 변경되어 문화재 명칭을 「구 충청북도지사 관사」로 변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등록 제353호 「충청북도지사 관사」
- (2)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
- (3) 추진경과
 - 1939년 도지사 관사 건립
 - '07.09.21 「충청북도지사 관사」 문화재 등록
 - ~'10.06.30 충청북도지사 관사로 사용
 - '12.09.06 충북문화관 개관
- (4) 검토내용 : 문화재 명칭 변경
 - 현행 : 「충청북도지사 관사」
 - 변경 : 「충청북도지사 구 관사」

라. 근대문화재과 검토의견

- 해당 문화재는 2010.06.30까지만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고 그 이후 '충북 문화관'으로 용도를 변경, 2012.09.06 공식 개관하여 활용되고 있으므로 현 명칭 앞에 '구(舊)'를 붙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사. 검토결과 : 원안 가결

- 「충청북도지사 구 관사」 명칭 변경 예고
- 출석 10명, 찬성 10명

보 고 사 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근대2012-05-014

14.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 무단현상변경 조치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소재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 무단현상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 무단현상변경에 사항에 대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 (1) 대상문화재명 : 안국동 윤보선가(사적 제438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8-1외
- (2) 무단현상변경내용
 - 안사랑채 내부(바닥, 벽체, 창호, 도배지 등) 해체
 - 안사랑채 배면 석축 및 건물 신축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 안채 배면 거실 증축 및 관리인 숙소 신축
 - 수목가지치기 등
- (3) 그간경과
 - '12.06.29 : 무단현상변경 발생보고(종로구청)
 - '12.06.29 : 무단현상변경에 대한 공사중지 및 경위서 제출 요구(근대문화재과)
 - ※ 공사중지 명령이후 현재까지 공사 중지된 상태임.
 - '12.07.04 : 무단현상변경 경위서 및 조치계획 제출 촉구(근대문화재과)
 - '12.07.12 : 무단현상변경 경위서 및 조치계획 제출 재요구(근대문화재과)
 - '12.07.30 : 무단현상변경에 따른 경위서 제출(종로구청)
 - '12.08.01 : 추가 무단현상변경관련 경위서 추가제출 요구(근대문화재과)
 - '12.09.02 : 무단현상변경에 따른 경위서 제출(종로구청)
 - '12.09.20 : 무단현상변경관련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2.09.21 : 안사랑채 배면 콘크리트 원상복구 조치요청 등(종로구청)

라. 현지조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9.2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안사랑채 배면에 증축을 위해 타설한 버림 콘크리트는 원상회복조치 하고,
 - 안사랑채는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하므로 조속한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안채 거실 증축과 관리인 숙소는 사적지이긴 하나, 현재 사람이 기거하고 향후 종합정비계획시 원형을 찾아 복원함이 좋겠음
 - 향후 윤보선 생가 및 이화장 등 사람이 거주하는 사적의 경우, 외부는 원형을 유지토록 하고 내부는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의 필요함이 제기됨

마. 조치계획

- 조사결과에 따라 안사랑채 배면 콘크리트는 원상복구토록 종로구에 통보 (9.21)
- 구조적으로 불안한 안사랑채는 원형을 찾아 보수정비 추진
- 안채 증축 및 관리인 숙소는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원형대로 복구 추진
- 2013년 종합정비계획 및 복구예산 추가 반영 요청

바. 보고결과 : 원안 접수